

건축사 건축

KIRA 2011 01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www.KIRA.or.kr

칼럼
시론

건축문화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하여
건축학(5년제)과 건축사 자격 제도의 정립
신축 미술관 건축에 대한 미술관장의 생각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건축학(5년제)과 건축사 자격제도의 정립

Adjustment of Architecture Education(5years) and
registered architects qualification system

김형우 | Kim, Hyung-woo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약력

•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학사, 석사, 박사) •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프랑스 파리-릴랭 건축대학원 • 대한건축학회 작품상 수상

밀레니엄으로 새천년을 맞이해 분주하였던, 새로운 천년의 희망과 경이로운 진전을 가져올 기대로 부풀었던 새로운 세기의 10년을 보냈다. 최근의 경기 타인지 정말 조용한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고속성장의 건설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물량 위주의 건설 과정을 겪어온 관행들을 숙고하여, 다가올 새로운 10년을 맞는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세계부역통상협약(WTO)에 대비해 건축학 5년제가 시작되어, 미국의 건축학교육인증원(NAAB)시스템을 적용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의 발족을 보았고, 미국의 건축학교육인증원의 인증 심사를 통과한 서울대, 서울시립대, 명지대 등이 5년이 지나 올해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인증심사를 받게 된다. 건축학과가 있는 대학마다, 건축교육의 목표와 내용, 교수진의 확보(대부분 국제적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석사 이상의 조건), 시설의 확보, 졸업학점의 증가(160~170학점)를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평생을 학교생활을 하는 교육자로서 최근의 교육개선의 성과들은 놀랄만하다. 소위 일부에 머물러 있던 건축교육 선진화와 국제화의 성과들은 진극적으로 확산되고, 선진 외국에서 교육과 실무를 마친 교수들이 대폭 충원되어 교육 일선에서 새로운 건축 교육의 토양에 새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실무업계에서의 준비과정은 어떠했는지 되묻고 싶다. 건축사 등록원의 설립과 매년 3,000명씩 배출되는 건축학도들의 건축 인턴십(IDP)제도의 건축사사무소에서의 적용은 아직 미미하다. 건축학 5년제를 마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소정(3년추정)의 인턴십 과정을 마친 건축인들이 새로운 제도의 건축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제적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최근 들어 건축학 5년제 교육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마치 잘못 만들어진 제도로 반드시 고쳐야만 할 교육제도 탓을 하고 있는데, 이것의 첫 번째 쟁점은 새로운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를 적용 한 해보지 않은 채 미루고 있는 기득권 계층의 횡포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또한 국내 건축 설계 시장의 현황에 미루어 발주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상위 50개 건축사사무소가 설계매출의 35%(추정)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취업대상의 건축사사무소는 매

우 한정적이다. 2009년까지 배출된 건축사 자격자는 17,041명으로 이중 10,590명이 등록 건축사로 활동하고 있다. 1996년에서 2000년을 맞을 때까지 1,000명대의 합격자를 매년 배출 하였는데 당시, 약 5,375명의 건축사가 늘어났고, 그 이후 매년 642명(2001년), 468명(2002년), 467명(2003년), 421명(2004년), 193명(2005년), 502명(2006년), 200명(2007년), 377명(2008년), 454명(2009년)로 감소하여 대략 450~460명 대를 물리적으로 유지하는 인상이 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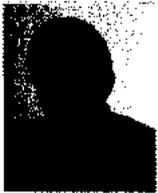
건축사 자격 수험제도에도 건축학원의 학원과의 차이가 없는 시대가 와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교육계와 실무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의과대학의 정원을 인턴수와 연계하여 제한하듯, 인턴십을 수행 할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의 수용능력과 수행지침에 대한 연구와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국내 건축 설계 시장이 각박하게 된 것은 최근의 민간 건설 부분의 위축에도 기인하지만, 대형 건설사의 공동주택의 건설에 따른 편익몰적인 단위명면 짜맞추기식 추동명면과 고층화에서 비롯된다. 3,000세대 아파트 단지 설계가 한 건의 사업승인으로 처리되며, 1,500세대 또는 15개동 이상 일 때 주동 형식이 4~5형이면 되는 현행의 공동주택 디자인 다양화의 기준은 너무 느슨하다.

주거 건축의 활성화를 위해선 100세대(또는 주동)마다 건축사를 달리하여 설계의 진면목을 대중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또한, 선진 설계 교육을 받고 국제적 건축사를 취득하고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한국건축사를 취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제도권에 영입하여, 세계적 명품이 되는 아파트를 건축하여야 할 것이다. 최종 설계 발주에서 턴키와 비티엘의 폐해를 해소하고 관·산·학이 어우러지는 기획, 실행, 연구 등의 설계 기반들이 굳건하게 자리 잡기를 밀레니엄 두 번째 10년에 걸어본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산업체, 학계 등에도 건축사를 가진 실무자들이 협의해 가는 선진시대로 접어들어야 할 것이다. 건설풍요기에 버려왔던 건축관련 분야의 업역 확보와 전문분야의 세분화로 새로운 건축사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또한 건축학교육(5년제)이 자리 잡도록 건축사 자격 시험제도의 새로운 진압을 권고해 본다. ■

신축 미술관 건축에 대한 미술관장의 양각

Opinion of Director of Art Museum for New Museum Design



배순훈 | Bae, Sun-hun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약력

-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대학원 공학박사
- 정보통신부 장관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 경영 대학원 초빙교수
- 대우전자(주) 대표이사, 사장, 회장

미술관 건축이 건축의 꽃이라고 일반 대중이 인식한 것은 빌 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통적인 예술의 신을 모시는 신전 형식에서 미술 관람객위주의 뉴욕 모 마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형태의 미술관이 건립되었다. 미술 전시보다도 건물이 대중의 시선을 끌기 시작한 것은 파리의 퐁피두센터이었다. 퐁피두센터는 건물의 대부분이 미술 아카이브를 보관, 열람하는 도서관 용도로 쓰이고 있다. 건물 자체가 건축 예술작품인 미술관은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을 절정으로 21세기 미술관 건축은 다시 미술전시와 관람객의 편의 시설 위주의 건물로 복귀하고 있다.

흔히들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그릇에 맞는 미술전시를 생각 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전시를 먼저 생각하고 그 전시를 담은 그릇을 생각하는 미술관 건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예산 배정 절차상 한꺼번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해야 하는 공공 미술관 건축 사업에서는 건축가의 아이디어로 미술관이 구상되고 미술 전시기획자는 추후에 그 건물의 활용하는 역할만 담당하게 된다. 국내 모든 미술관이 예산을 배정하는 행정 관료들이 주관하여 건축가를 선정하고 완공 후에 운영을 담당할 미술관장을 선정하는 순서로 진행되어 왔다. 종래의 관행과는 다르게 국립현대미술관의 서울관은 미술관장이 주관하여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적인 회화, 조각에서 미술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백남준의 동화상과 음성이 포함된 비디오 아트로 시작하여 양성원의 소리를 보는 음악회(정미소의 "소란"), 배정원의 과거와 미래의 연결(경주선재미술관의 "미래의 추억"), 오인환의 후각을 포함시킨 미술(국립현대미술관의 "박하사탕"), 박기원의 전시장을 내부 개조한 설치예술(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 위리엄

켄트리지의 모노로그 공연(아르코 공연장) 등등 미술표현에도 새로운 개념이 속출하고 있다. 21세기 미술관은 이러한 작가들의 창의적 개념을 담아내야 한다. 경계가 모호해지는 미술관 디자인, 미술과 건축, 미술과 공예, 미술과 음악의 복합 공연전시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방문객을 위한 식음료 서비스 그리고 편의 시설은? 예술 상품의 판매는? 전시와 소장 작품에 대한 홍보는? 고객 감동을 제고하기 위한 연출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서울관은 2012년 11월 말에 완공 예정이다. 현재 공모를 통하여 민현준 씨가 건축가로 선정되어 설계가 진행 중이고 35,000 제곱미터의 건축부지 정리가 진행 중이다. 건축공사는 금년 5월에 시작할 것이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시기획자들이 참여했고 그 동안 15회 이상의 각종 자문회의가 개최되어 미술계, 건축계의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향후에는 고객 자문을 통해 더 광범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 갈 것이다.

서울관 신축과 더불어 과천관, 덕수궁관의 개축도 계획하고 있다. 과천관은 수장 시설 중심으로 작가와 미술이론가 중심의 전문 전시장으로 개편할 것이며 서울 대공원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부설로 대규모 어린이 미술관이 계획되고 있다. 덕수궁관은 도심 궁궐 속에 있는 미술관으로 궁궐 건물이 조현대적인 미술관으로 재건축 되도록 미술애호가들을 위한 각종 전문전시가 실험적으로 열리고 있다. ■

천간사

Project Team | Kim, Jung-bum · Lee, Moo-hee · Son, Chang-kil · Ju, Yong-
Im, Je-cheul · Rah, Kyung-hyun
Client | Cheongansa
Location | Seoul Eunpyeong-gu Bulkwang-dong 8-224
Site Area | 2,098.00 m²
Building Area | 585.17m²
Gross Floor Area | 1,082.37m²
Building to Land Ratio | 27.89%
Floor Area Ratio | 42.49%
Structure | Korean Traditional Wooden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TaiSan ENG. Co. Ltd.
General Contractor | Samgong Construction co. Ltd(General Construction),
Sung-ik Construction co. Ltd(Traditional Architecture)
Building Scope | B1, 3F

Finishing Materials | Granite

Photographer | Hwang, Jin-soo

Cost | not disclosed

Major Carpenter | Lee, Yon-hoon

Stonemason | Ahn, Bae-keoun

Roof Tile Craftsman | Sung, Young-w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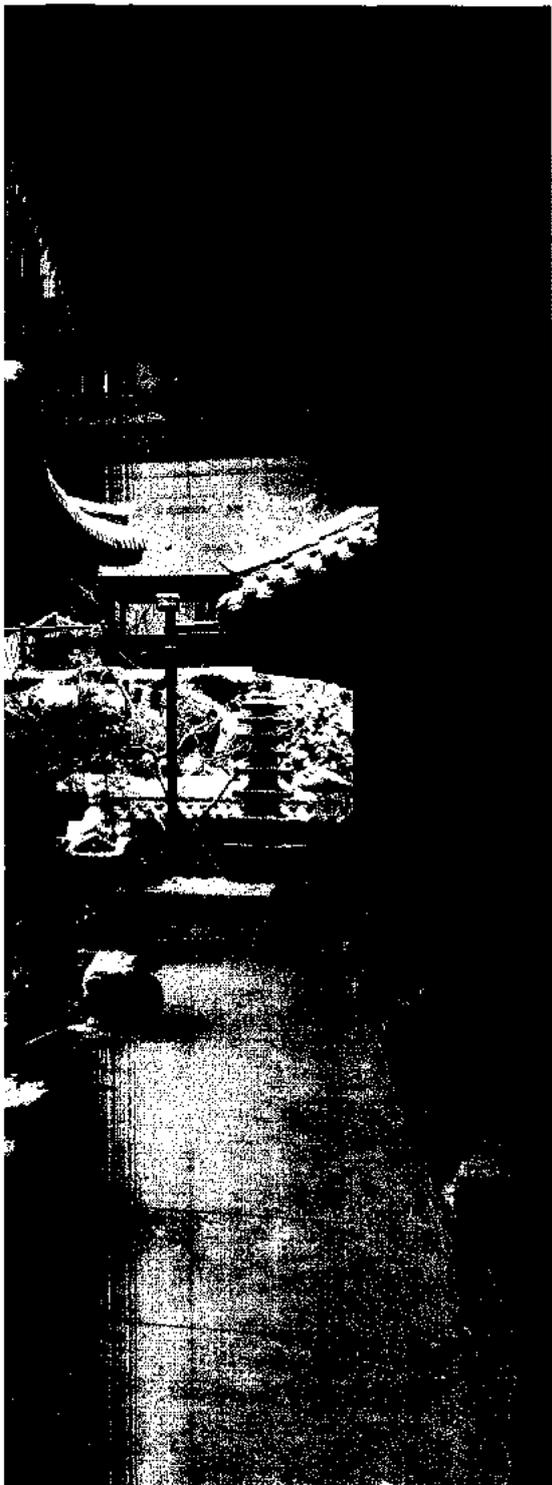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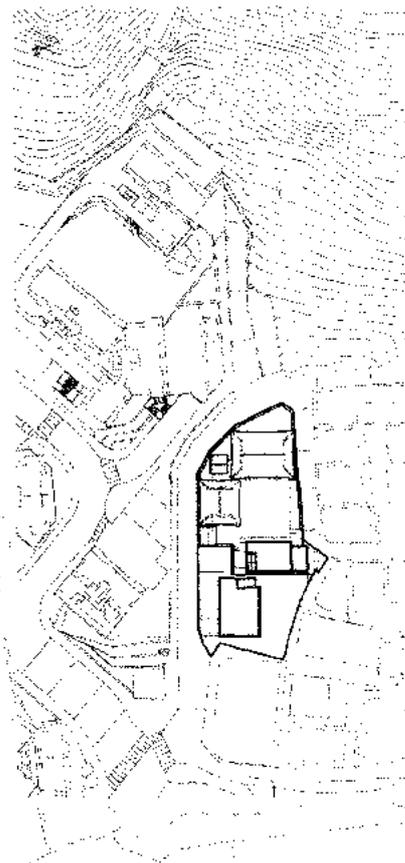
Plasterer | Kim, Jong-bin

Minor Carpenter | Lee, Boo-s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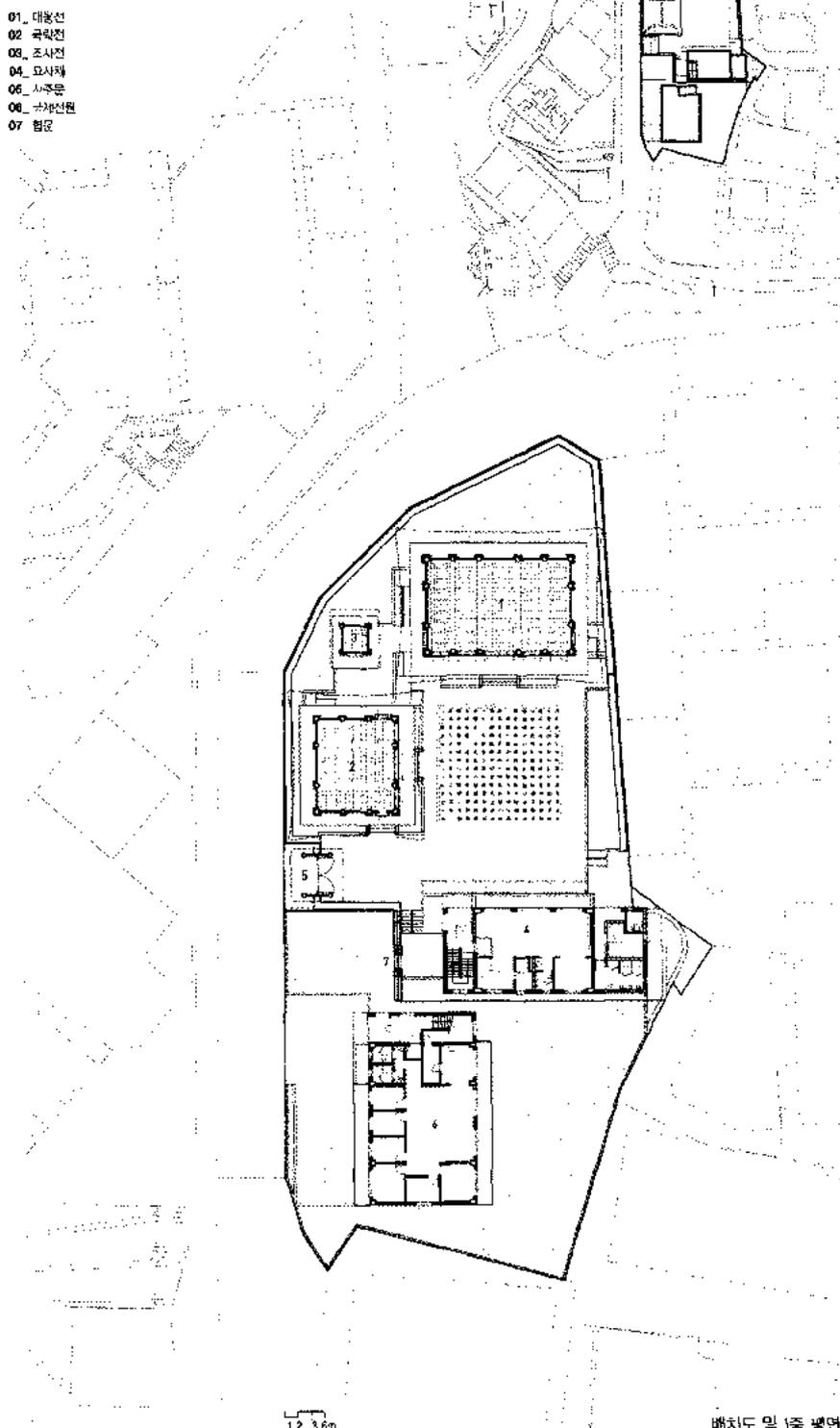
Buddhist Altar | Oh, Dong-yeol

조인숙 — 정회원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Architects — Cho, In-sook, KI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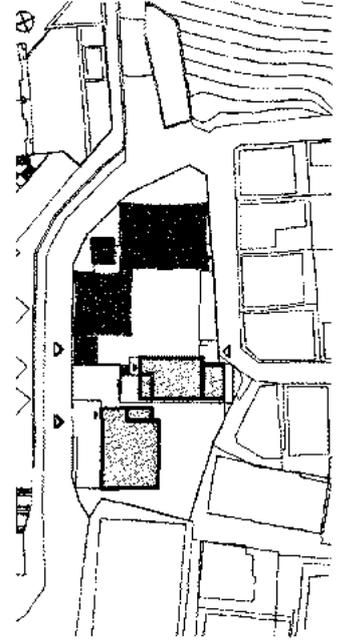


- 01. 대웅전
- 02. 극락전
- 03. 조사전
- 04. 요사채
- 05. 사주문
- 06. 부속건물
- 07. 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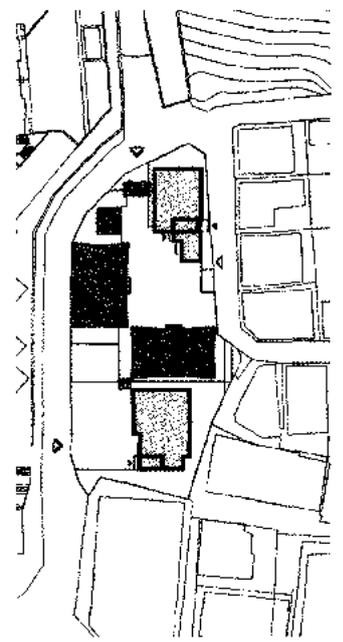


1:2 = 3.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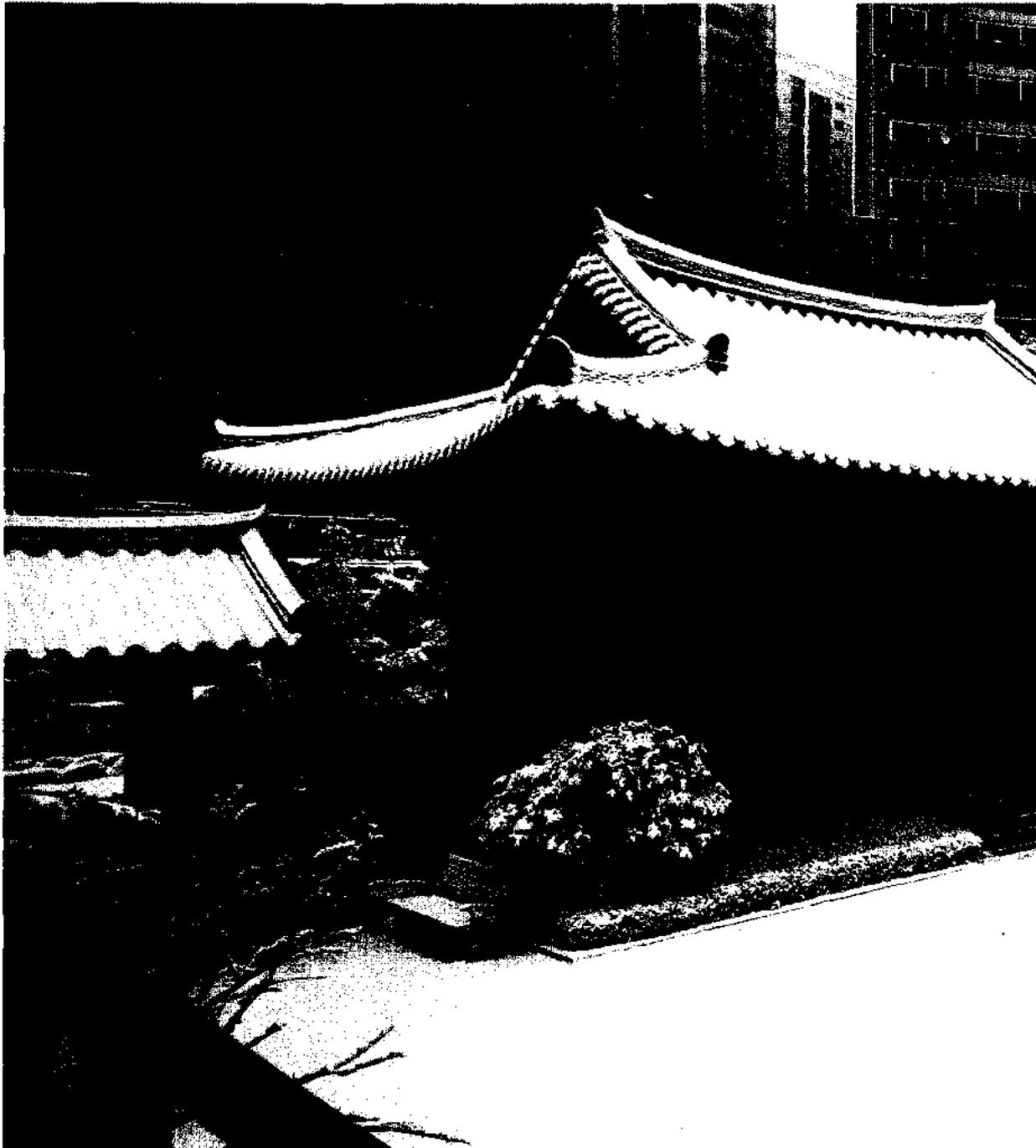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변경후 배치도



변경전(Y사 설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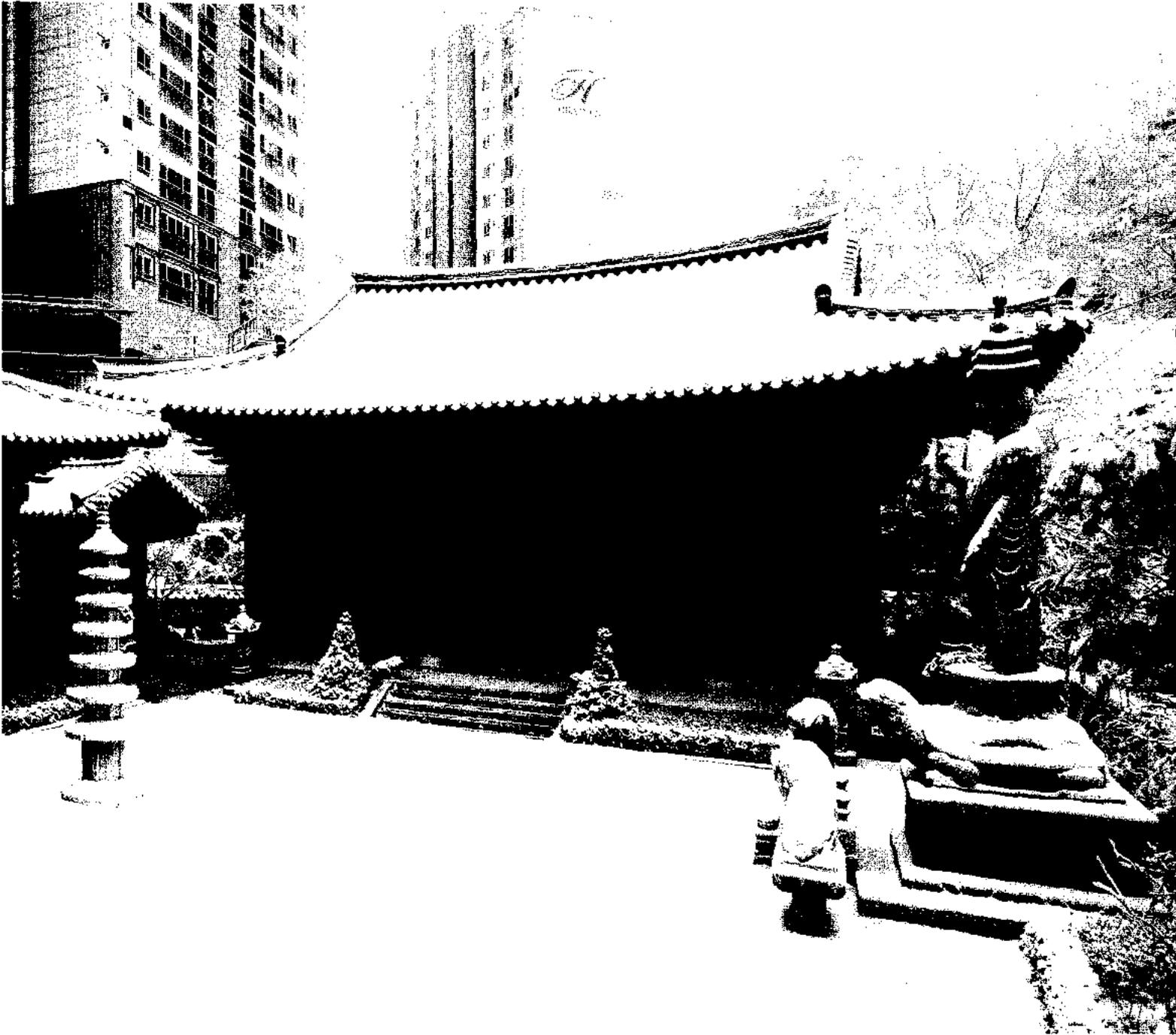
천간사 천간새주지 일괄 1969년 이범은 스님 정간은 1969년 이래 불광동 17번지 북한산 한 자락 주택지가 조성해 있었다. 불과 50년도 안돼 공동주택 재개발 일몰에 밀려 2009년 철거 수용도에 그 일대에 새로 조성한 아파트 단지 종교시설부지로 신축이전될 한 제다한불교 일동 선교종 사찰이다.

일동선교종은 석가도, 불을 교사로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하며 시가도,의의 자간각각 각행우 면(覺悟他 覺行圓滿) 자신도 깨닫고 또-종생도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교화하는 것과 깨달을 도와 수행을 염만하게 이루는 것이 근본규리를 받들고 직지인심, 건성성불, 선반도성(善持人心 善持成佛 善法度生)이 종지(宗旨) 중단이 근본으로 살고 있는 교의와 취지다. 수의(所依) 경선단 금강경과 화엄경, 적능법어로 하나 기타 경전의 연구와 역설, 사찰 등은 제한하지 않는다. 삼교로 근교리의 승지는 내한불교 조계종과 같다. 한편 소개종은 도교국사를 종조로 하고 한 국불교 태고종은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한다.

설계의 주안점 2009년 다리간축이 강리만물 의뢰 받았을 때는 풍수전문가가 정해준 건물의 배치 등을 바탕으로 설계가 완성되어 이미 허가가 난 상태였다(Y사 설계 변경전 배치도 참조) 또한 건물비와 원공해야 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었고 건물영제까지 거의 결정된 상태였다. 설계 비는 이미 완납되어 더 이상 지불할 여산조차 없었고 야초의 설계지 Y씨는 본인의 작품이라고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보전(主佛殿)이 대웅전은 2층 이따라 고서리 앞에 놓 이 어불을 하게 될 수는 없었다. 또한 요사채와 부선일 한 공간에 넣을 때의 위계를 생각해야 했고 경사진 진입도로나 성토된 땅에 대해 고려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토목비를 줄여야만 했다. 이 설계의 주안점은 배치와 토지이용이다. 그리고 주위환경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건물 및 외부

공간의 위계나 관계에 역점을 두었다. 주변이 빈 땅이었을 때 최적의 풍수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서 위요될 때도 같은 조건일 수는 없다. 이미 틀로 분할되었고 고저차가 있는 대지에 대웅전과 극락전 및 요사채, 그리고 요사채와 국제선원을 기존설계의 규모 변동 없이 놓아야 했다. 대웅전은 위계가 가장 높은 곳에 산을 등지게 하고 요사채에서는 각 층에서 대웅전이 보이게 배치를 하여 건물과 마당 그리고 담장의 관계를 설정했다. 풍수상 취마하다는 부분은 창건스님의 소시지인으로 비(非)보충했다. 취마나 사계 끝이 대서경계선을 넘지 않게 거문대(柵門) 해아 했고 치용용과후의 위계가 필요했다. 대지에 비해 큰 대웅전의 규모를 좀 더 줄여야 되는데 설득이 잘 안되었고, 장애인 경사로 때문에 대웅전의 기단을 좀 높일 수가 없다 보니 극락전과의 위계가 화면까지 없어서 좀 아쉬웠다. 국제선원은 별도의 대우도 있지만 전각들과 유기적으로 통할 수 있도록 협무를 두었다. 요사채 및 국제선원은 아주 멋있게 설계함으로써 불전(佛殿)이 주(主)간축이 되도록 했다.

불전은 좁고 긴 장방형보다는 정주 좌우가 같을수록 예불공간으로 적당하다. 대웅전과 극락전을 합한 전체면적은 그대로 두되 두 건물을 우치와 규모로서 위계를 설정하고 좁고 긴 장방형으로 두 처가 똑 같았던 명연용 되도록 장방형에 가깝게 따르므로 저질세했다. 조사전들 한 칸(間) 규모로 바꾸어 규리는 작지만 비중은 큰 곳에 놓았다. 삼교를 갖춘 여산이 안되어 임주교과 친원문의 기능을 사주인(時柱門)으로 통합해서 문(門)을 가운데 두고 네 개의 벽을 만들어 시천암을 그릴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문인 불이문(不二門)은 생략하고 대신 대웅전과 극락전으로 어워한 마당에 익산대사의 화엄일승법계도(華嚴一乘法界圖) 20자를 음각 바닥블록으로 계획하여 불이를 대신하고자 했다. 이는 7m x 30



승려의 생활사적의 요체로 法法으로 시작하 불(佛)로 끝난다.

산이 의지해 개방한 고층 아파트를 스는 현대적 사찰이 빚을 일게 견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려의 전통건축이 얼마나 엉망인지들 알 수 있나.

건축공사 정선적인 주제는 전통복조건축이다. 일반건축 사공사가 주 도맡았었다. 그러나 두 석사가 작은 돈으로 성심껏 공사를 했고 비교적 협조가 잘되어 경민하게 잘 끝났다. 비에서 영역 구분이 되어 육조 건물과 일반인들이 동시에 건축공사를 진행 할 수 있었던 장점도 있었다. 도판수가 상당히 기교로 부러워 싶어 했는데 기는 아 하지만 어느 정도는 수용했다. 전통부 문 의미 뿐 아니라 불 조경이 조성되는데 어느 할주되나보나 설계자의 곤한 땀이어서 건물을 살리는 조경이 아니라 수목을 열거한 결과가 되어 줄 다워했다. 또한 공사비가 적어서 건축 일정도 제대로 잘지 못해 마치 용에 안 맞는 눈의 걸맞을 얻은 것 같지만 추후 예산과 확보되는데 보수가 가능할 것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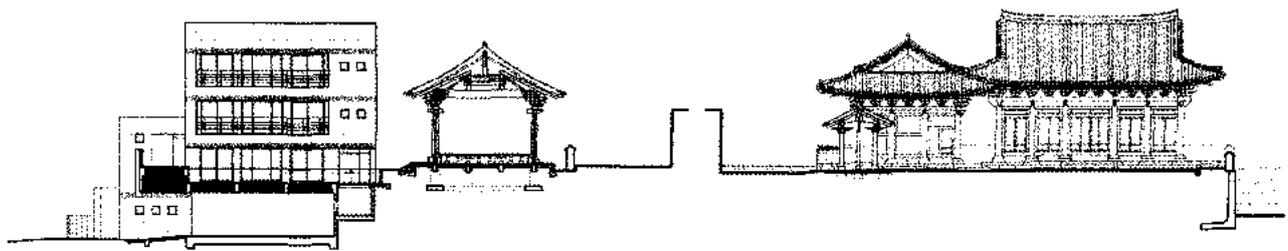
설계후기 불교사찰은 종교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법상의 등도에도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사찰은 교육 및 연구시설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 이유는 신앙은 중심으로서 새움 위해 기공하기 위한 상행이나 교호와는 달리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곳인 불교사찰들은 그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서 공양하고 현재의 삶에 적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교사찰에서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불전 그 가르침으로 대변되는 경전에 관련된 공간과 출가해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공간 그리고 재가 불자들의 수행 및 만남의 공간 순으로 건물의 위계가 있다.

전통복조건축을 지을 때 대개는 도판수나 석수, 가와장 등 장인들에 더욱 의존한다. 그러나 장인의 불과 건축사의 역할은 다르다. 건축가가 전체에서 부분까지, 사물 가구(架具)뿐만 아니라 정취의 디자인이나 이복·외종의 금구(禁具) 및 창호와 그 절충까지 상세설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조경이나 난방까지 건축가의 용이해야 신체가 소화로운 구들이 될 수 있다. 또한 전서원 풀적인 상행안 권의사찰에 관한 규칙은 전통건축인 사찰 용에는 적용되는 방식이 달라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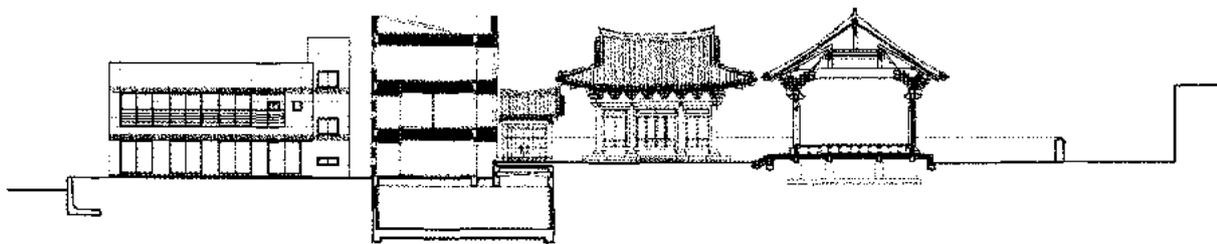
Cheongansa

The main idea of this project lies in the arrangement of the building and the land-use. Architecture, Courtyard and Enclosed wall define their own Temple compound. Focus of the design i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eighbourhood and nature as well as hierarchy of the buildings inside the compound: the main Hall - the Paradise Hall - other facilities. The weak part of land in the Pungsa (ch. Fenshui theory is compensated by the founding monk's Hall which is small but powerful building. Narrow gate leads to the main Hall compound from the International Seor (Jap. Zen) Centre. Simplicity of the residential building and International Seor Centre give great importance to the main Buddha Hall, Uisang's Ocean Seat of Hwaeom (ch. Huayar) Buddhism is designed in the courtyard for the monks and laypeople to practice the teachings of Buddh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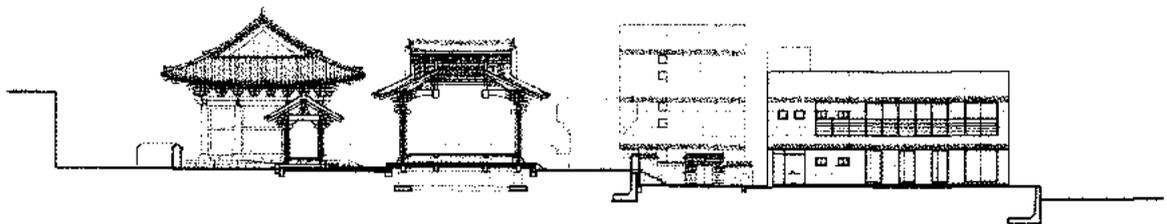


대지 종단면도 -1

대지 종단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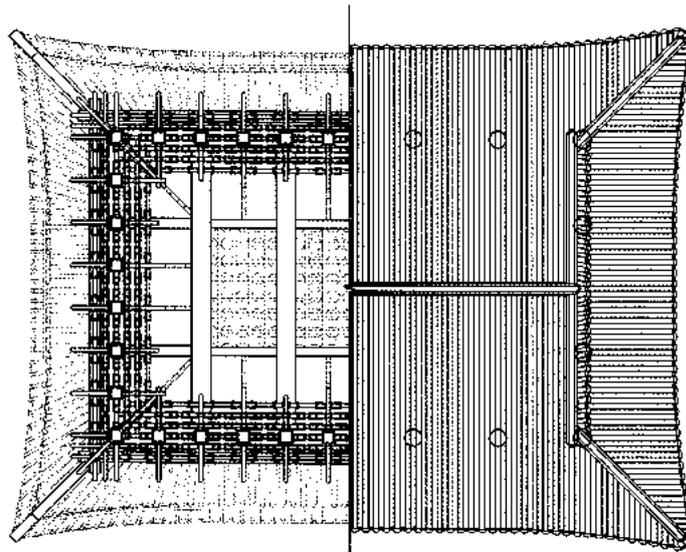


대지 횡단면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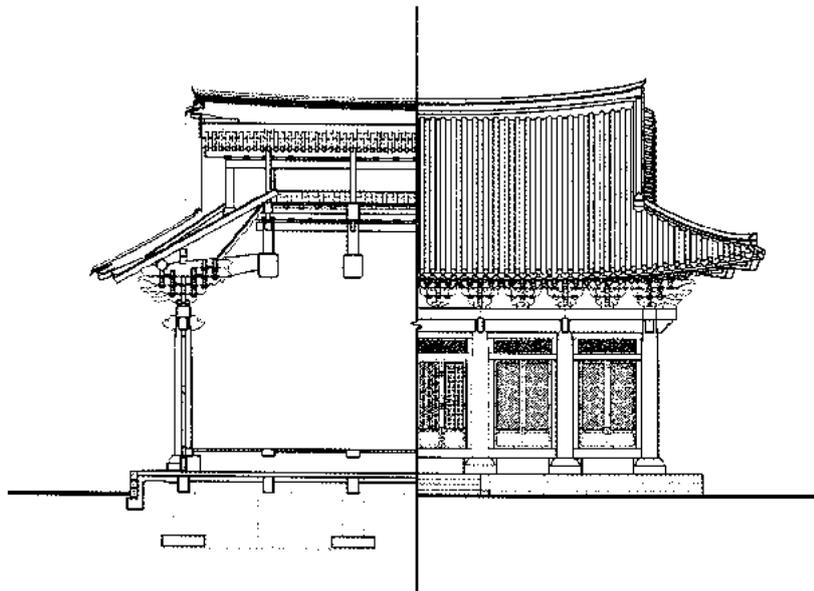


대지 횡단면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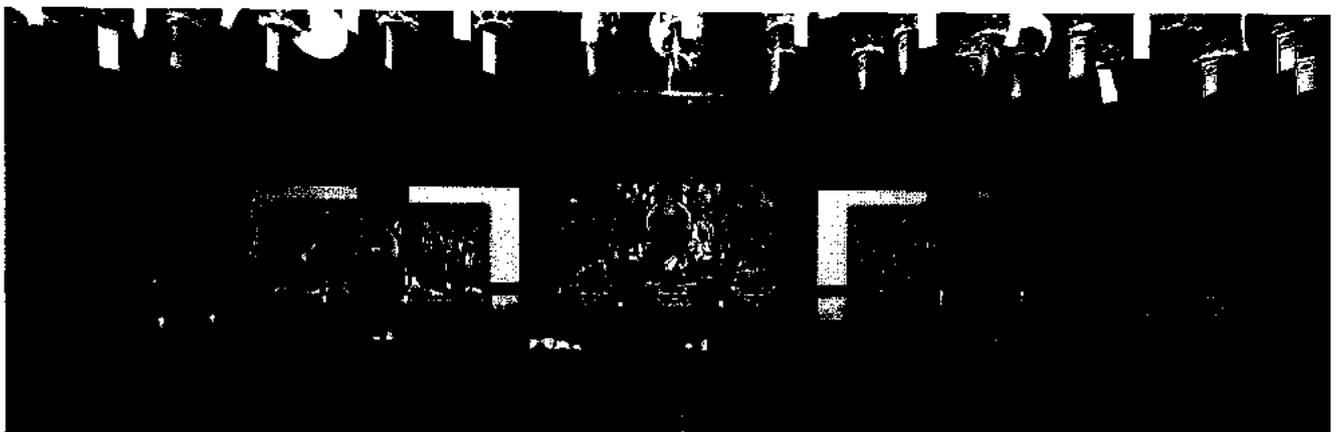




대웅전 양시도 및 지붕평면도



대웅전 측단면도 및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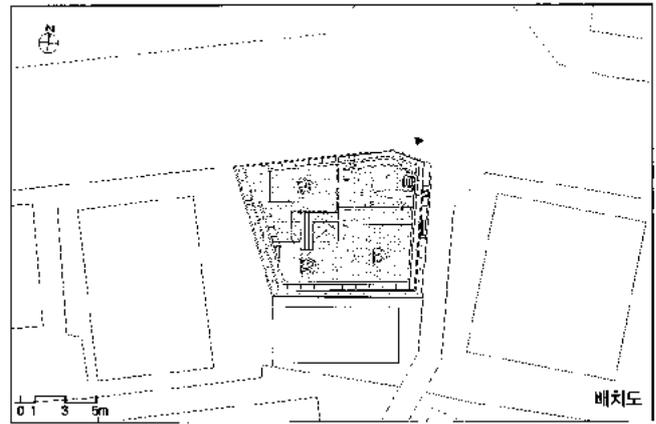


So Da H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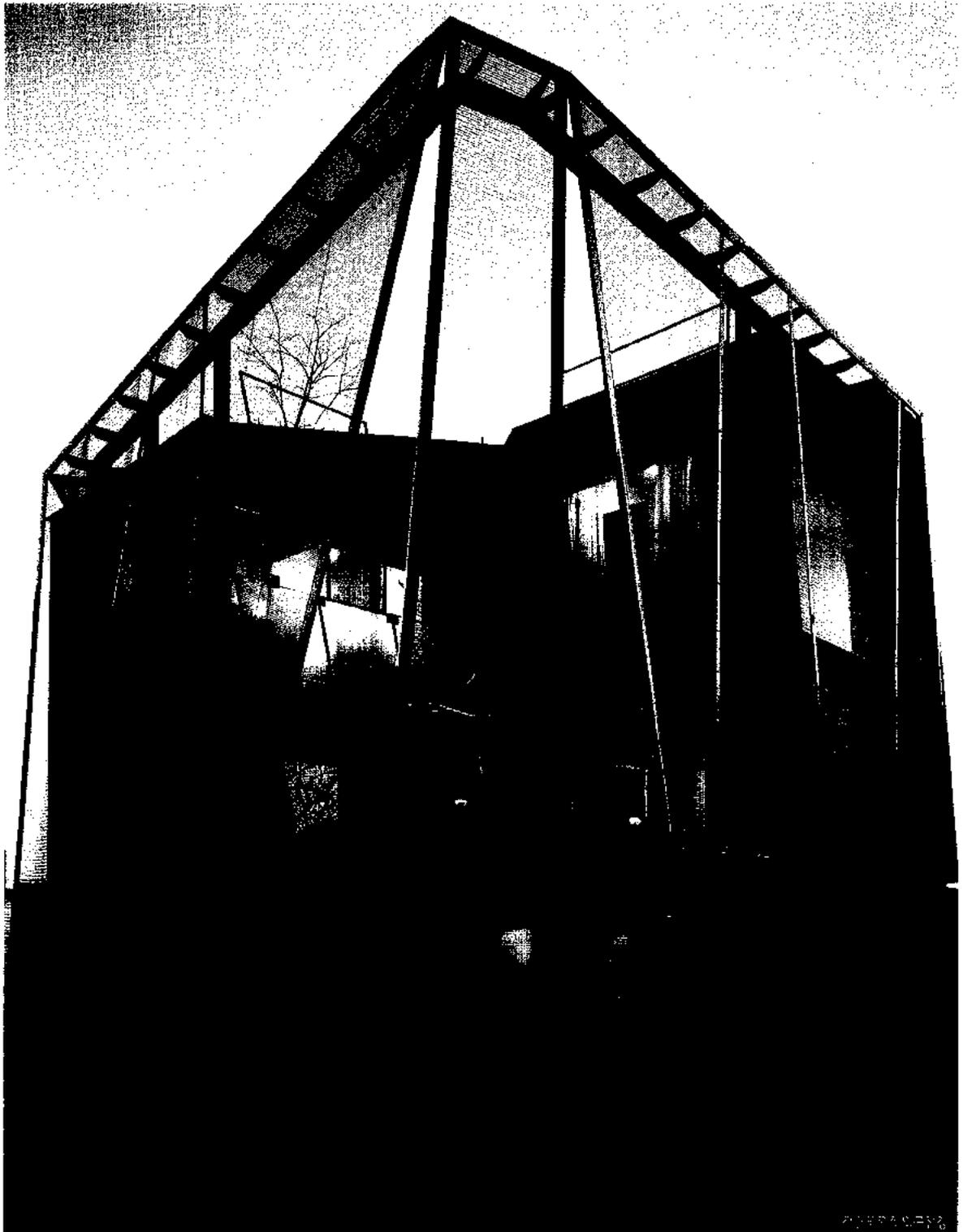
소다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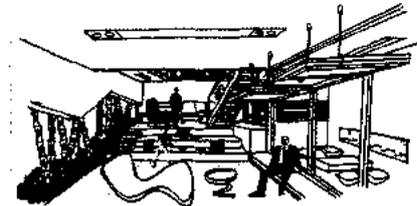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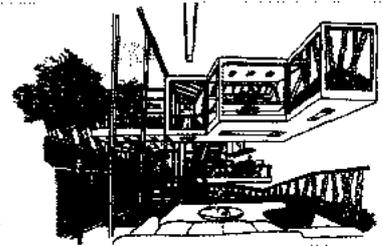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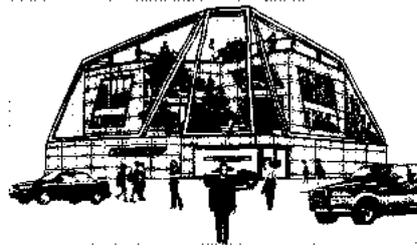
소다훈

Client | Yu, Dong-jun
 Location | Gyeonggi-do Pyeongtak, Bigeun-dong
 Site Area | 107m² Building Area | 63.25m²
 Gross Floor Area | 197.27m² Building to Land Ratio | 59.13%
 Floor Area Ratio | 159.64% Structure | Concrete Rahmen
 Structural Engineer | MOA, Oh, Sung-yeong
 HVAC Engineer | not disclosed
 Electrical Engineer | not disclosed
 General Contractor | Yu, Dong-jun
 Building Scope | B1, 3F
 Finishing Materials | Stainless steel mesh, Exposed concrete
 Photographer | Kim, Jong-oh
 Cost | not disclosed



김형만 — 정현경 이덕재 김형만 김세사 무스
 Architects — Kim, Hyo-man, KIRA





극소대지면적

도심지 중심부에 위치한 이 대지는 불규칙한 다각형의 비정형성(非定型)에 저층(低層)의 오래된 경사지로서 그 면적이 100여㎡ 정도 밖에 안되며, 동시에 계획 가능한 면적이 최대면적은 60여㎡에 불과한 극소대지이다.

수직적 공간의 전개

수평적으로 보편적 소통되면서, 수직적으로 유연하게 반복된 상승하는 스텝(Step) 시스템 적용하여, 한정된 작은 면적(面積)에서 수평적 소통과 수직적 상하로의 개방적 전개로 인해, 시각적, 공간적 제감(諸感)공간의 부패와 면적을 극대화하여, 작은 면적의 대지가 누릴 수 있는 최(最)대한 시간의 변화(變化)로 다양성(多樣性)이 드달라(多)랐다.

수평적 공간의 확산

졸업의 공간(空間)이거도 한 작은 언마당과 거실의 경계를 전면(전면) 유리화하고, 이웃집 경계(境界)의 반칙(反칙)이 거(거)기(거)로써(거)의 공간(空間)은 50cm의 작은 차(차)분(分)공간(空間)에 대(대)나무(木)를 식(식)재(栽)하여, 그곳(處)에 수(수)대(대)에 연(연)한 경계(境界)인식(인식) 선(線) 유(유)기(기)선(線)을 구(구)획(劃)하여, 실내(室內)와 실외(室外)정원(庭園)을 연(연)상(上)된 공간(空間)으로 환(換)상(上)시(時)켰(켰)으며, 또한 선(線)변(邊)의 사이(사이)의 극(極)대(大)화(化)를 꾀(企)하였다.

풍경과 빛의 여과, 반투명성 조형

도로(道路) 선(線)에 위치(位置)한 교회(교회)와 측면(側面) 창(창)가와와 상호(상호) 시(시)선(線)교류(交)류(流)의 부(부)당(當)감을 완(완)화(化)하며, 태양(太陽)의 직(직)사(射)광(光)선(線)을 여(여)과(과)하기(기)위한 스텝(Step) 리(리)빙(빙) 덩(덩)이(이), 또한 작은 언(언)마(마)당(당)을 돌(돌)려(려)싸(싸)게(게)하(하)면서, 보다 정(精)확(確)한 위(위)부(부)공(公)간(間)을 구(구)성(成)하게(게) 되어, 마치, 살아(살아)있는 듯한(듯한) 반(반)투(투)명(明) 이(이)차(차) 지(지)를(를) 담(담)고(고) 있는 집(집)의 조(조)형(形)을 구(구)성(成)하는 주(주)체가 되었다.

작지만 많은 집 small but rich

이 프로젝트는 최소면적을 가진 대지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풍요로운 공간체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연구(연구)였던 것이다.

Tiny area of site - 107㎡

This site that is located in the heart of downtown is a small, irregular, polygonal-shaped land and it is ragged old space, only area of 100㎡.

At the same time, the maximum building area is no more than 60㎡

The development of vertical space - Skipped floor space - Rich sequence of vertical space

While adapting the skin/tact system, it was possible to maximize the visual range and to produce the interesting space of variety, as possible as this small site can do

The spread of horizontal space - Narrow bamboo garden - Fence space

Because of the boundary of small courtyard and living room and the window between the concrete fence and interior space are transparent, the extended outdoor garden space and interior space maximize the horizontal visual range.

Stainless mesh - Filtration of landscape and sunlight, translucent mass

The translucent images which are consisted with stainless mesh that filtrate the sight from opposite church and side stores and direct sunlight, are the major impression of this hou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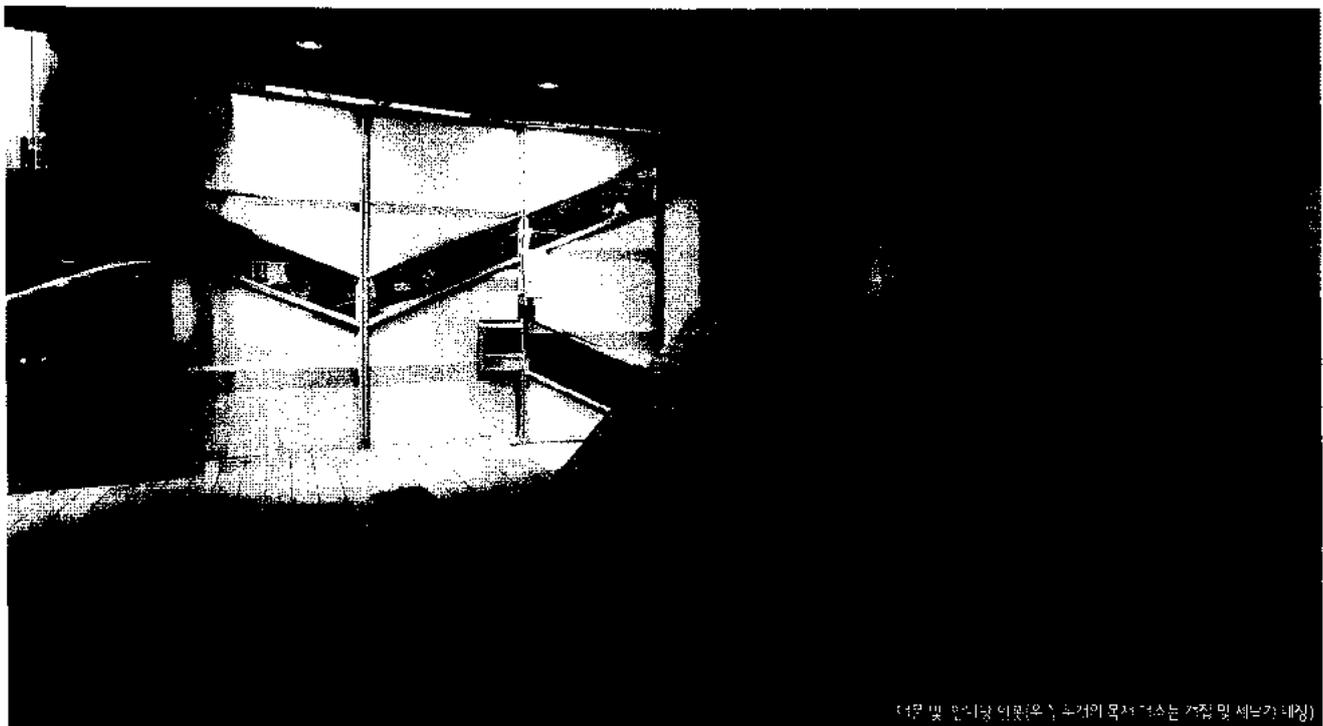
Vertical garden

Small courtyard was covered with wood panel, for the maximum efficiency of use of the place. This space of inner courtyard where it is surrounded with stainless mesh and exposed concrete walls of this house is semi interior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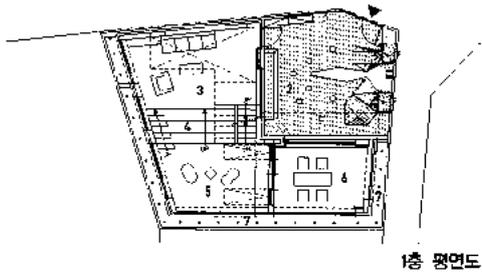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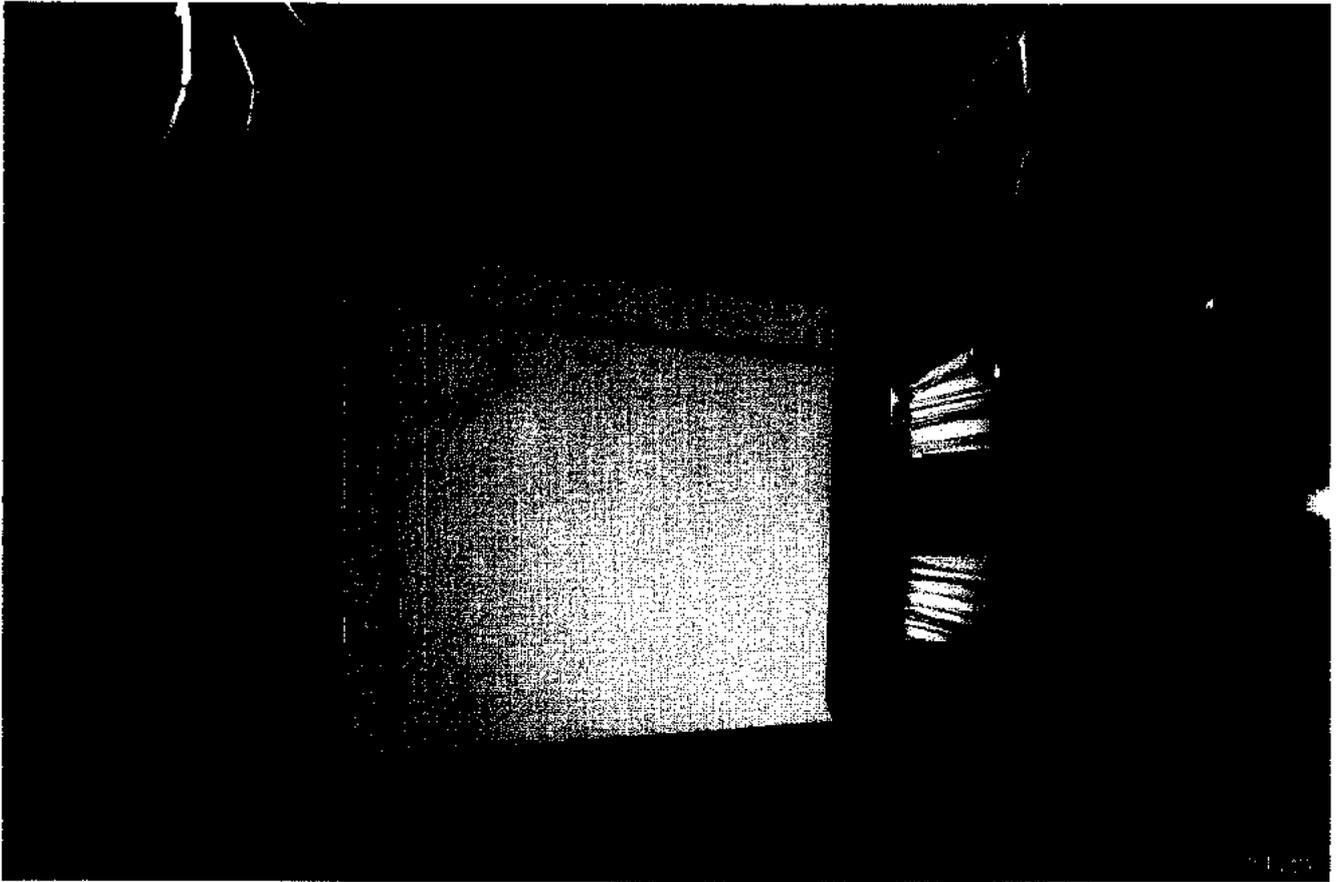
From ground courtyard level to roof garden level, several trees and flowers were planted vertically, on the canopy of main gate and on the balcony of upper floor and on the roof garden floor

Small but rich - Small area but rich space

The name of this house "Se Da Hun" means "small house but the house of rich space". This project was a research about what is the rich spatial system in the minimum area of site.



(여름 및 한낮 일출) 두꺼운 목재 벽은 거실 및 세로(세로)대장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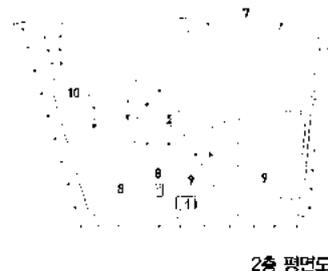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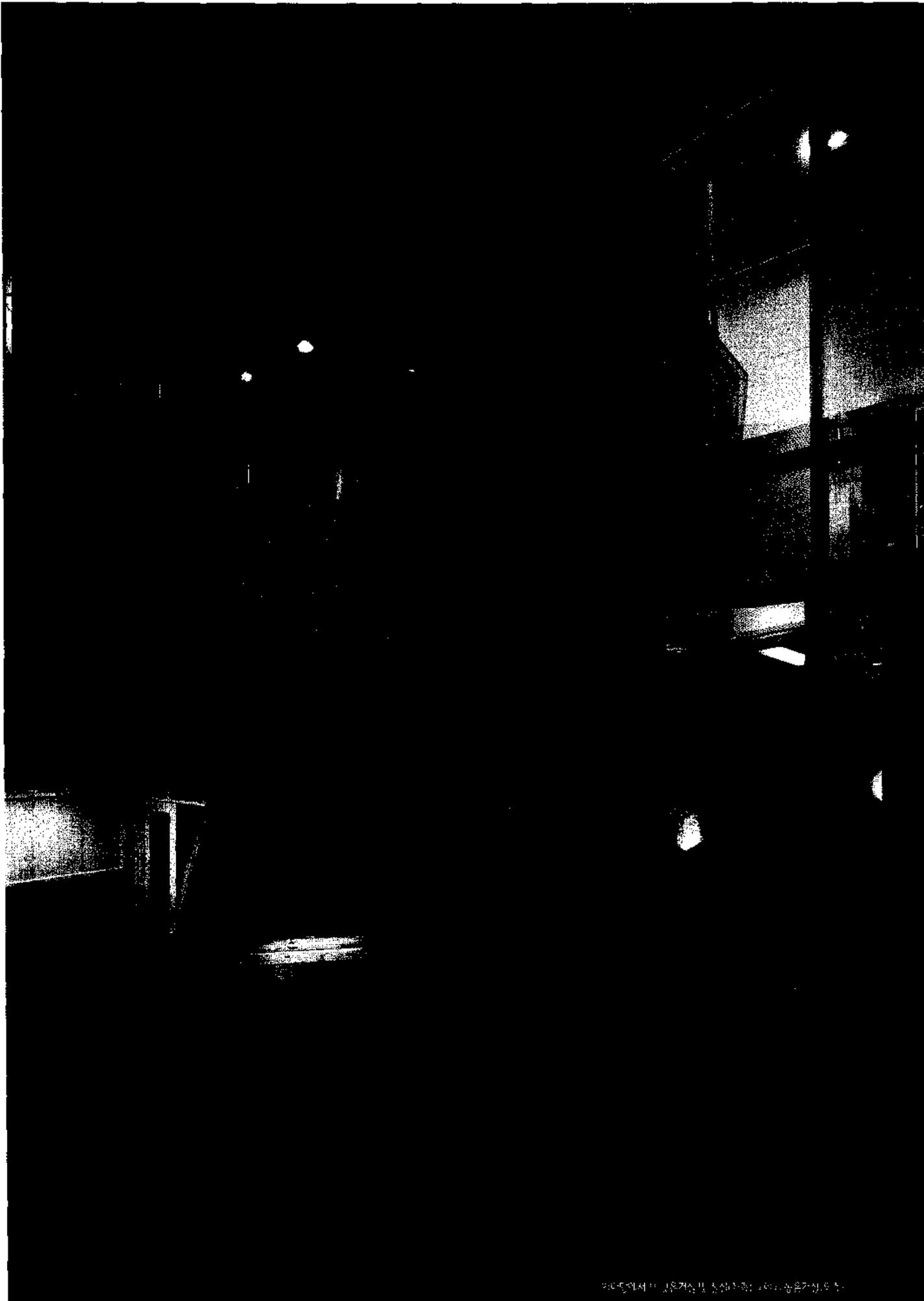
- 01. 보일러실 및 창고
- 02. 안마당
- 03. 농민거실
- 04. 스탠드거실
- 05. 낱은서재
- 06. 한식암
- 07. 대나무 화단
- 08. 식당 및 주방
- 09. 침실
- 10. 주인서재
- 11. 스탠드 서재
- 12. 주인거실
- 13. 주인침실
- 14. 침실
- 15. 발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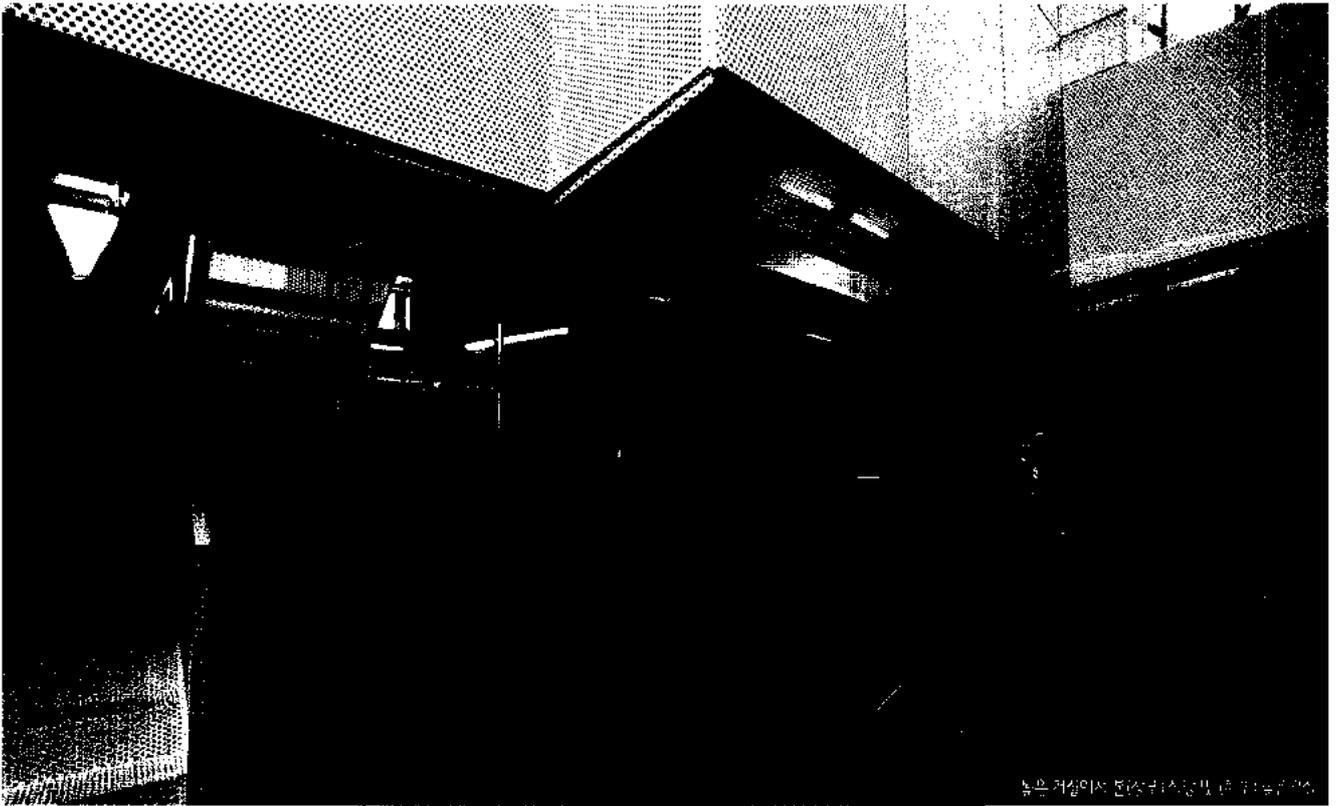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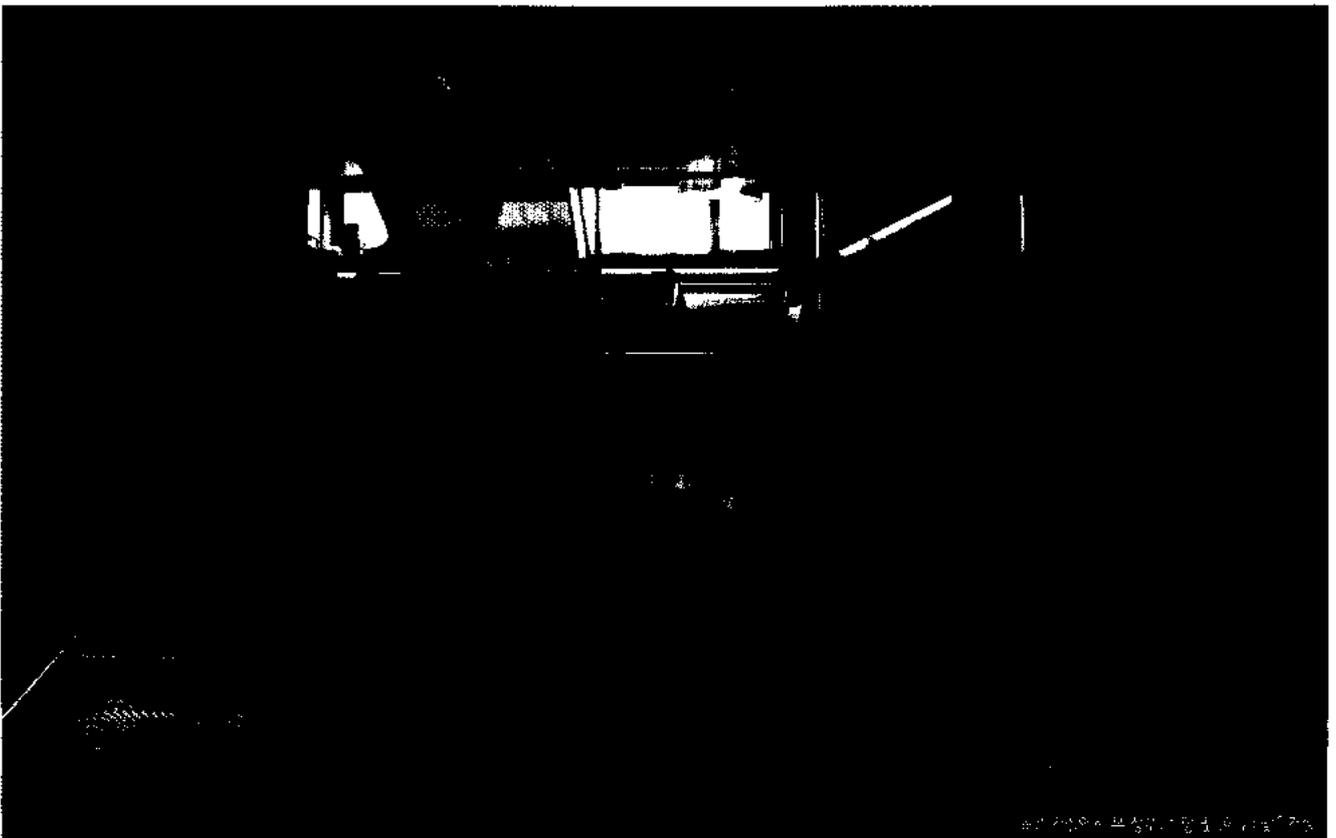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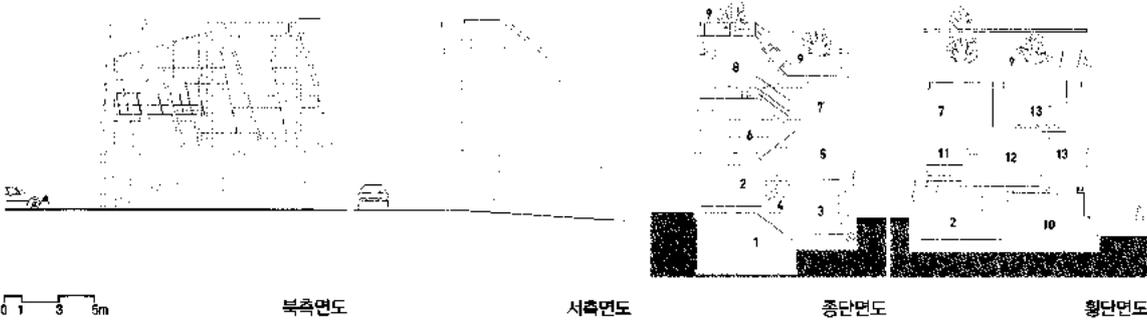
2012년에서 2013년경까지의 건축작품: 1. 2012년경까지의 건축



높은 거실에서 본 중앙 스탠드 및 대나무 회랑



높은 거실에서 본 중앙 스탠드 및 대나무 회랑



- 01_ 보일러실 및 정교
- 02_ 높은거실
- 03_ 낮은거실
- 04_ 스탠드거실
- 05_ 식당
- 06_ 대나무 회랑
- 07_ 주인거실
- 08_ 주인침실
- 09_ 옥상정원
- 10_ 천식방
- 11_ 식당
- 12_ 주방
- 13_ 침실



안기호, 서울문거실 74㎡, 2016년 12월



주연삼,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11-1, 2016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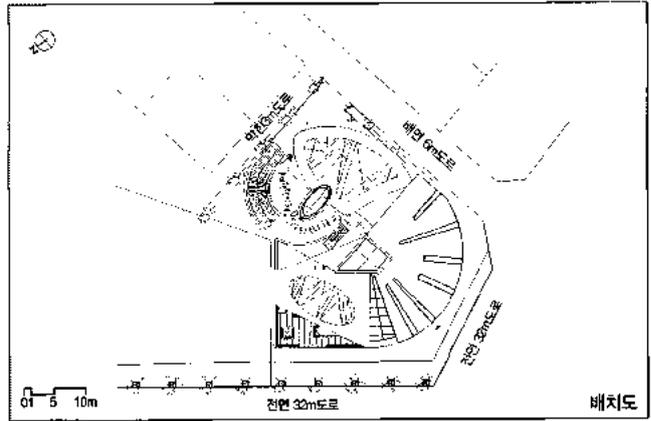


주연삼, 서울 서초구 서초2동 111-1, 2016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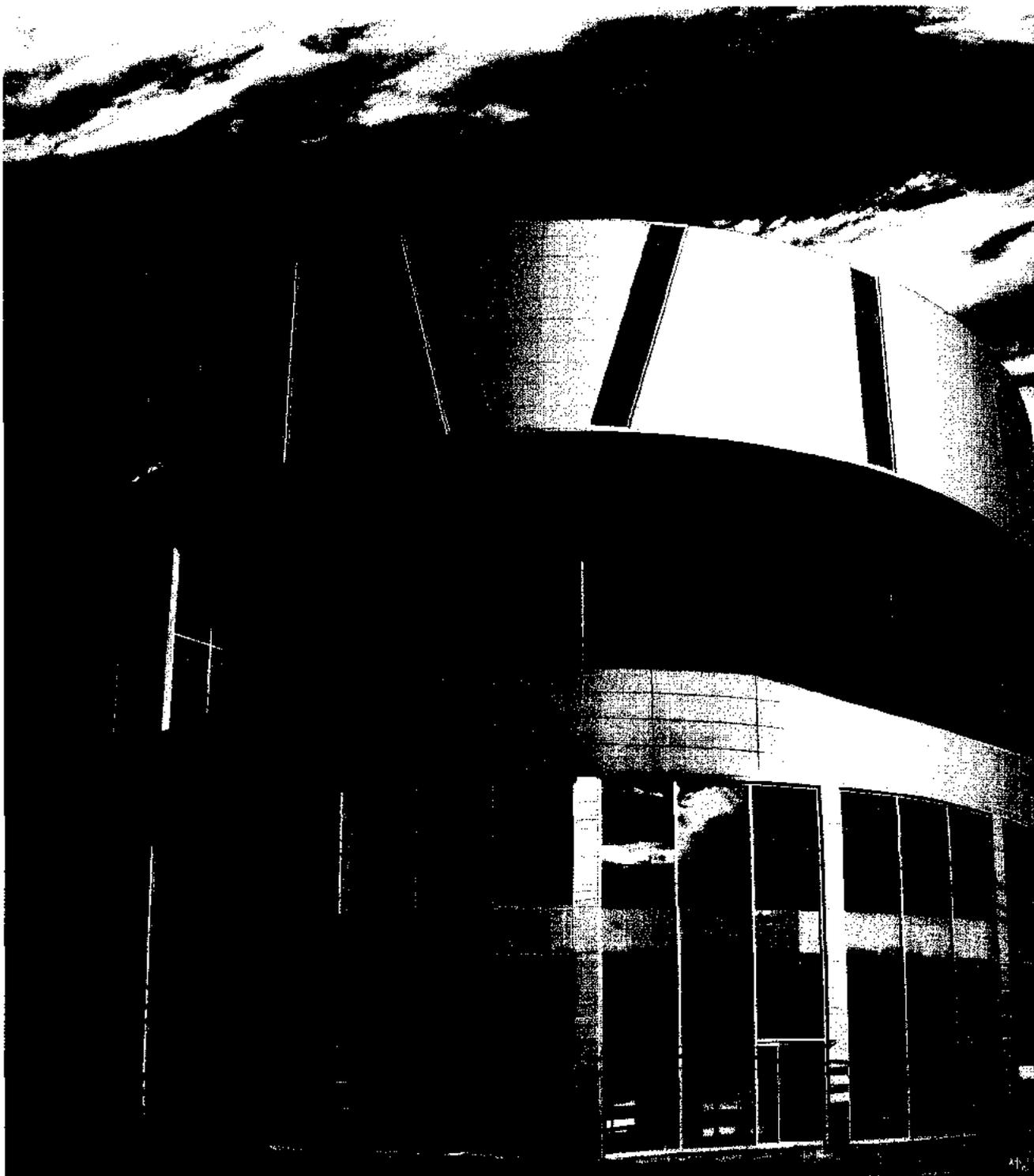
Landmark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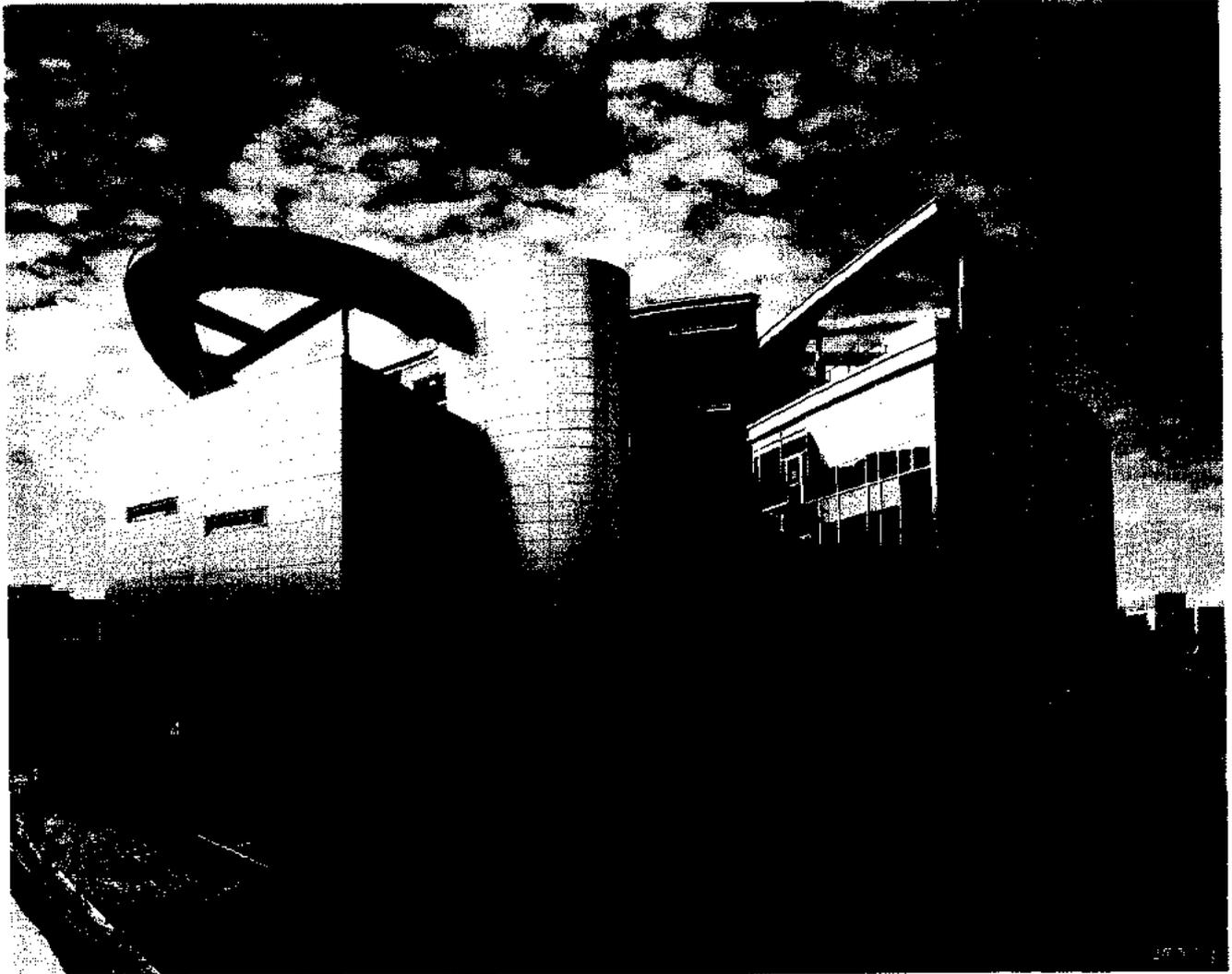
전남 레미마커 I

Project team | Yoon, Young-no, Kwon, Kang-sik, Baek, Seng-il
 Location | Gyeonggi-do Bucheon-si Ojeong-gu Jack-dong 63-7
 Site Area | 1,313.00 m² Building Area | 750.27 m²
 Gross Floor Area | 4,723.70 m²
 Building to Land Ratio | 57.14%
 Floor Area Ratio | 199.94%
 Structure | R.C.
 Structural Engineer | Zy-woo Structural Eng.
 Electrical Engineer | chun-il Enc.
 General Contractor | jun-se ye gung co.
 Building Scope | B2, 5F
 Finishing Materials | T6 AL panel, T22 fair Glass
 Photographer | Park, Chul-sik
 Cost | 4,200 m KRW



최종정 | 정회원 (주)아키마루 종합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Choi, Ho-jung, KIRA





SITE _ 본 대지에 있을 때 첫인상은 주변에 홈플러스, 하이마트, 주민자치센터가 있었으나 32m 도로 의한 물리적 분리로 보행자 동선이 접근되지 않았고, 기존 건물은 오랜 시간 관치촌 유흥업소에 인접 시민들의 접근을 배척하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노후된 건물이 있었다. 하지만 다량미도 주변에 여백이 풍부하여 있어 앞으로의 가능성과 기존 도시축의 인지성을 살려 주변시설들과 네트워크를 형성 할 수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를 짓고, 도심축의 결절성이 될 수도 있는 자리였다. 이 대지에 생명력 있는 성가를 짓고자 한다면,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건축물로 보행자 동선을 끌어들이야 했고 인지성을 높일 수 있는 랜드마크적인 이미지 부여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자본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개인의 수익성 건물이기에 많은 고민이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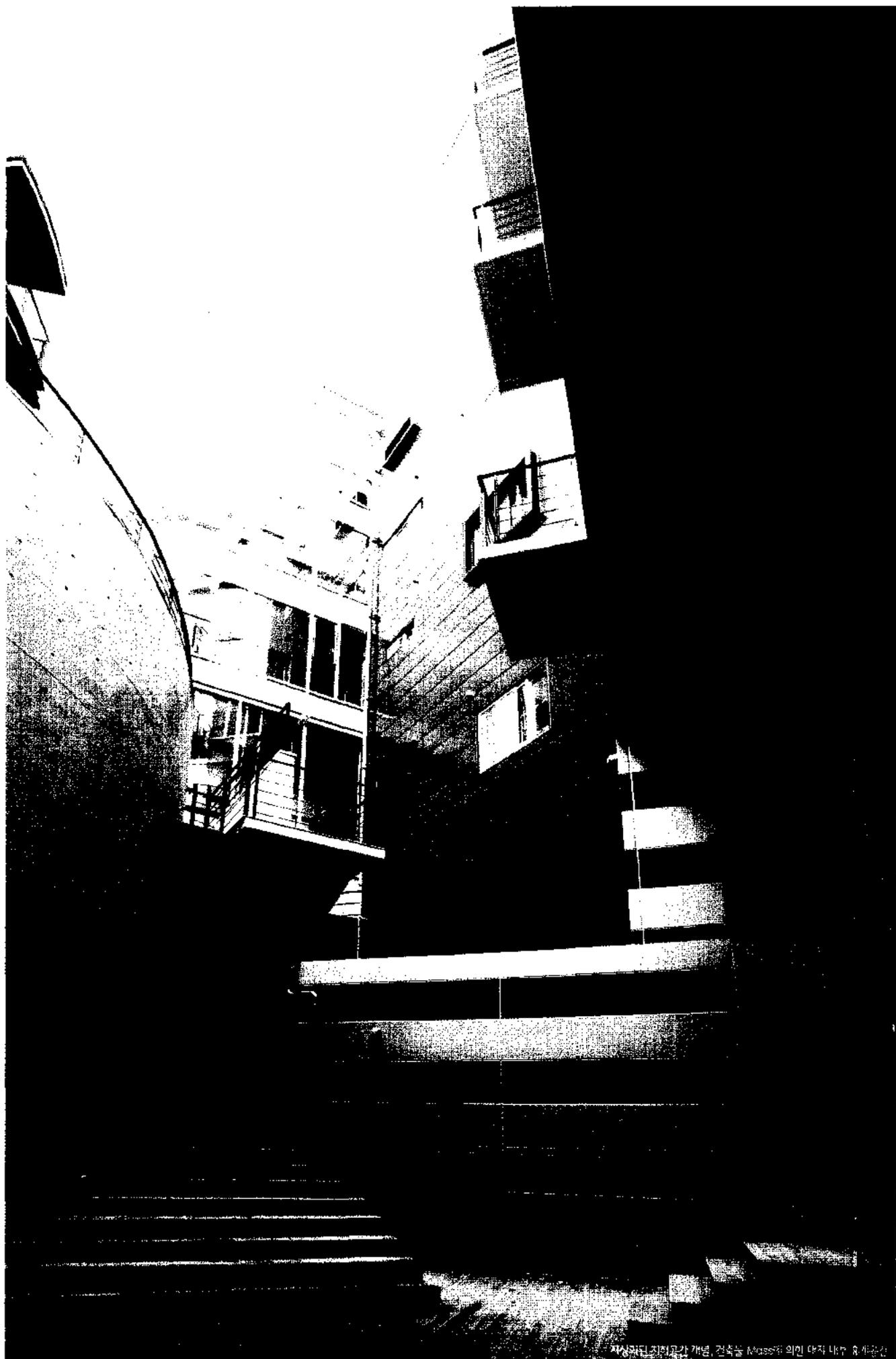
MASS _ 7각형의 여자로 전면 32m 도로에 접한 길이기 짧아 사각형의 형상을 취할 경우 상가의 전면이 짧고 후면이 길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므로 최대한의 전경상기 확보의 필요성과 후면사각을 최소화하여 상가의 경제성을 극대화하고자 다각형 대지의 여백을 고려하여 전면부를 수면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인 법치권 여건상 단순 상층적인 3,3개 층의 건축물로서는 인접의 5층 이상의 건축물에 묻혀 건축물로서의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주변건축물과 같은 5층 이상의 층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에 상가수익을 고려 1,2층은 건축물에 맞추어 120% 가까이 최대로 하고 나머지 60%를 3, 4, 5층에 건축물의 디자인적 요소로서 매스에 울동감을 부여, 생명력 있는 건축물화하여 멀리서도 건축물의 울동감이 인지됨에 따라 보행자의 동선을 유도하는데 성공하게 되었다.

SPACE _ 사업적 분석에 따른 Mass의 부리도 다소 고요적 여유공간(1, 3, 4, 5층의 후계공간)과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의해 지하층에 운동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자연채광 및 환기할 고려한 1층 휴게공간과 안계간 시야 1,2층의 신근공간으로 시장화한 지하공간이 커뮤니티에 시공된 지하 녹지공간이 자리매김을 해낸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이 될 것이며, 공간가치의 마케팅 개념에 의한 임대 수요자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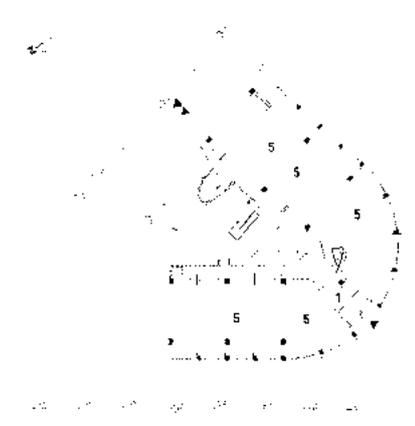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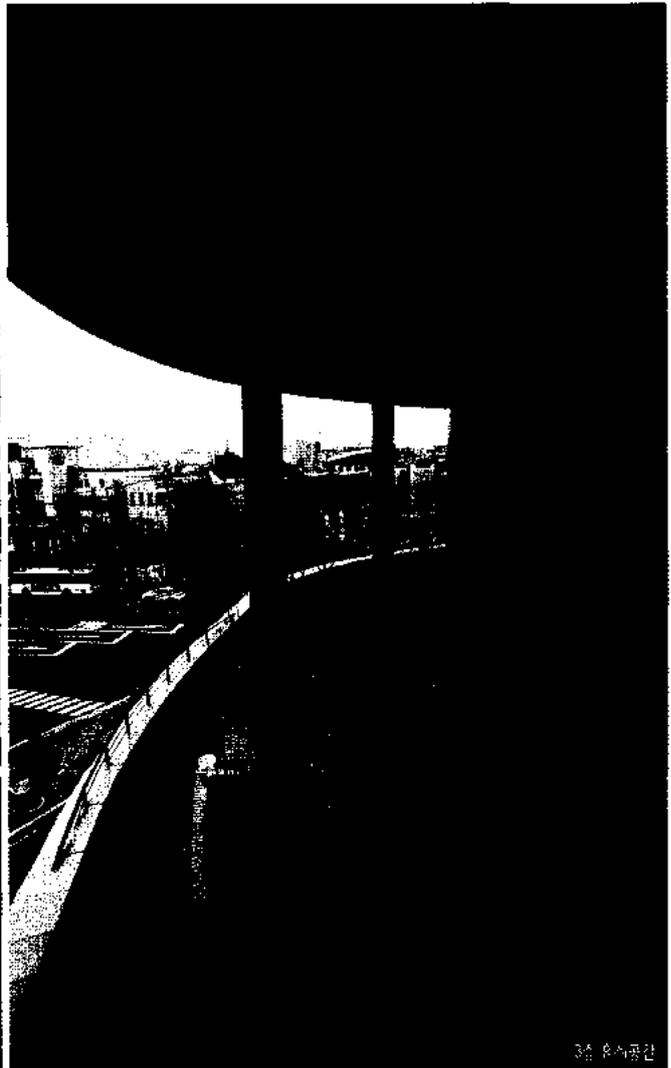
SITE _ My first impression of the site when I first arrived there was, there were Home-Plus, Hi-Mart and community autonomy center in the surroundings, but they were physically separated by a 32m road so the flow of pedestrians did not approach there, the existing buildings were close to the adult entertainment establishment, making it hard for citizens to approach, and there were buildings which had deteriorated with age. Fortunately however, YeouWoi District was in the surrounding area, so if a network could be formed with surrounding facilities by increasing the possibility in the future and the awareness of the existing city, the place could become an interchange of the city. If a shopping mall was to be built with a long life, the flow of pedestrian needed to be dragged in by using structures which attracted people, therefore an image like that of a landmark was required which would increase its awareness, but a lot of thought was required because it was an individuals' profitability building, which was hard to be free from the limits of the capital.

Mass _ The site was heptagonal in shape, and the length which was in contact with the 32m road was short, so that if it took the form of a square, the front facade of the shopping mall would be short, and the rear would be big, so the business value would remarkably drop, so, to maximize the shopping mall's business value by maximizing the front facade and minimizing the rear, the conditions of the polygonal site was considered, and the facade was given a curved surface. Also, due to the legal conditions of 60% building coverage and 200% floor area, a simple and asymmetrical 3.3 storey building would be buried in adjacent 5 storey buildings, which would not have the effect of a new building, so there was a need for a building with more stories than adjacent buildings with 5 stories, and considering the earnings of the shopping mall, the first and second floors were matched with the maximum building coverage of 120% closely, and the remaining 60% was used for third, fourth and fifth floors as a design factor of the structure, giving it a feel of rhythm to the mass, giving the structure a life, so that it was successful at attracting the flow of pedestrians by the awareness of the feeling of rhythm of the 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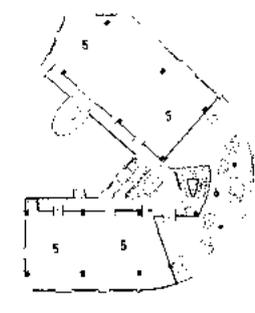
SPACE _ Through separation of mass by business analysis, by allocating somewhat intentional empty space of rest space on third, fourth and fifth floors, allocating sports facilities in the basement by the client's demand, forming rest space on the first floor which considers natural lighting and ventilation, affiliated with sunken area of first and second basement levels, and planting of green space after time, the place will become full with life, and is receiving a good response from lease consumer, with marketing concept of value of space. ■



자상파된 최현옥간 기념, 건축물 Moss의 의인 대작 대우 유계공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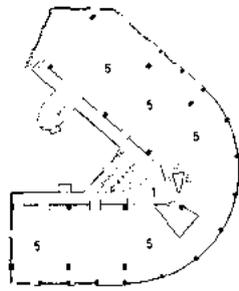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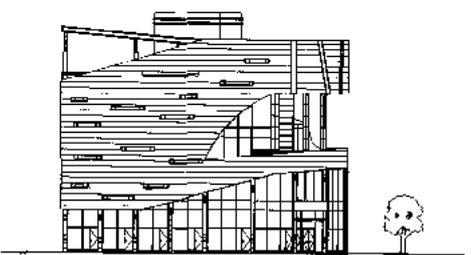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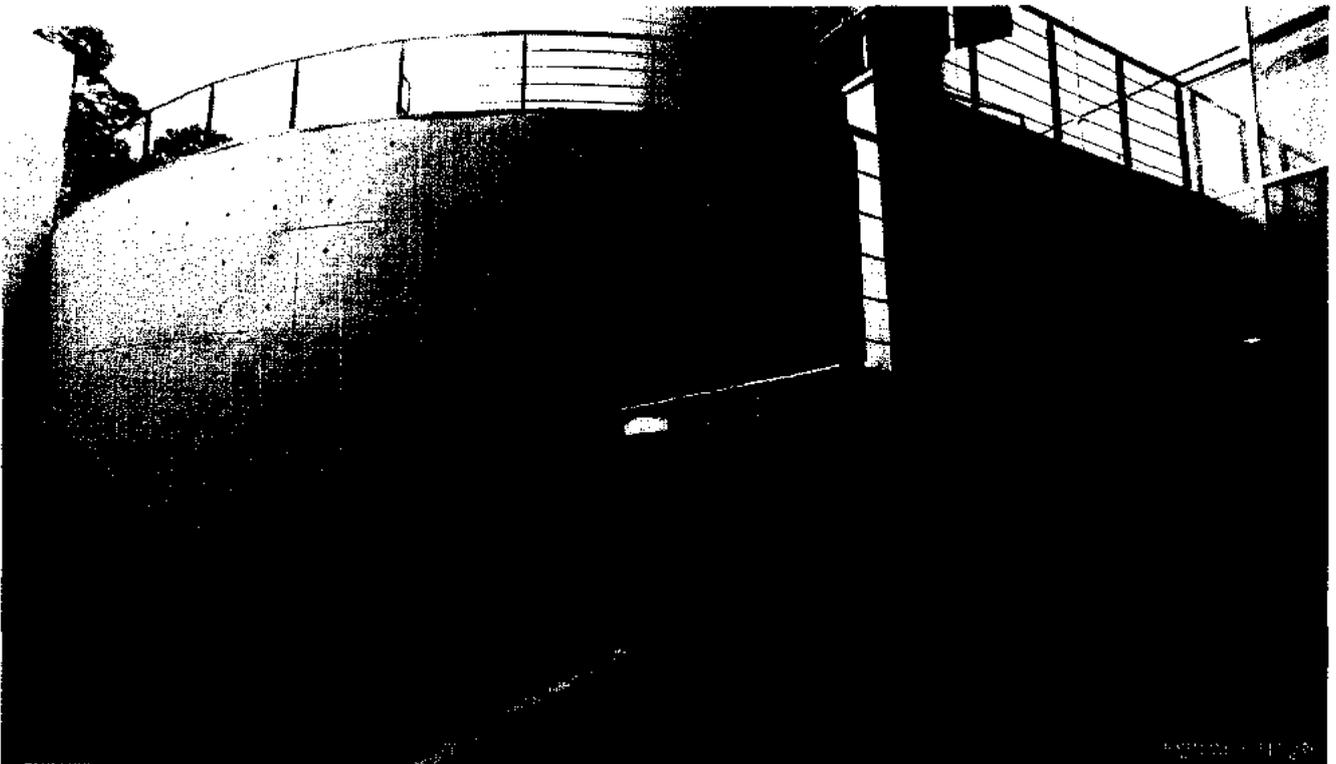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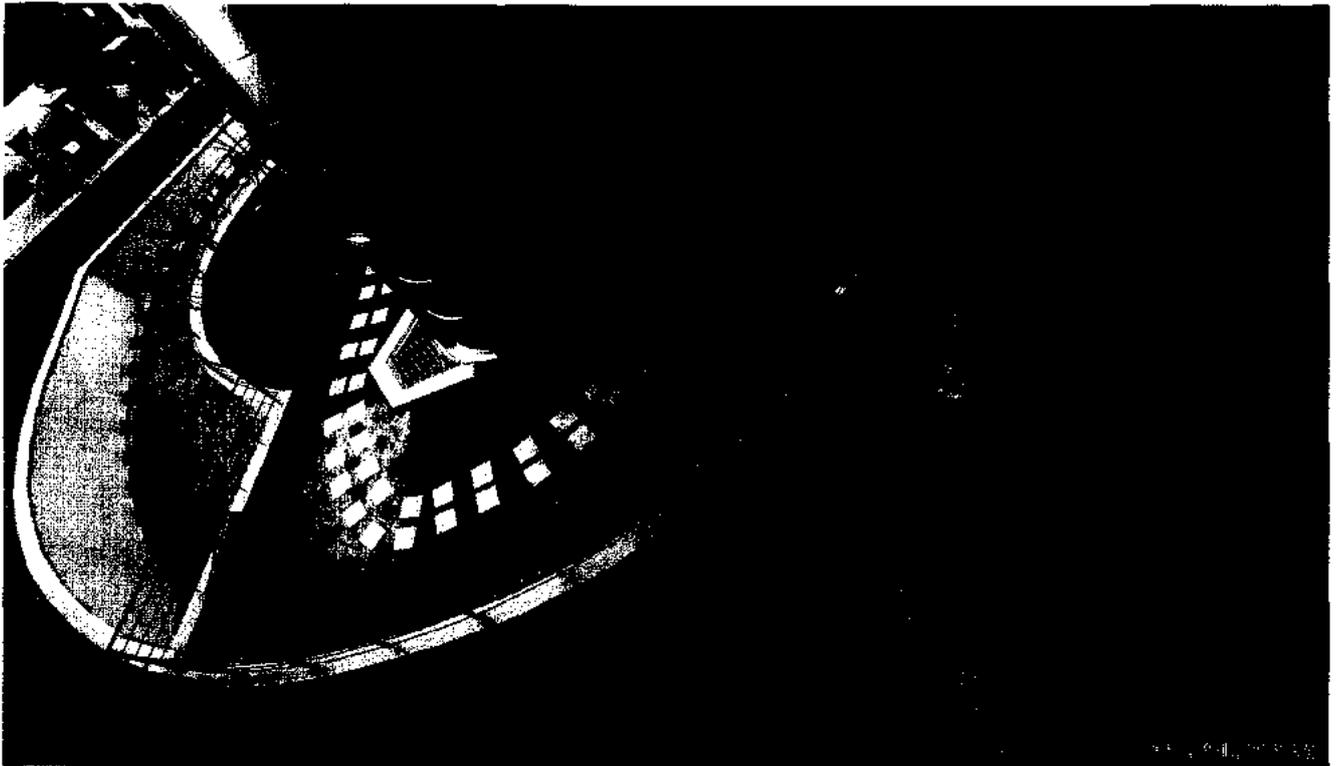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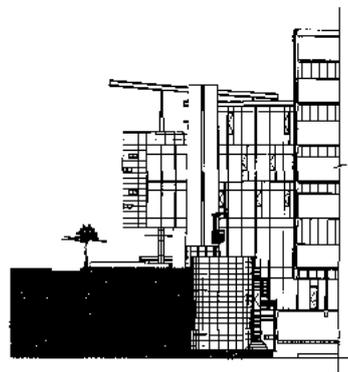
- 01_ 홀
- 02_ 주차장
- 03_ 운동시설
- 04_ 선반
- 05_ 근린생활시설
- 06_ 휴게공간

0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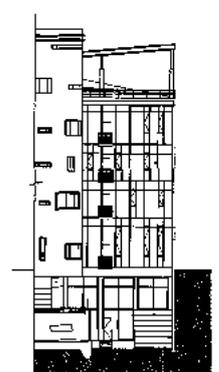
0 1 5 10m

정면도



0 1 5 10m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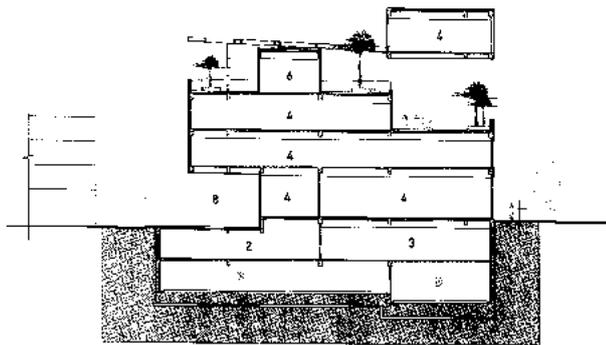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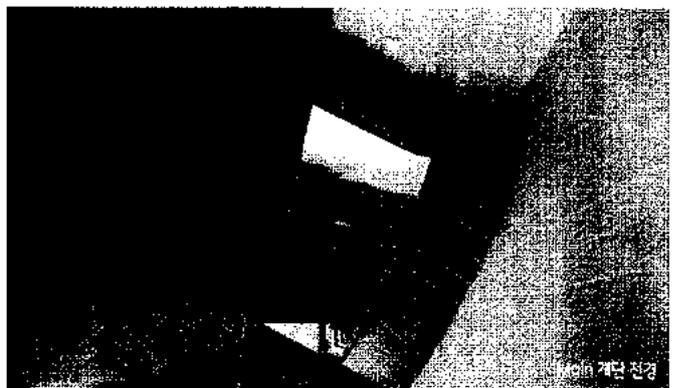


복합역안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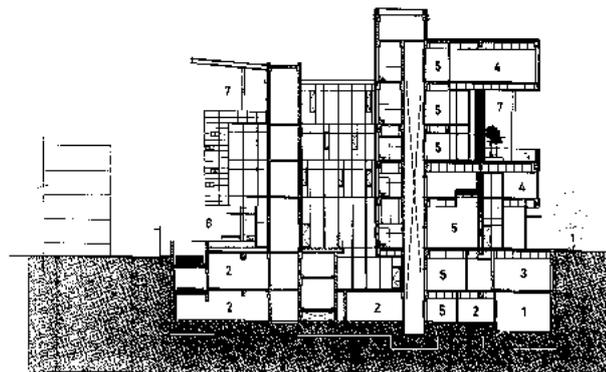
- 01_ 기계 전기실
- 02_ 주차장
- 03_ 운동시설
- 04_ 근린생활시설
- 05_ 물
- 06_ 종교시설
- 07_ 휴게공간
- 08_ 친환경 무대공간



5층 천정 & 추창 빛의 유희



10m 거대한 전경



단면도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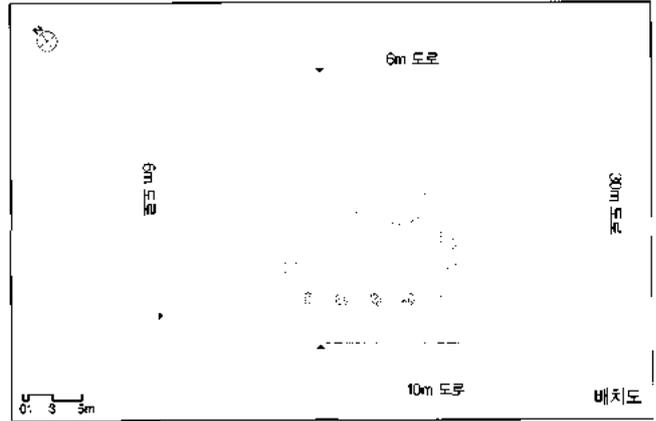


4층 사계절 유리 휴게공간

Yang dong Culture Center

양동문화센터

Project Team | Migaon Architects
 Client | Gwangju Metropolitan Seo-gu office
 Location | Gwangju-si Seo-gu Yang-dong 5-101
 Site Area | 2,686.60m² Building Area | 2,569.61m²
 Gross Floor Area | 3,890.98m² Building to Land Ratio | 95.65%
 Floor Area Ratio | 118.75% Structure | S-C+R-C
 Structural Engineer | Totat Structure Engineering
 HVAC Engineer | YoungSang E&C
 Electrical Engineer | Saerom Electricity Power
 General Contractor | Isan Construction Co.,ltd
 Building Scope | B1, 3F
 Finishing Materials | Galvanized Corrugated Steel Plate
 Photographer | Cho, Seong-jin
 Cost | 400 m KRW



이순미 — 정회원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Architects — Lee, Soon-mi, KIRA



양동시장은 광주도시에 위치하며 올해로 꼭 100년이 되는 역사를 가진 재래시장이다.

제8회 광주비엔날레 행사(2010.9.3~11.7)는 중외공원의 비엔날레 전시장과 연계한 특별 프로젝트로 양동시장에서 한해 개최된다. 일상생활의 삶과 함께 하는 문화 행사로서 직접 시장 속 주민과 함께 한다는 주제의 충소가연장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들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도록 그 목적이 있다 할 수 있다. 기존 재래시장의 옥상에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 행복 장터와 시장 속 박물관이라는 전시관, 카페테리아 등 휴거공간이 연면적 약100평 규모의 건축물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구조물에 대한 건축법 및 구조경투가 선행되었고 이후 중축에 따른 현행 법규를 제과하였다. 작은 공사비와 공사기간(약2개월)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 가장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건축을 만드는 것은 경제적,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특히 건축사. 이러한 모든 분야를 생각하고 검토를 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동문화센터는 맑은 공기과 재래시대로 복원하는 비를 위한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

배치계획은 기존 옥상위의 낮은 여백에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이용자가 직접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열린 마당 공간을 두었고, 건물 배치는 이러한 열린마당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가장 잘 아우르는 형태와 모양으로 배치하였다. 기존건물의 열악한 구조 때문에 중축부분은 구조적 보강이 필요하였으며, 기존 옥상바닥면보다 2층 바닥면 +250이 올라가야만 했다. 이러한 구조적 한 속은 외부데크를 설치하여 자연스런 건물내부와 연계동선을 유도하였으며 계단은 관통식 역할까지 부여하였다. 건축물높이 또한 경제성,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적정 높이를 계획했다.

입면계획은 방화지구로 내화판벽의 공간만으로 마감하였으며 재현스택 또한 경제성, 구조적 하중 고려의 이유가 컸다.

근대에는 재래시장 속의 문화공간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100년된 재래시장, 특히 도심 속의 재래시장 옥상에서의 문화공간은 흔치가 않은 프로젝트였으며 덕분에 2010년 여름을 더욱 뜨겁게 노닐 수 있었다.

Yang-dong traditional market, located in the downtown of Gwang-ju city, has a hundred years of history. The 8th Gwang-ju biennale (Sep.3,2010 through Nov.7) held in Yang-dong market with special project in Jung-wa park biennale pavilion. As a culture event in common life, its purpose is invigorating old market with market residents, supported by the market business promotion dept. in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It requires 330m² space for multi-cultural market managed by multi-culture center, exhibition hall (called museum in market on roof-top of existing old market. After considering construction code and structure issues on existing building, it is proceeded checking for current code. Low construction cost and short construction period (20 days approx.) were the most critical issues carrying out this project. Architecture should be included economy, period, social, culture, space and architect is required to coordinate these every single point of view. For this reason, Yang-dong market project achieved its purpose concerning short construction period and low cost.

Site planning is focused on maximum open space on the roof-top allowing fit-up with spare space for various cultural activities. At the same time, building planning is concentrated on enclosing shape to brood those activities gently.

Because of weak structure, renovated parts needs to be reinforced, second floor-level should be risen up to +250 than existing roof-top level. This condition leads internal circulation installing external deck and providing stair to seating place. The height of the building is planned in terms of economic feasibility and human scale.

Elevation finished by corrugation steel on the fire-resistance panel concerning budget and structural issues.

Many cultural spaces are brought about in traditional market recently. 100 years old market in downtown, having culture space on the roof-top, is not a common project. Without a doubt, I spent much hotter summer in 2010 to complete this project. ■



양동문화센터 전경



원형극, 시청



공작공공주택, 서울 서초구 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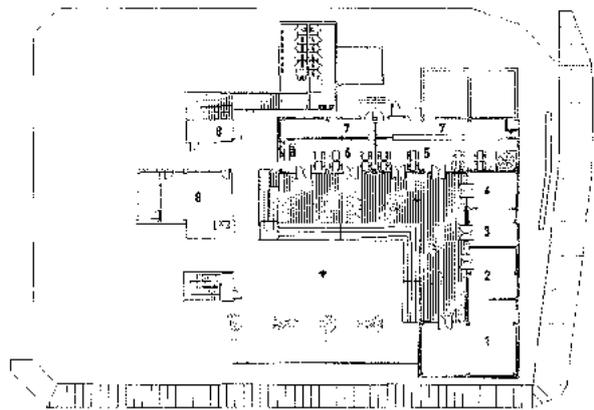


원형극, 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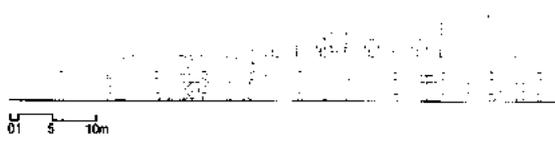
공작공공주택, 서울 서초구 시청

- 01_ 전시장 03_ 판매점 05_ 다문화수당 07_ 주차장
- 02_ 프로그램실 04_ 다문화공방 06_ 공예레스토랑 08_ 사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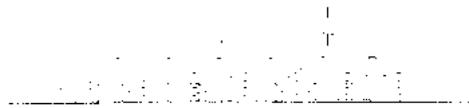


01 5 10m

2층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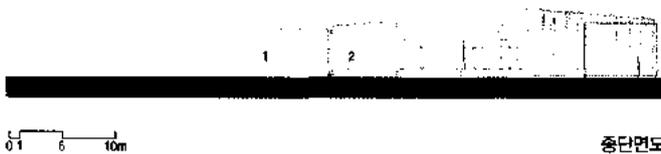


비엔날레 조시장(상수) 1층 2방



가시계(1층을 포함하여 비엔날레시장(일련) 1층)

01_기존 화상실 02_층에 레스토랑 03_1층화 공간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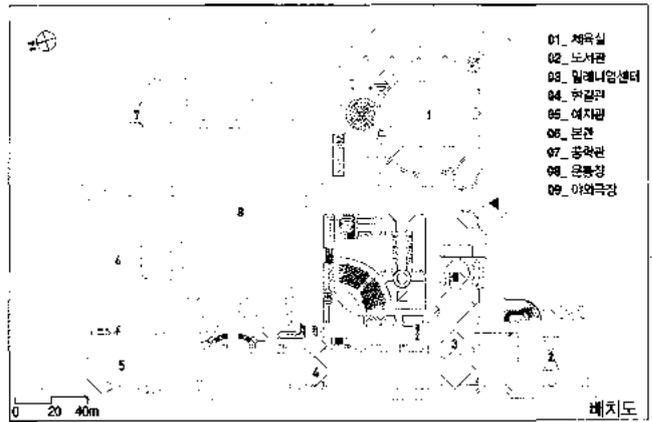


정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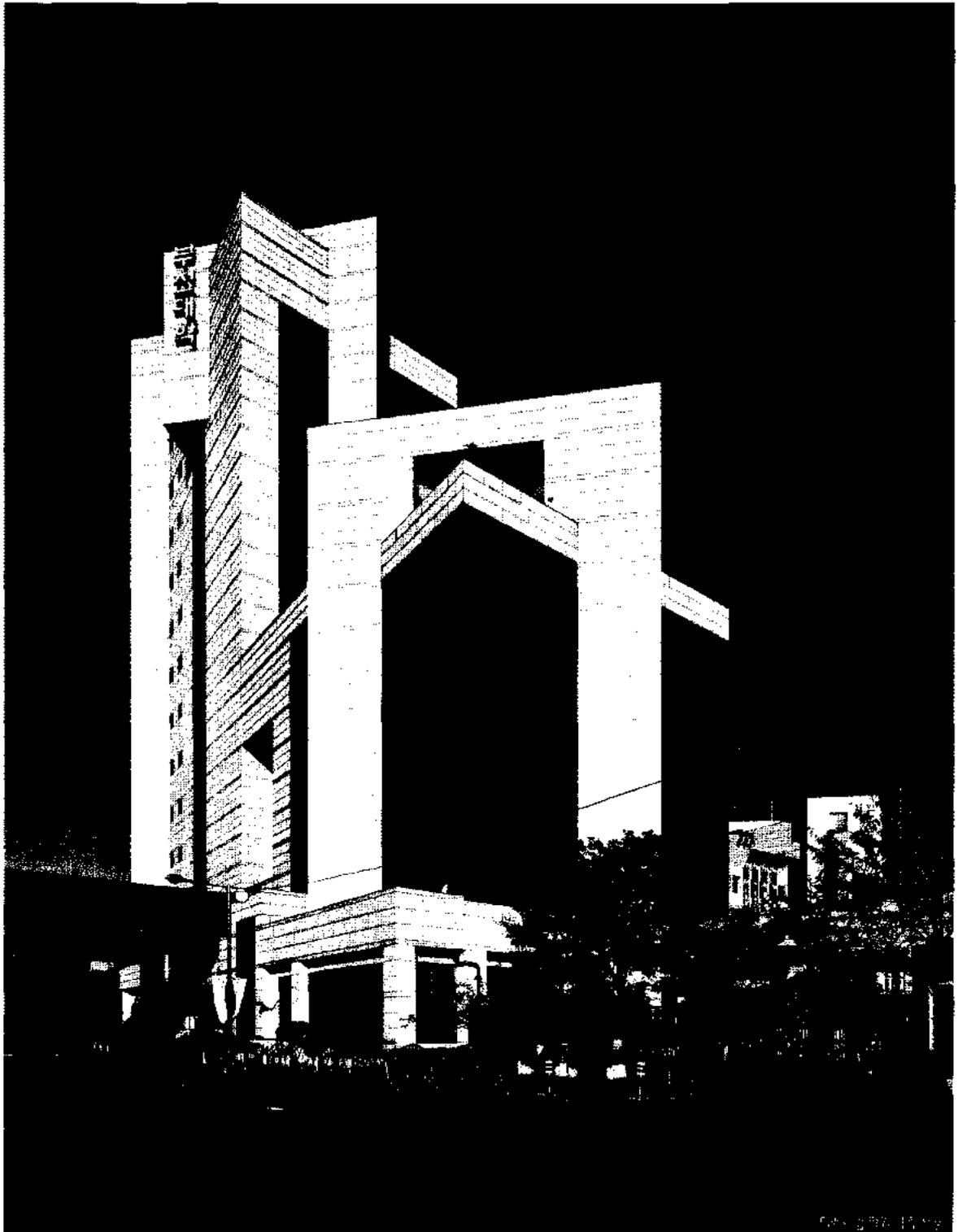
Bucheon College master plan

부천대학교 마스터플랜

Project team | Seo, Hee-cheal · Lee, Sung-ha · Kim, Dong-woo ·
 Gu, Jin-won · Choi, Eun-sung · Yun, Eun-sung ..
 Client | Bucheon College
 Location | Gyeong-gi-do, Bucheon-si, Simgogdong, 424
 Site Area | 44,729.90 m² Building Area | 6,977.32m²
 Gross Floor Area | 50,447.16m² Building to Land Ratio | 29.3 %
 Floor Area Ratio | 187.46 % Structure | S.R.C
 Structural Engineer | Du hang Engineering
 HVAC Engineer | GK Engineering
 Electrical Engineer | GK Engineering
 General Contractor | Dong Jin Construction
 Building Scope | B1, 13F
 Finishing Materials | Aluminium sheet, Glass curtain wall
 Photographer | CA Cost | not disclosed



최주환 — 정희원 (주)아진 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 Choi, Du-kiil, KI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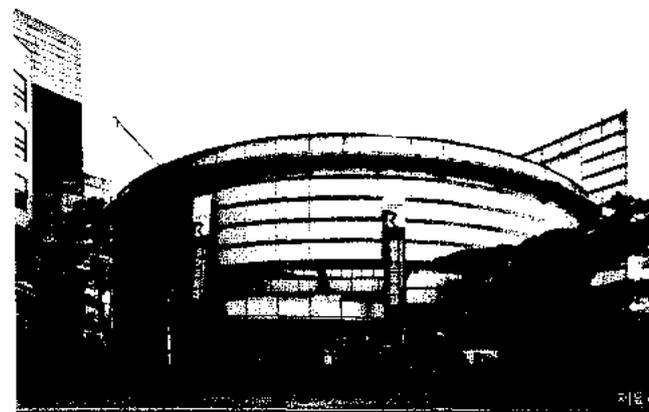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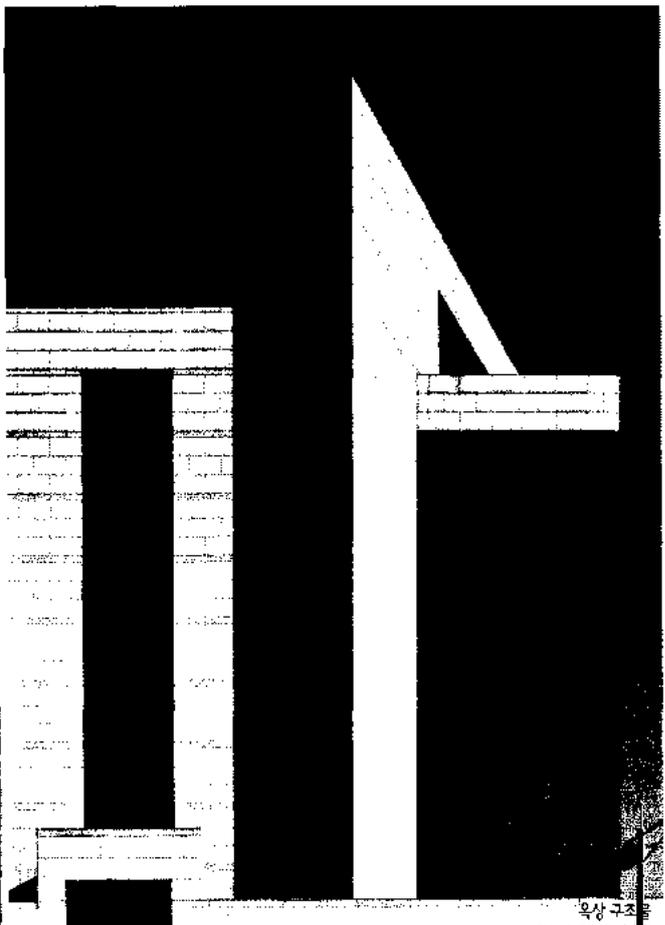
부천대학교 마스터플랜

모든 것 대학은 특성상 운동장을 중심으로 대학시설의 기능이 분포 되어왔다. 이는 대학 공간기능의 우위성보다 층층의 방향성과 오픈공간의 우위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대학 배치는 이미 운동장 중심으로 기존건물이 형성되어 왔으며, 잔여부지에 건축되었다. 외부공간은 야외극장과 휴게 파고라, 상징광장과 같은 옥외 커뮤니티 공간이 잘 정비 되어져 학생들의 축제나 동아리 모임 등의 다양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다. 야외극장은 라틴형으로서 학생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매력적인 어트랙터(Attractor)이다. 비선형과 야외극장 형태는, 속도감과 더불어 학생들의 오픈공간의 유희성과 끊임없는 반복성의 궤도를 유도 하는 골격인 것이다.

이곳은 전체의 공간이며 시간의 부도를 재전하는 학생들의 현재성의 장이다. 가다머가, 축적성은 주관적 성격을 새 (새) 속재의 존재가 경험하는 사건의 수반선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참여의 재일교과가 참가할 때 있다고 한 바 있다. 축적은 시간공간의 이념으로부터 기인하여 참가적 축적은 반복될 때 특성이 있다. 축적의 시간경험은 거행되는 즉 유일무이한 현재이다. 이곳의 오픈공간 중 시간의 희귀와 현재성을 한정하는 공간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종각이다. 종각은 이 학교 발원지를 상징하기 위해 건축하였다. 종각의 정면은 소규모 상징광장을 배치하였고 진입과중에서 중문과 연결되어있다. 형태 디자인의 개념은 사적인 다양성과 학생들의 복합성을 중한 시키는 것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커뮤니티는 많은 다양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대학은 유기적인, 사적인 공조해야만 한다. 이 대학의 전반적인 설계 개념은 이런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Urban College facilities place to play ground. This reason is more important open Space and the direction of entanglement rather than function. Bucheon College site plan is constructed to the focus playground and preexistence facilities is closed to the playground. The open space of outdoor theater, resting space, symbolic plaza accommodate activity of student festival and meeting place. Outdoor theater of oval form is attractor to concentrate interest of student. Oval outdoor theater represent outdoor activity of student and amenity. This space is festival plaza and repeat time. Gadamer said festival concept is participation rather than subjectivity. Festival distinguish the structure of time quality from repetition itself. Experience of time is present of uniqueness. A bell tower mean the origin of college and recurrence of beginning. Bell tower is constructed to symbolize college history. This space is replaced small plaza, and it is connect the main gate.

The mass design concept is layer of multivalence to social demand and student's complexity. Student's multi community constitute many variety So college must coexist with society organized. This college from represent this concep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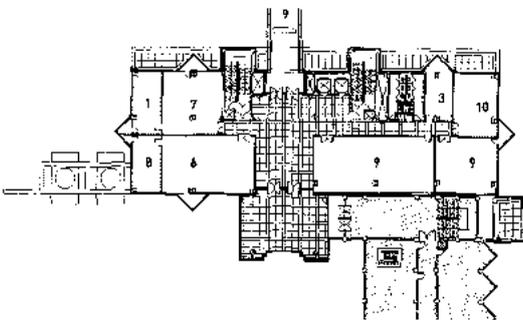
외관

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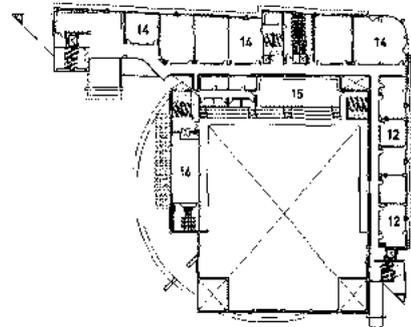
외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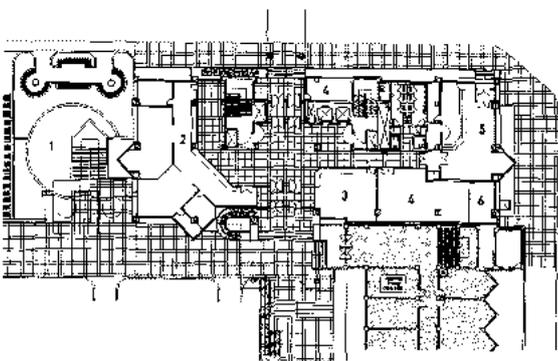
- | | | | |
|-----------|------------|----------|-----------|
| 01_신촌 플라자 | 06_은행출입소 | 09_사회교육원 | 13_과사무실 |
| 02_충암민원실 | 08_양호실 | 10_신발본부 | 14_강의실 |
| 03_영리과 | 07_학생생활연구소 | 11_무대 | 15_체육기자재실 |
| 04_총무부 | 05_신학관 | 12_교수연구실 | |



밀레니엄센터 2~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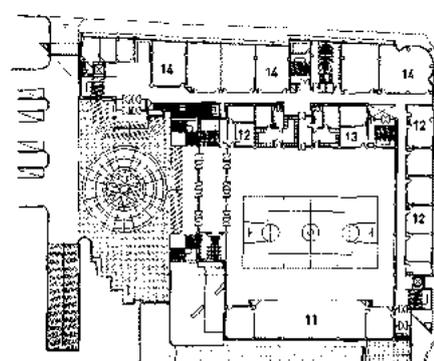


체육관 2~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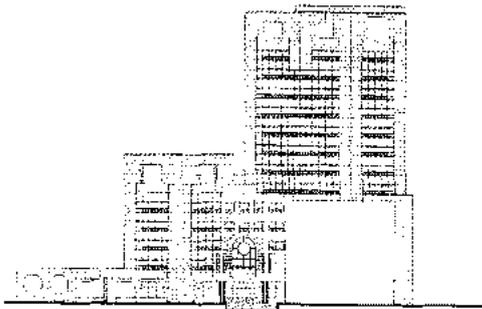
0 2 5 10m

밀레니엄센터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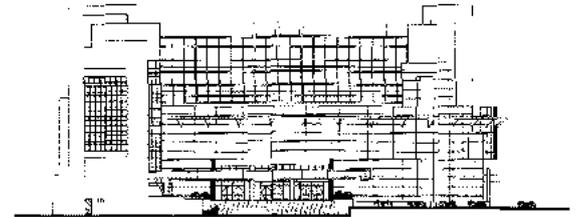


0 2 5 10m

체육관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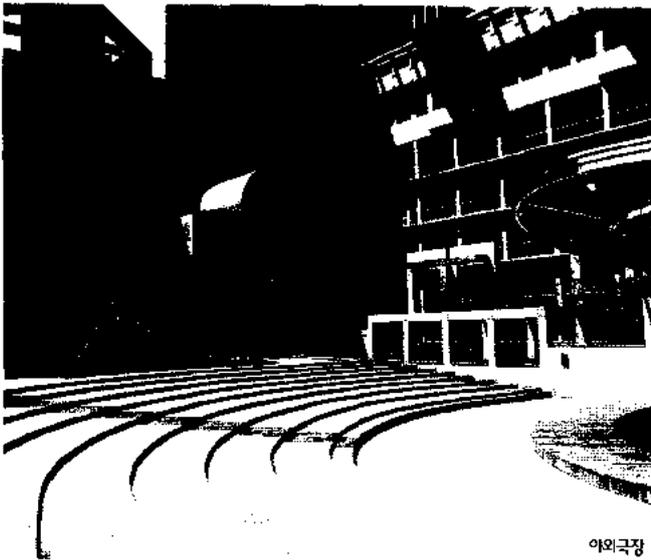


말레니움센터 정면도



0 2 5 10m

체육관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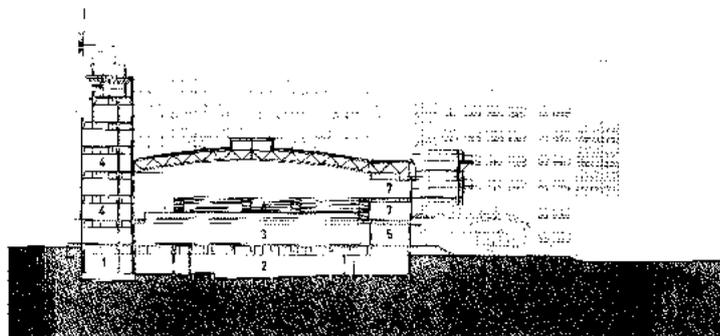


야외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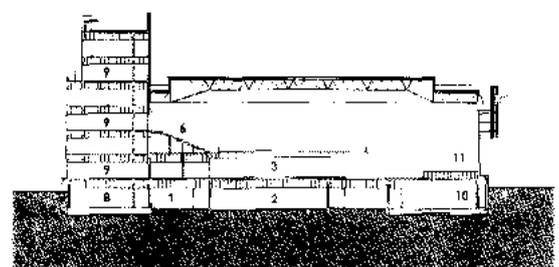
로비홀

- D1_서문실 04_교수연구실 07_강습체육실 10_전기실
- D2_세미나실 05_도비 08_나목적실 11_무대
- D3_경기장 06_관람석 09_강의실



0 2 5 10m

체육관 횡단면도



체육관 종단면도

'J기업' 영빈관 계획 설계

Schematic Design for 'J Company' Reception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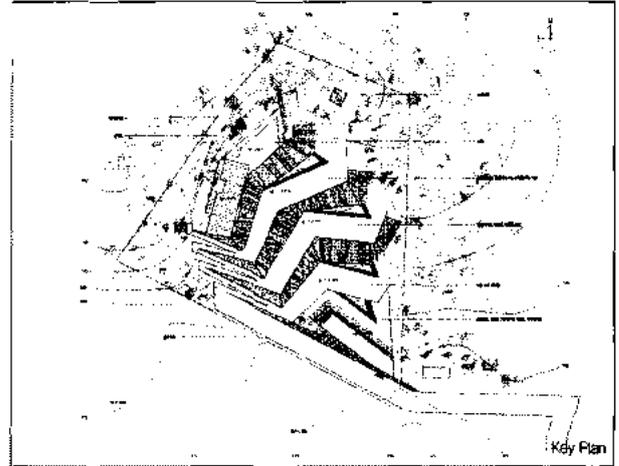


박인수 1 정회원, (주)파크이즈 건축사사무소
by Park, In-soo, KIRA

약력

-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
- 최양재작소 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Location	Gyeonggi-do Gwangju-si
Site Area	5,833.06 smp
Building Area	171.96 smp
Gross Floor Area	2,248.33 smp
Building to Land Ratio	2.95 %
Floor Area Ratio	2.49 %
Structure	R,C+S,C
Building Scope	B2, F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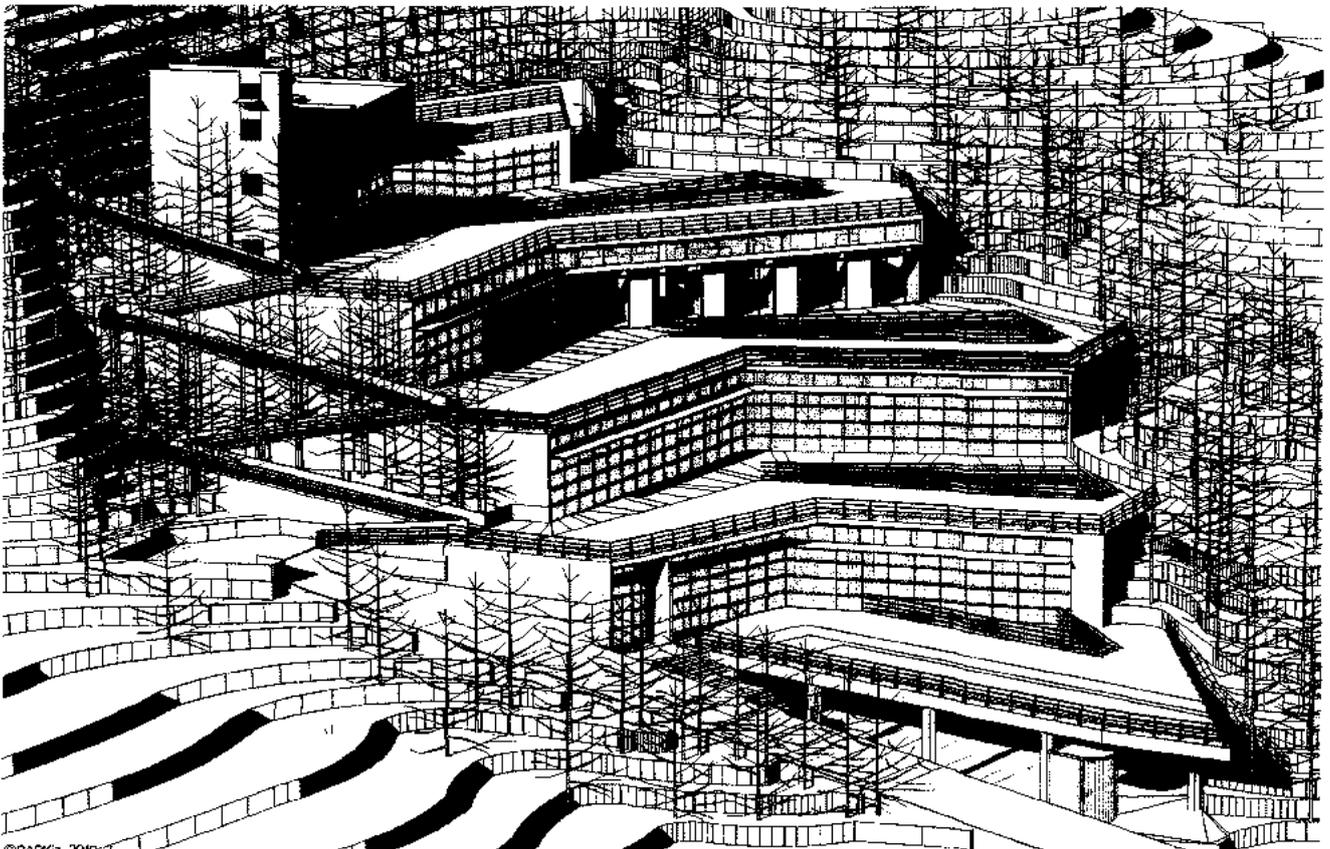


층별면적개요

115.0 레벨	709.65 sqm	주차장, 경비실, 기계실, 전기실
120.0 레벨	358.66 sqm	대회의실, 리셉션
125.0 레벨	434.01 sqm	소회의실, 접무실
130.0 레벨	361.13 sqm	게스트 하우스 4실
135.0 레벨	239.8 sqm	현관, 주방, 식당, 거실
138.5 레벨	145.08 sqm	방, 서재, 화장실 등

면적계 2,248.33 sqm

본 계획안은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J기업'의 영빈관 계획안이다. 사택과 기숙사, 접무실의 기능이 주 기능으로, 기업의 각종 행사를 유치, 진행할 수 있는 건물이다. 본 코너가 실현되지 못한 계획안을 다루는 것이므로, 물론 이 계획안은 실현되지 못했다. 특히 근자에 사무실을 새로 개업한 본인의 형편을 감안한다면, 개인적으로 참으로 아쉬운 안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민간시장에서도 발주와 계약 등에 대한 협회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일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안되길 기대한다.



영빈관의 기획의도

본 계획안은 건축주가 국제적인 마케팅과 연구진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를 세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그간 호텔 등을 이용하며 진행하였던 행사와 손님맞이 등을 회사의 전용공간을 통해 치르고, 이를 통해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의 입장으로선, 관련된 국내외 유수의 연구진을 위한 편안한 숙소와 안락한 공간들이 매우 절실한 형편이었다. 특히 국내외의 바이어들과의 파티, 회사내부의 행사 등을 위한 기업 고유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전략이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공간의 제안이 필수적이었고, 기업의 독특한 문화와 환경을 구현하는 영빈관 건물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사가 제안의 기회를 갖았고, 이후 5차례의 협의를 거쳤으나, 결국 실현되진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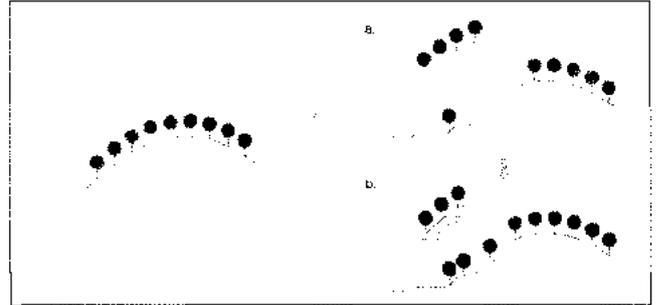
대지

대지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하고 있다. 많은 광주지역이 그러하듯, 본 대지도 마구 파헤쳐져 속살을 드러낸 그런 모습이었다. 사실 경기도도 상당히(건축이 되는 부분만 약 20m 차이) 건축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첫 인상이었지만, 이미 형상변경 허가를 득한 건축할 수 있는 부지였다. 향후 광주시는 송합적인 계획과 개발방식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법규상 되고 안되고의 차원을 넘어야 한다. 대지는 무엇보다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후손으로부터 빌려 쓴다는 생각을 하여야 한다. 어떻게 보면, 가장 주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에 의한 물리적 개발을 뛰어넘는 새로운 개발도구와 법률에 대한 접근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할 형편이다.

대지는 현재 수목등 산림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미 많은 부분을 절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면의 개발된 부지를 제외하곤, 자연과 접하게 된다. 어떻게 접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어떻게 자연스런 모습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초기 현장 방문 시 들었던 생각이었고, 토목분야의 대지 개발 방식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있음을 알려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기존 업무를 토목에서 진행하여, 그 뿌리를 변경할 수 없어 건축 계획을 진행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이 내지에는 특별한 해결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안하게 되었고, 산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자연과 잘 어울리는 계획을 제시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기존의 자연이 가장 큰 가능성을 다시 시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대지및 배치

대지를 잘 이용하고, 건축을 배치하기 위해선, 원지형에 대한 스터디가 매우 절실하였다. 수차례의 모델링을 통해, 지형의 움직임에 파악하게 되었고, 가장 중요한 대지의 흐름을 찾을 수 있었다. 결국, 대지는 가장 낮은 부분을 중심으로 시계의 반대방향으로 높아 올라가는 모습의 지형을 갖고 있었고, 상당히 규칙적으로 레벨이 올라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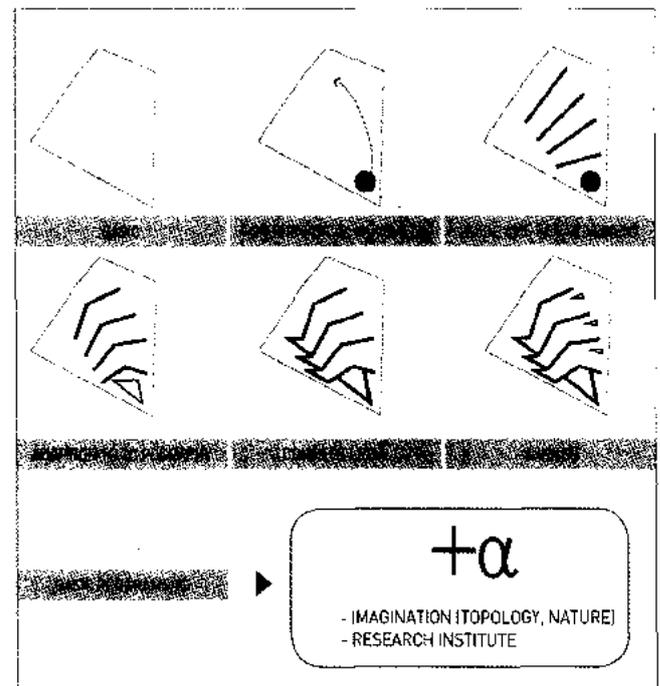
영빈관 대지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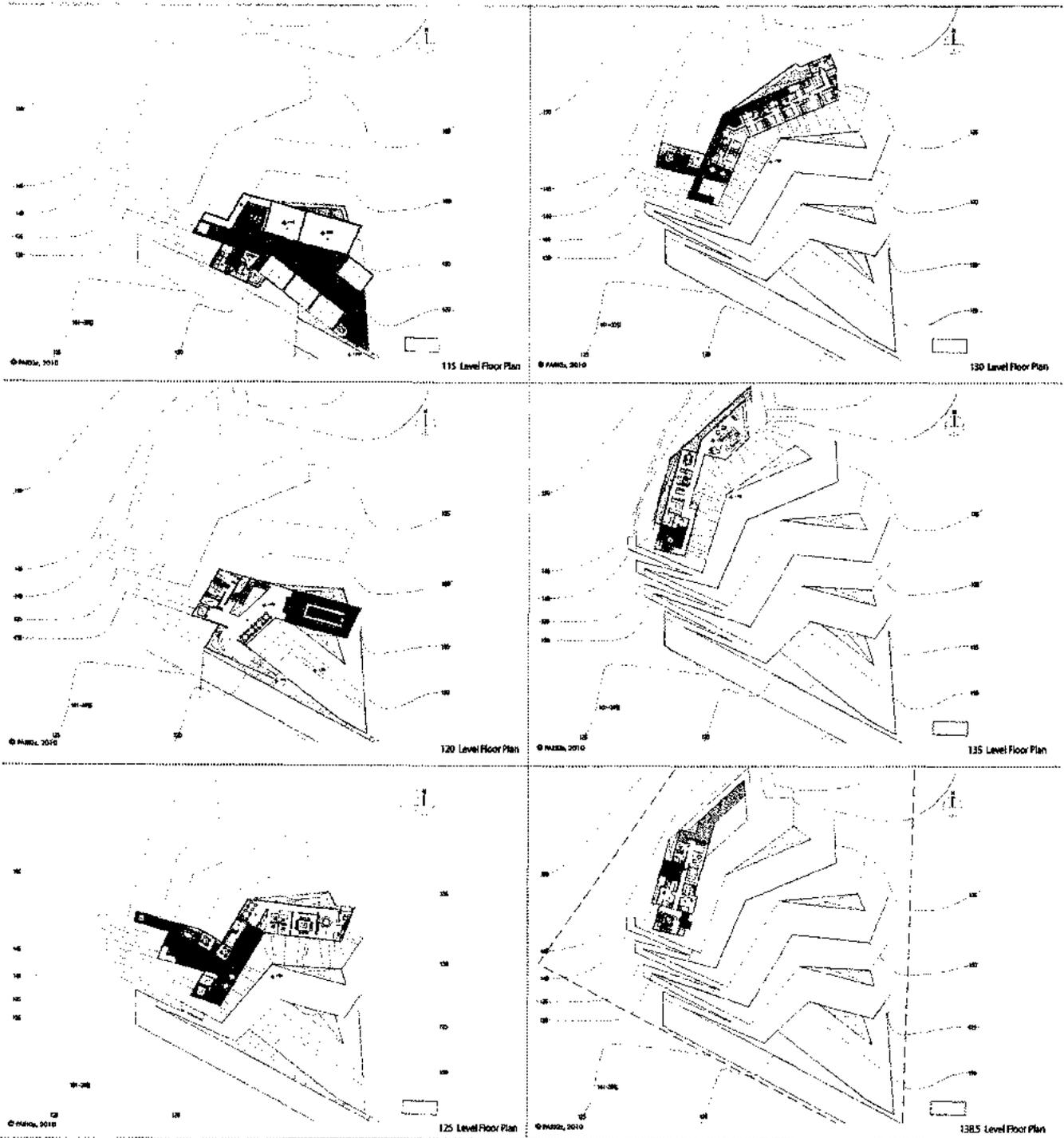
대지위치



현장사진



COMPANY GUEST HOUSE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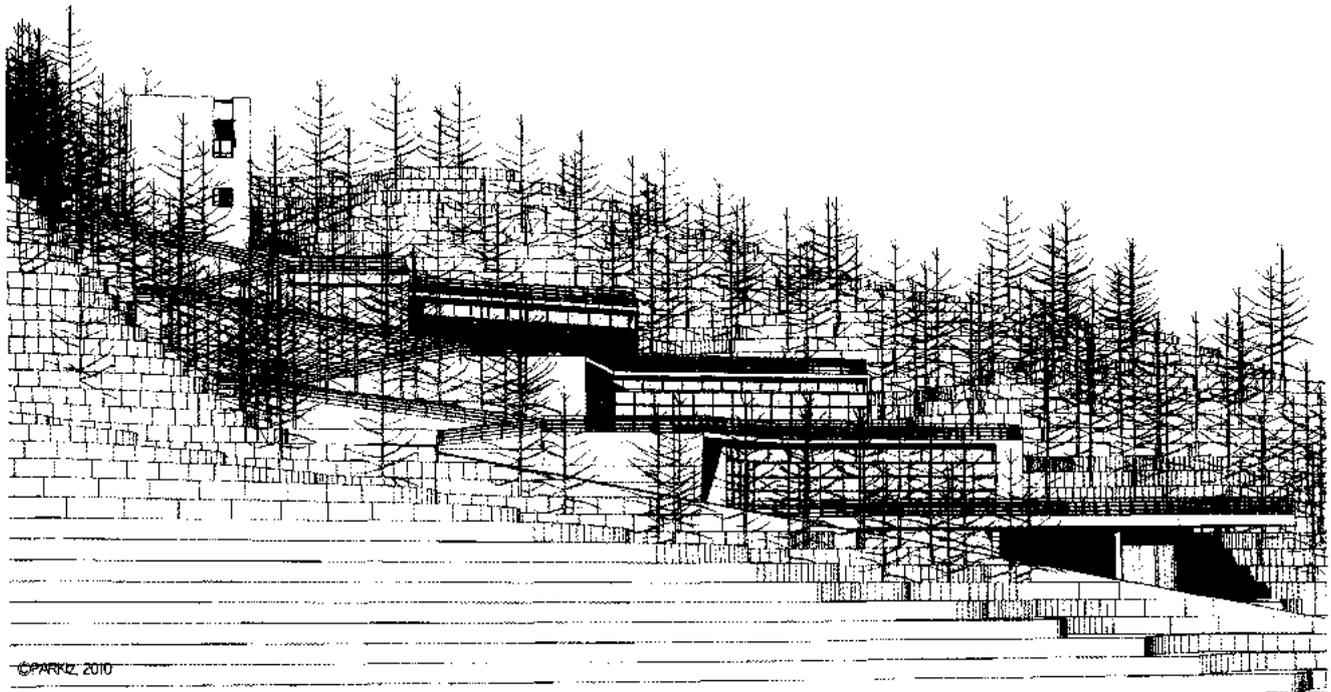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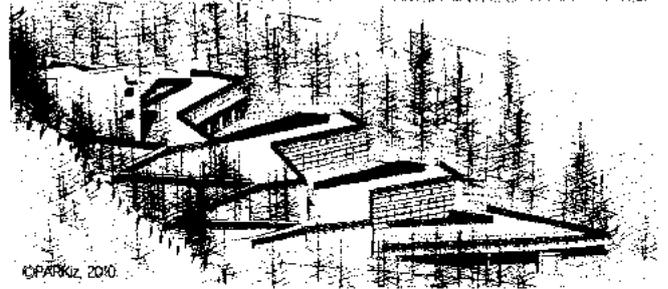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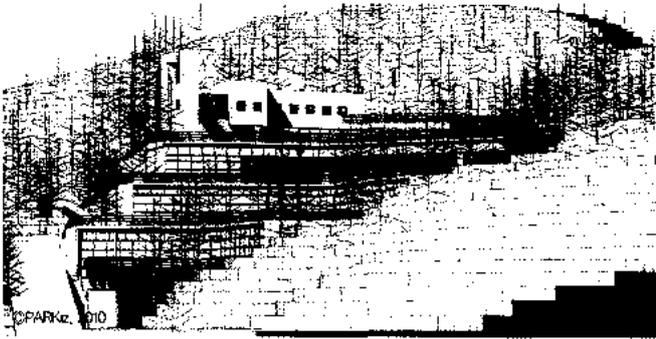
전면에 국도의 방향에 따라 공간이 열리는 것도 본 대지에 매우 중요한 상황으로 인식되었고, 길 건너편의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프라이버시 문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하지만 그 모든 조건에 우선했던 것은 기존 지형을 복원하는 문제였고, 지형에 건축이 들어가는 형상이었다.

언제나 그렇지만 지형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고민하여야 했는데, 지형과 경사도를 이용하여 건물의 선형을 테라스형식으로 구성하고 대지의 경사도상 차량은 가장 하부에 머물도록 하였다. 레벨 조건상 크게 4개의 레벨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각 레벨은 기능과 일치하게 조정하여, 각각 특성 있는 레벨의 사용을 도모하였다.

건축 및 배치선형은 지형의 움직임을 단순한 직선의 조합으로 차환해서 적용하였다. 대지가 입체적으로 돌아 올라가는 형상을 하고 있어 이에 부합하는 'L'형 건물이 돌아 올라가도록 하였다. 각 레벨과 건축의 사이에는 긴 선권을 만들어, 내부 환경과 외부 공간 사용의 경계로 활용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4a' ; 중강가치

본 계획안은 크게 세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방문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부분으로 여기에는 게스트들을 위한 주방과 식당,



로비 등과 함께 세탁 등의 서비스시설이 있다. 각 방은 각자의 테라스를 갖게 되고, 전면에 위치하게 된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침무실로 기업대표의 사무실과 응접실 회의실, 비서실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프로그램은 사택으로, 가장 검소하고, 소박한 규모를 선호하였다. 주택은 인근에서 열릴 프로그램에 따라 프라이빗한 부분과 퍼블릭한 부분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본 계획안을 위한 세 가지 주요 프로그램 외에 대지의 형상과 자연조건 자체를 프로그램화하여, 건축의 프로그램과 서로 엮어 조직화하는 것을 생각하였다. 그래서 대지의 각 레벨이 프로그램화 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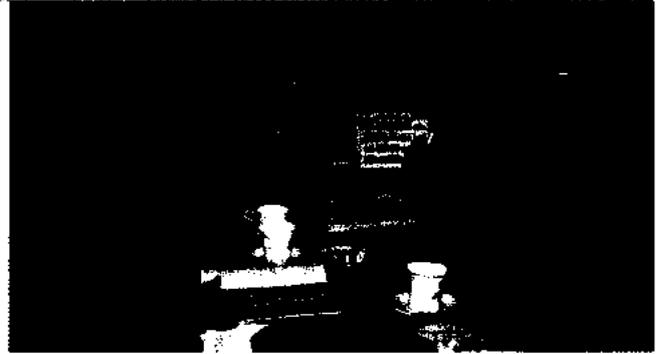
하였다. 즉 맨 아래 부분의 데크는 게스트 하우스 전용 마당으로 만들어 건축과 일체화 되도록 하였고, 다음 높이의 데크는 침무실과 연계하도록 하여, 회사 공적인 행사나 산책등이 이뤄지도록 배려하였고, 그 다음 높이의 데크는 사택과 연계되도록 하여, 개인적인 행사나 가족 중심적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건축의 프로그램에 더해 지형의 잠재적 가치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번 제안했던 디자인의 주요 이슈이다. 건축주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지형의 가능성을 더하는 것으로, 가치에 가치를 더해 새로운 가치를 제안하는 증강가치(augmented value)의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

주택 3제

3 Houses

정승이 건축사 | 유한 건축사사무소



인터뷰 일자 2011년 1월 3일
장 소 유한 건축사사무소 회의실
참 석 자 정승이 건축사

Kyoha House-2P House,
Kyoha House-5K House,
Hee Yeong Jae

정승이 건축사는 일산을 비롯한 경기도 일대를 기반으로 단독주택이라는 특정 용도를 전문으로 하여 설계와 감리는 물론 시공까지 함께하는 건축사였다. 결코 쉽지 않은 건축설계시장에서 지역과 용도라는 특별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자리매김해 나가는 정승이 건축사의 행보는 많은 어려운 건축사들의 특별한 귀감이 될 만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의미 있는 작품을 하길 기대하며, 그의 좋은 생각이 주변의 또 다른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쳐 전체적인 환경과 분위기가 밝아지길 새해를 맞아 기대해본다.

글_유정훈 교수, 박인수 건축사

박인수 :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내용 많이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유정훈 :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에서 설계사무를 하다가 지금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승이 : 네, 서도 건축사지 인터뷰 란을 읽어 보았는데, 상당히 구체적이고 격의 없는 대화가 오가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유 : 먼저 정 건축사님이 스스로 소개하는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 : 저는 경기도 고양시의 일산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십여 년을 계속 일하다보니 소문이 났는지 여러분들이 찾아오시고 해서, 주로 이 지역 또는 경기도 내의 새로운 택지 조성 지역에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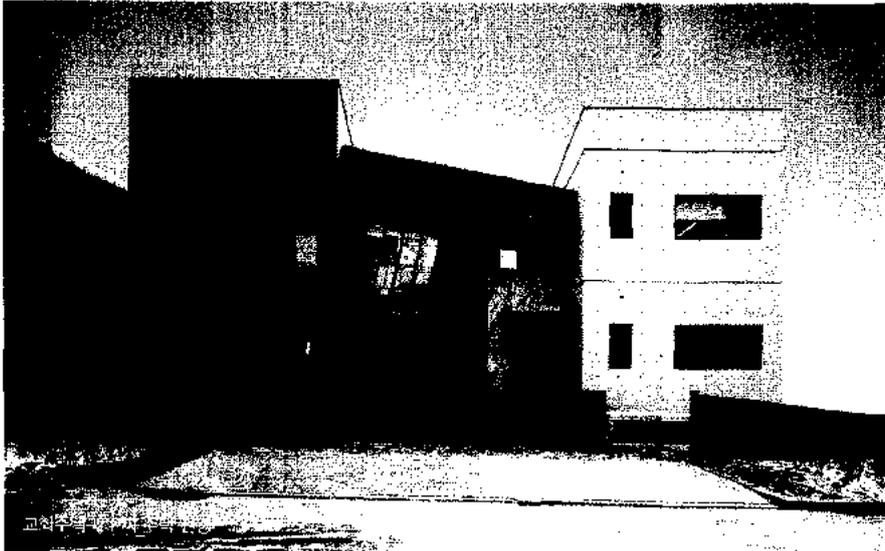
유 : 그게 바로 로컬리티(locality) 아니겠습니까? 지역을 가장 잘 아는 건축사가 설계하고 지어주고 보살펴주는 집이라는 내용일 수 있는데, 혹시 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동료 건축사가 대략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시나요?

정 : 대략 80분 정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 : 그 중에는 소위 관청 앞에서 허가업무 위주의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그 외 여러 가지의 모습과 방식으로 일을 하실 텐데, 가깝게 교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정 : 건축사들을 어떤 식이든 일정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으나, 지속적으로 만나는 분들이 열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의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막상 지역에서 일을 하다보면, 건축주와의 관계보다도 같은 건축사들끼리의 관계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에서는 건축사무소마다 설계비도 노출되고, 그 비용에 따른 결과물도 모두 노출되니, 건축주는 그 부분에 대해 클레임을 하는 수도 있고, 그럴때에 건축사들끼리 서로 '제 살 깎아먹기'의 대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힘든 경우가 됩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지역에서 주택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나 관청은 편이지만 만일 그런 분들이 없다면 저 역시 매우 힘든 상황에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박 : 저희가 이 인터뷰 시리즈 기획을 하게 된 목적이 바로 그런 것과 관련 있음



니다.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중심으로 그 건축물을 설계하신 분, 그리고 그 분이 꾸려가는 사무실, 그리고 그 성과를 주로 다루고 있고, 이는 모든 설계하시는 분들께 공감되는 고충과 사정을 드러내고 서로 공유하게 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여주시 책을 보니¹⁾ 서울산업대학교를 졸업하셨는데요. 건축공부의 과정은 어떠셨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 : 사무실의 이름이 '유한건축'이듯이 저는 유한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무렵, 공고의 인지도가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공고를 육성하는 정책을 펴었고, 당시 대학입학 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공고 졸업생에게 50점의 가산점을 주는 세도가 있었죠. 아버님께서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좋은 학교가 있으니 거기에 가라고 하셨어요. 저의 관심은 사실 전자 쪽이어서 전자과를 가려고 했는데, 그 학교에는 전자과가 없었지요. 아무튼, 건축과에 입학해 3년 동안 공부 했는데, 고교 졸업에 맞추어 그 가산점 제도가 없어졌어요. 4년제 대학 입학이 현실적으로 힘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경원전문대 졸업 후 경험을 쌓고, 건축사면허를 취득한 후에 서른 살이 되어서야 서울산업대에 입학해서 사업을 할 때 동시에 야간과정을 수학하였지요. 이것도 졸업까지는 여러 해가 걸렸습니다.

박 : 보여주시 책자의 프로필에 나온 것과 말씀해주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유한공고 건축과를 나와서 경원전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그리고 쌍용건설에서 해외근무를 하시다가, 내외건축에 입사하셔서 감리업무를 주로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 : 예, 맞습니다. 쌍용건설은 싱가포르의 '선택시티'공사 때 설계팀으로 참가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캐드가 초기단계였던 시절이라 CAD를 비롯한 컴퓨터 프로그램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덕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캐드 공부하니 힘도 많이 들었지요.

유 : 당시에 학교에서 CAD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나요?

정 :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캐드를 쓰지 않아 저 혼자 공부하고 사용하였습니

요. 하지만 바로 싱가포르로 빌령이 날 줄은 전혀 몰랐지요. 그곳에서 건축의 시스템에 대해 아주 많이 배웠지요. 당시 싱가포르에서는 쌍용 건설 브랜드 인지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외출할 때, 쌍용의 유니폼을 입고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심지어 택시기사로부터 대우도 받았지요.

유 : 그렇군요. 제가 몇 번 싱가포르 가보았을 때도 그랬고, 최근에 지어진 건물까지도 그 이름을 신뢰할 만한 큰 인지도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박 : 오늘 성 건축사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재미있고 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상 많은 건축사들의 경력을 볼 때 당연히 잘 할 것 같은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힘들 것 같은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 건축사는 학교를 여럿 옮겨 건축을 배우셨고 또 설계, 시공, 감리를 오가시며 지극히 어떻게 자라온 것을 들으니, 본 인터뷰를 읽는 독자들에게는 크고도 신선한 의미를 던져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몇 년간 일하셨나요?

정 : 그곳에서 2년 근무를 하였는데, 더 이상의 외국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신혼 때었는데 아내와 두 아이를 한국에 두고 올 수 밖에 없었지요. 과장급부터 숙소가 제공되었거든요. 그 당시 쌍용에서 많은 일들이 수주되고 있었습니. 다음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2년 정도 더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아내의 고생을 방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돌아오기로 결심하였고 당시가 책임감리가 시작되어, 각광을 받던 시기였기 때문에 내외건축을 택하여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설계를 하고 싶었고, 또 건축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아무렇

박 : 내외건축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정 : 피주 탄현에 대림 및 현대건설이 약 2500세대 아파트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건축감리를 하였습니다. 직원 13명이 현장에 상주하며 일하였습니다. 내외건축에서는 이 아파트 감리만 하고 퇴직하였습니다. 약 3년 동안 감리업무를 잘 배웠죠.

박 : 그러면 유한 건축사사무소는 언제 치러셨나요?

정 : 그때가 1999년이었고, 차리기 전부터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죠. 정흥에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 재정적으로는 마이너스였지만 아주 재미있게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였고, 그 결과도 괜찮았습니다. 목사님도 상당히 만족하셨지요.

박 : 그럼 이 교회를 처음 프로젝트로 하여 사무실을 여신 것이네요. 그때는 혼자 알하셨나요?

1) 정승이, U-HAUS, 2010, 주역문화사. 책을 보여주며, 유한건축에서 한 주택의 브랜드 이름은 'U+H+U+S'라고 부르기로 했고, 그간 완공한 주택들을 책으로 꾸렸다. 그 내용 중 정승이 건축사의 프로필이 있었다.

정: 그렇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하러 오신다고 해서 제가 늘 기록해두는 노트 중에서 그 무렵의 것을 꺼내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당시 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일을 했는지 일지처럼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노트를 보여주었고, 그 노트에는 일자와 당시 상황과 생각한 내용, 해결책 등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기록은 해마다 한권씩 작성되어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제가 매번의 프로젝트를 어떻게 준비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 놓으니 오래전의 제 생각을 기억해 낼 수 있고 당시 준비하고 생각한 내용들이 지금은 거의 다 이루어져있는 것을 보고 흐뭇하기도 합니다.

박: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IMF 외환위기를 막 지나 다시 경제가 살아나는 때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정: 건축사 면허를 딴 것이 1997년이었는데 당시에 제가 사무실을 개업한다고 하니, 주변에서는 강력하게 만류를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내외건축에서 감리 일을 하며 지냈는데, 1999년 초에 일본인이 쓴 책을 읽게 되었고 그 책에서 "사업은 어려운 때 시작해야 한다."는 글을 보고 마음에 담게 되었어요. 또 고양시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무실들을 조사를 해보았더니 깜짝 놀랄만한 것을 알았어요. 제가 예전에 고양시에서 일할 때에 일했던 사무실이 이제는 한두 명만으로 일하거나, 또는 사무실도 없고 휴대전화만 있는 사무실로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개업을 하면, 기존 사무실들과 차이가 나지 않는 규모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의 대부분이 심어 명의 직원이 일하던 사무실들이었던데요.

박: 지금껏 약 11년 정도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 또는 좋았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정: 물론 어려울 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잘 지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죠. 그래도 생각해 보면 가장 어려웠던 시기는 제가 서른아홉 살 될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사무실이 안정 되고나니, 저의 건축에 대한 관점과 생각에 대한 고민이 생기더군요. 계속 이런식으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님 좀 더 도약을 할 것이냐? 성격 탓인지 지금도 만족하기 보다는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아무튼 서른아홉 무렵에는 계속해서 부동산 업자들의 일을 처리해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지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들과 함께 일하다 보니, 결과물들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장사'들의 일을 배제하고, 실수요자의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의도하는 바가 완성되지 못하는 일을 계속 할 순 없었어요. 업체에서 대지를 구입해서 저를 찾아오는데, 이런 경우 대개 최소의 비용을 들여 짓고 바로 파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 일단 좀 번듯하게 시공하였고, 속은 아주 품질이 나빴지요. 시공사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잘 될 것이 조금씩 부족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하며, 결과물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업자' 고객(주택사업자 고객)을 모두 포기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어려움을 무릅쓰고서 최종적 품질을 위해 저희가 피할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유: 이해가 됩니다. 참 큰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설계자가 시공을 한다는 것이 시공품질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발생할 것 같은데요. 무한책임이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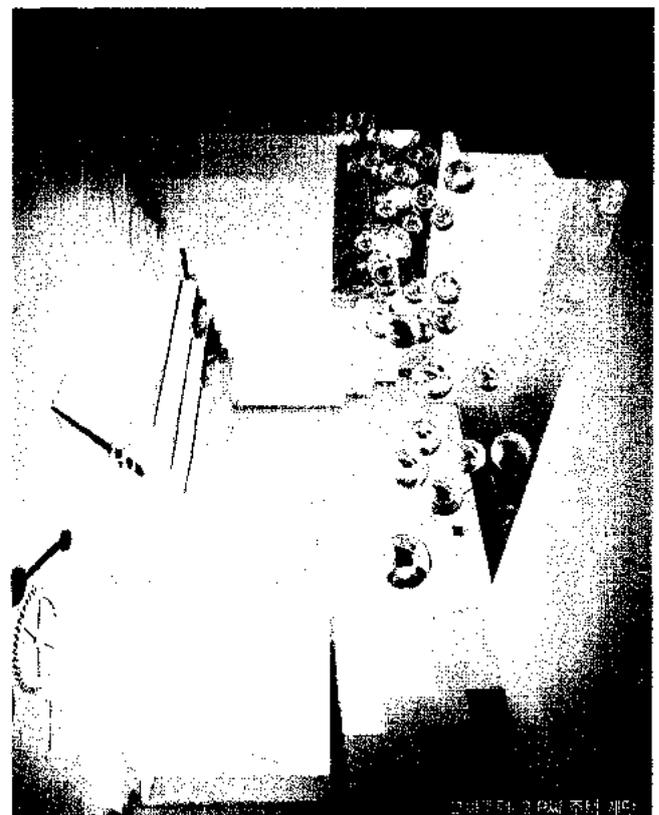
정: 네. 저희가 설계 맡은 모든 건물을 다 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를 진행하면서, 건축주를 잘 살펴봅니다. 저희와 함께 끝까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인지, 또는 아닌지를 보고, 저희가 내놓은 안이 그에 부합되어 잘 되었는지도 살펴봅니다. 그런 후에 자신 있으면, 저희에게 시공을 맡겨달라고 제안을 하죠. 그렇게 되면 설계납품의 질과 양도 차별이 나게 됩니다. 대부분 많은 고객들이 이미 지어진 건물을 보고 오시게 되는데, 우리의 디자인과 시공품질을 만들어 내는데 한 10년이 걸린 것입니다. 이제는 저희의 디자인과 시공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보시는 책에서 80%가 저희가 직접 시공한 것입니다. 최근 국내 건축사들이 대략 10%만 일이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일이 많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또 건설사에서는 직접 설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그래서 저는 동료 건축사들에게 기다리지 말고 역션을 취하라는 말을 하고 삼습니다. 설계만으로 끝내지 말고 이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가능한 한 모두 했으면 합니다. 건축주가 원하는 것은 설계만도 아니고, 시공만도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결과물인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물을 잘 만드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결과물에 대한 품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냐에 관한 것입니다. 세계에서 아무리 관심을 갖고 일을 해도 그 품질을 유지할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유: 간혹 건축사들이 "난 설계 완료했으니,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며 건물의 잘못된 점을 시공자의 잘못으로 돌리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박: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혹시 하자 문제나, 애프터서비스 문제는 없으셨나요?

정: 물론 처음에는 문제가 좀 있었지요. 사실 지금도 10년 전에 지어진 건물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처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처리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그간의 경험을 통해 하자가 발생하는 원인을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설계 시부터 하자를 없애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에 품질



2010년 11월 25일, 서울, 서울

을 높이는 것에 100% 집중되어 있고, 하자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신속한 사후처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사무실에서 매우 중요하고 큰 부분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면, 설계만으로 사무실의 운영과 유지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시공 또는 다른 영역으로 업역을 넓히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주변 분들을 볼 때 시도조차 안하던가, 시도하다가도 하자 등의 문제로 100분 중에서, 한 분 정도만 성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시면, 앞으로 큰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 유한 건축사사무소의 현 직원은 몇 명인가요?

정 : 저까지 8명입니다. 제가 있고, 또 다른 건축사가 있고, 예비시험 합격자도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의 직원들은 모두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것이 저희 사무실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유 : 그럼 그 동안 신입사원을 선발하지 않으신 건가요?

정 : 사실 저희가 좀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인원을 충당한다고 다섯 명을 뽑았었는데, 뜻하지 않은 경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시 여덟 명으로 원상복귀가 된 것인데, 왜 그런 과정이 있었나 하면, 작년에 이미 금년도에 일할 물량이 확보되어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인원이 필요했었죠. 사실 한두 명씩 체계적으로 인원이 늘어났어야 하는데, 갑자기 많은 인원을 한 번에 늘리다 보니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회사의 기존 문화에 대하여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불편했던 것인데, 그래서 사무실은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현재 인원이 가장 최적의 상태가 아닌가 합니다.

박 :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경력직이었나 봅니다.

정 : 신입사원도 있긴 했지만, 경력직이 더 많았지요. 그런 과정을 통해 저희 회사의 나이갈 길은 더욱 선명해진 것 같습니다. 최고의 단독주택을 지향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없는 조건은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 개인에게 주어서, 업무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 업무량을 견뎌낼 수 있는 분들이 이 아니면, 저희랑 같이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박 : 지금 일하시는 주택들의 공사비가 대개 얼마 정도인가요?

정 : 한 3억에서 7억 원대 정도입니다.

박 : 이것을 저희가 흔히 하는 면적대비로 환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 : 이게 시간에 따라 다르고, 경우에 따라 많이 다른데요. 최근 시세를 통해서 보면 단독주택은 평당 700만 원 정도, 상가건물은 평당 450만 원 정도, 그리고 예전에 한 다가구는 평당 350만 원 정도에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이 경기도건축문화상을 받았지요.

박 : 시공하실 때, 설계비를 별도로 받으시나요?

정 : 네, 설계비는 무조건 별도로 합니다.

박 : 설계비는 어느 정도 책정하시는지 말씀해주신다면?

정 : 설계비는 이 지역을 감안할 때, 1,500만원에서 3,500만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금액이 이 지역의 다른 사무실들과 비교할 때, 거의 두 배가 되는 금액입니다. 이 지역에서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유 : 한 건물에 1,500만원도 두 배란 말씀인가요?

정 :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판교에 주택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2,500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교하에서 3,5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 시세는 1,000만원이 채 안 되는 실정이고, 그게 현실입니다.

유 : 작가주의를 표방하는 분들이 설계비 5,000만원 혹은 그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없네요.

정 : 저희가 요번에 경기건축문화상 받은 주택의 옆집이 유명한 K건축사가 설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건축사들끼리는 잘 몰라요. 그 동네에선 말이 돌게 됩니다. 누구는 엄마에 어떻게 일을 했고, 누구는 또 어떻게더라, 뭐 이런 식으로 건축주들이 정보를 교환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희만 모르고 일반인들은 다 아는 것이 되죠. 단지 설계비 뿐 아니라, 설계상황, 시공 시 문제점 등 다양한 정보들이 교류되게 됩니다. 아러다보니 참 재미있는 현상이 생기는데, 동네마다 적정 설계비가 달라요. 좀 산다하는 동네는 한 3,500만 원 정도, 그리고 좀 못한 동네는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설계비가 건축주들 사이에서 정해져요. 그래서 전 매번 이에 대해 많은 말씀을 드리지요. 좋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여 제대로 된 도면을 얻으실 수 있고, 그래야 또 시공의 결과를 보장할 수 있게 된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많은 건축주들의 생각이 굳이 설계비용이 아니더라도 유명 건축사랑 일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교를 보면, 당시 지역별로 건축사들이 지정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주수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건축주들과 이야기 해 보면, 가상 큰 고민이 그 결과물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 : 예를 들어, 집을 짓었는데 비가 샌다. 뭐 이런 건가요?

정 : 그렇기도 하고요, 살게 떼부터 시작되는 평면작업에서도, 그 지체에서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상당히 경험이 쌓여서, 건축주의 성향과 좋아하는 부분들을 빨리 알아차릴 수 있지요. 그리고 건축주는 건물의 결과물에 대해 섬 없이 계속하여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이 어떻게 나올까?" 이런 생각이죠. 건축주들이 건축에 참여하려고 하는 생각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참여해서 이 주택을 만들어 내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 : 그럼 지금까지 하신 일들도 대개 건축주가 참여한 것인가요?

정 :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은 건축주의 참여 없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 판교 프로젝트 3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체적으로 1인, 2인, 3인... 계속 만들면서 진전을 시키고, 그리고 건축주와 미팅을 통해 진전된 인사를 설명하고, 결정하지요. 그리고 실시설계 이전까지 계속 건축주와 미팅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다용도실의 설치물들에 대한 것 등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또 인테리어 재료와 공간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단독주택은 팔리면 별다른 일이 커집니다.

박 : 이렇게 일하실 수 있는 것이 시공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일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게 일하고서 공사를 안 하게 되어도 괜찮으실까요?

정 : 그런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설계만 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시공견적을 동일한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 둘째, 건축주께서 우리의 좋은 건축물을 만드실 생각이 있다면, 아주 세밀한 곳까지 건드려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모든 부분을 코디네이팅 하는 것입니다.

유 :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물론 누구라도 시공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것 보다 품질이 낮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자신감 아닐까 하는데요.

정 :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찾아오시는 건축주께서는 시공을 먼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설계를 먼저 시작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 중에 건축주의 성향을 파악한 후 시공에 대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반대로 시공을 의뢰하는 건축주의 제안을 정중히 사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감리는 합니다. 기본적인 품질을 위해서죠. 시공을 하려면, 건축주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제가 혼자 독학을 많이 했습니다. 또 뉴욕, 파리 등 외국의 도시를 혼자 걸어 다니면서 계속 공부 했습니다. 뒷골목 위주로 만나는 상황을 보고, 즐기고, 또 사는 모습을 보고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조사하고 가기 보다는 무조건 가서 돌아다니면서 발견하는 방법으로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유 : 그러다 보면, 놓치는 내용도 좀 있지 않을까요?

정 : 놓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박 : 단독주택을 주로 다루시는데 대한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 : 제가 주택을 전문적으로 하게 된 것의 이유가, 싱가포르에 근무할 때, 근처의 주택단지들을 많이 둘러보았고 거기서 느낀 것이, 결국 아파트는 서민형 주택이란 것입니다. 그 곳에서 부유하다고 하면, 단독주택에 벤치가 한 두 대정도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계속 단독주택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고, 머지않아 단독주택에 대한 시장과 수요가 생길 것이라고 주목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그러한 시장과 수요가 생겨나기 시작했지요. 저는 건축주분을 만날 때마다 국내의 아파트는 왜곡된 현상이니 단독주택에서 사셔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단독주택에서 사실 것을 계속하여 권유 하였습니다. 작년부터는 그 증가세가 뚜렷해, 이제는 때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 :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지의 한계 때문에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중간단계인 타운하우스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더욱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신지요?

정 :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택지개발지구 내의 단독주택용 필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요. 지금부터는 택지개발지구, 즉 동네 이아길 좀 할까 합니다. 저는 사실상, 동네를 지키는 시명감 같은 것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시는 책에서 나타낸 것 보다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동일한 택지지구내에 이뤄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마을을 만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지요. 이 마을에서 저희 유한이 건물이 마음에 드시면, 저희에게 오셔서 일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알아서 하실 것이고, 그런 거죠. 제가 교하에 주택들을 할 때, 목조주택으로 할까? 콘크리트로 할까? 아님 어떤 식으로 할까? 이런 큰 고민을 하였습니다. 즉 택지개발지구의 전체에 부합되는 것이 무엇일지를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택지개발지구에 설계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주택과 다르거든요. 여기에 지어지는 것은 도시형 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시형주택의 특성을 잘 이해하여야 하고, 주택들이 밀집하게 되니, 각 단독 주택에서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주요 과제가 됩니다. 그런데 건축주들은 대부분 넓은 마당을 선호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도시형 주택에서 매우 어려운 설계 기준이 됩니다. 도시형 주택은 한 집을 만들면서 옆집과 관계성을 갖게 하는 등, 풍광 좋은 곳에 단독주택 하나 짓는 전원주택과는 매우 다른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이 설계한 건축이 저의 건축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동네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매우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힘은 좀 들지만.

박 : 단독주택을 하시면서, 마을을 만들어 낸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그런데 택지지구 내에서 설계하신 건물들의 위치가 어떤 의도에 의해 선정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각각의 단독주택들이 마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신지요? 그리고 마을을 만든다는 게 건축의 재료와 스타일을 통일했다고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당부분이 도시계획에서 이미 마을을 만드는 계획의 틀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유 : 그리고 국내에서 진행된 도시계획 중 이런 택지개발지구의 계획이 소위 '땅 나누기'로 대단히 평면적인 작업이니, 애초에 마을 만드는 내용은 매우 빈약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단독주택을 각 필지마다 지으면서 궁극적인 마을의 성격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박 : 어렵겠지요. 사실 동네나 마을은 대지 면적



도심주택 (도시형 주택) 건축

을 자르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한 단독주택들로도 형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교하의 정 건축사가 설계하신 주택들을 보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일종의 유한 건축의 카탈로그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마을의 개념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평장동이나 삼청동을 봐도, 아니 국내의 모든 단독주택 필지를 봐도 모두 제 각각 짓고 있거든요. 땅 주인 마음대로 짓는 것이죠. 물론 도시계획이 시도되면서, 몇몇의 가이드라인들이 도입되긴 하지만 결국 건축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산행되죠. 하지만 그 외생에도 마을의 느낌을 만들고, 마을로 불리우게 하는 것은 그 스케일에서 비롯되며, 도시 지형적 공간감이 매우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정 건축사님이 담담하시는 마을은 기존 도시계획의 내용에 맞추어가는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정: 이 부분이 제가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큰 숙제이기도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초기에 단독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을 보면서 "이게 한 7년 후면 예쁜 마을이 만들어 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몇 채 지어지고 나면 그 꿈은 사라지게 되거든요. 결국 통속적인 적벽늘로 집장사기 짓는 집들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망가지는 택지를 바라보면서, 택지 즉, 마을 하나 망가지는 게 매우 쉽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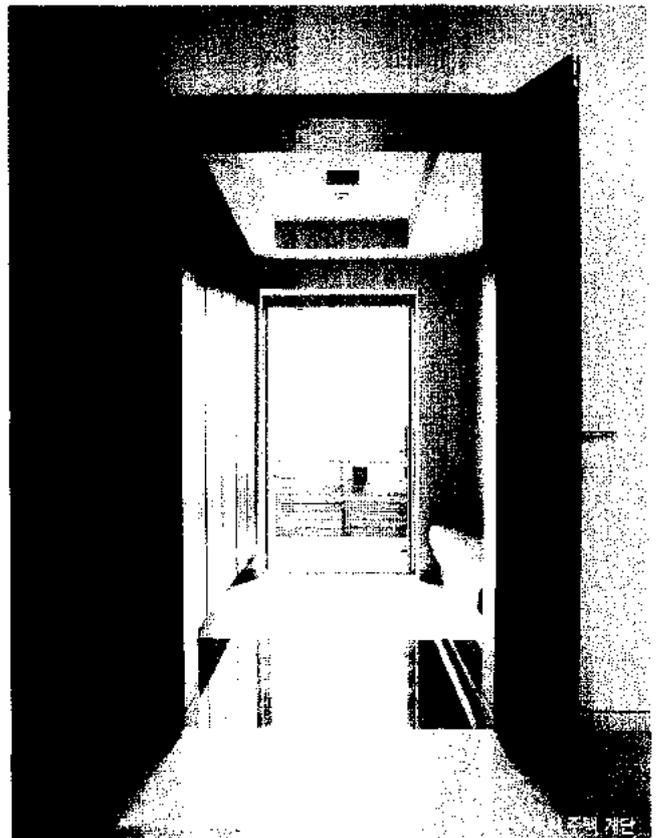
유: 마을에 관심이 계속 있으시니, 혹시 택지공급 방식과 그 정책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 않으셨는지요? 이렇게 보면 지금 말씀해주신 택지가 망가지는 것에 대해 현재 건축에서는 무어라 해결책을 내놓을 수 없는 부분 아닐까요? 그래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과 보다 구체적인 도시 구성의 내용을 건축계에서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뭔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정: 저는 이런 내용에 대해, 건축주의 의 단념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헌부를 만나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의 생각에 동조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을 만나서 동조를 얻고 이런 과정이었죠. 이렇게 되면, 저와 일하시는 분들과 제가 함께 이 마을에 의미 있는 주택들을 지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자신들의 주택을 통해, 소위 진장사 진은 짓지 않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문을 하나 만들어도 아주 의미 있는 것으로, 정성이 들어가서 집들이 지어져야 마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시는 청라지구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정상껏 짓는 건축에 대한 생각이 이루어, 위해 대단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청라지구에 보면 한 필지에 3가구를 들어야 하는데, 0 결 다 쓰게서 5가구에서 10가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경제자유구역인데, 이런 불법 건축물의 온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건축주들을 설득했고, 건축주 여섯 분이 생각을 바꾸셔서 법에 맞는 3가구 주택을 짓는 것으로 변경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저의 택지개발지구 노하우를 모두 설명해 드렸죠.

박: 그럼 그 건축주 분들이 경제자유구역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취하지 않았단 말씀이네요, 참 벗어난 건축주들이네요.

정: 의미 있는 끈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실은 한 분의 인연을 통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분이, 처음 저를 만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쪼개서 집을 짓고 있는데 니만 이렇게 적법하게 하는 것이 맞아? 라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전 그래서 '괜찮습니다.' 라고 하였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박: 그런데 그 건축주 분이 건축을 통해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건 아니가요?



정: 아닙니다. 그 분은 자신도 그곳에서 사시려고 계획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기구의 수를 늘리면 월세가 더 들어온다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래서서는 불법 건축물을 단물지 말고, 디자인이 좋은 건축물로 만드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어 진행되니 동네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이 보입니다. "어, 불법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시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점점 좋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박: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 사실 이런 기구 수에 대한 불법 건축을 문제는 청라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 입니다. 사실 저는 건축주와 싸우는 것보다 저희 동료 건축사들과 싸우는 것이 더 힘들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사실 이, 문제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었던 분들이 그럴 기회를 잃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저로서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 이런 상황을 느꼈다면, 싸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구 수에 따른 불법을 안 하면서, 디자인으로 승부하고, 건축주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으로 건축주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유: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교수로 하고 있는 제게도 그런 일이 의뢰가 됩니다. 아파트 개발된 땅의 바로 앞 부지인데, 투룸, 쓰리 룸으로 준공 후 원룸으로 쪼개서 임대료를 받아 수익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제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며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정: 그래서 저는 중산지구니 이런 택지지구가 지꾸 망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자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 건축주께 오히려 대시를 바꾸시라고 권유하는 적도

있고, 그래서 대지를 바꾸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 사실 사무실 운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두었지만, 사무실초기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고민한 적이 있었지만 불법적인 상황을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건축을 하면서 가장 싫었다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니 많은 건축주가 떨어져 나가기도 했지만, 반대로 실수요자 중심의 건축주를 더 만나게 된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사무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죠.

박 : 직원이 여덟 분이라고 하셨는데, 조직이나 직책은 어떻게 되시나요?

정 : 제가 있고, 건축사 1명, 부장 1명, 현장소장 1명, 현장직원 2명, 그리고 과장 1명, 실장 1명 이렇게 있어서 사무실 내부에 5명, 현장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가장 큰 장점은 인원수나 조직이라기보다는 서로 오랜 기간 함께 일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모두 10년 이상 같이 일했기 때문에, 호흡이 잘 맞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업무는 제가 스케치를 통해서 업무를 시작하면, 직원들이 1:1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PM격의 직원도 있어서 두세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에 비하여 상당히 섬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디자인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모두가 공유하여 상호간 업무를 하는 데 참조하고 있습니다.

유 : 실사도면을 외주처리 하는 경우도 있었나요?

정 : 전혀 없습니다. 어려워도 우리가 직접 처리합니다.

박 : 좋습니다. 혹시 창업부터 지금까지 회사에 은인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셨을까요?

정 : 은인이라면, 산업대에 계시던 김희열 교수인데, 작년에 작고 하셨습니다. 제가 길동하고 고민하던 내용이 그 분을 통해 많이 해소 되었습니다. 김희열 교수는 새벽 두시까지 수업을 하며 열정적으로 강의하였고, 건축외부에서 건축이 참조하여야 할 만한 사항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편이었고, 건축이 완성되기 위해 어떤 내용이 건축에 영향을 주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매우 재미있는 수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번대 교수로 재직하는 박세영 실장도 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일했던 건축사사무소의 실장으로 잠깐 같이 일했던 분인데 제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건축을 참 진지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또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늘 함께 해주며 힘이 되어주는 백형덕 건축사도 고마운 지인입니다.

유 : 수업이 1:1 방식이었나요? 아님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었나요?

정 : 두 가지 다 있었어요. 김 교수님을 통해 배운 내용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도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분은 현상설계를 주력으로 하였고, 저는 주택을 주로 하니, 교수님은 연하정에 현상 당선안을 프린트해서 보내주셨고, 저는 주택을 달력에 프린트해서 보내드려곤 했습니다.

유 : 산업대에서는 2년을 다니신 거죠? 그러니까 만년에 시간이 매우 즐거우셨겠습니까?

정 : 네 그렇습니다. 전 학교도 그렇지만, 여행도 많이 다녔고, 또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보통 요즈음에 열리는 세미나를 가면 학생들이 더 많은데, 저는 배우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나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더 많은 건축사들이 이런 것에 참여했으면 합니다. 저 자신에게는 "젊어서 배우지 못해 지금 많이 배우는 거야."라고 다짐합니다. 사실 저희 주변엔 좋은 세미나가 많고 배우게 참 많거든요. 건축사협회의 세미나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많이 보고 느껴야 됩니다.

유 : 사무실에서 직원들에게 따로 교육하는 것이 있나요?

정 : 전 직원들에게 건축은 '좀 힘들게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가서 만져보고, 느껴보고 하여야 건축이 자신의 것이 된다.'고 이야기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좀 열심히 하라 바라는 것이죠.

박 : 그럼 주택3채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든 하우스라는 것이죠? 건축사시에는 교하주택2-P시 주택으로 소개되었던 작품입니다.

정 : 사실 저희가 U-HAUS라는 책을 만들면서 각 건물에 대해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건물의 배치도를 보면 도로가 북측에 있었고, 남측으로 1m 정도 단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설계 하면서 가장 큰 걱정은 '마당을 어디에 둘까?'였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은 도로변에 두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도로 쪽은 막고 남측으로 마당을 만들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매스 간에 반 층 차이를 두어 선릉을 만들고 외부공간이 서로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빛이 선릉과 외부 마당, 그래서 식당과 주방 등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이 매우 중요했지요. 도면상 표현은 1층과 반 층 지하가 함께 표현되는 것이 반 층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 선릉은 지하를 지하같이 만들지 않게 됩니다. 매우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지는 내부는 멀티 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층에는 거의 방으로 구성되어서 일반적인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것이 아 대지의 남측대지도 저희가 설계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북방향의 두 대지를 다 설계할 수 있었죠. 그래서 남측 건물은 북측으로 창을 만들지 않고, 경사지붕을 두어서 북측집의 채광에 문제가 없도록 했어요.

유 : 남측 집이 북측 집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네요.



배치계획에 있어 빛으로 조망된 집

정 : 하지만 그것이 결국 남측 집의 개념을 만들게 되었고, 그 이름을 '내심정'이라 짓게 되었습니다. 내심정의 뒤편은 창이 없지만, 중정을 통해 모든 채광과 환기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가든 하우스는 제가 의도한 것처럼, 건축의 각 부분에 태양이 잘 다다르고 있고, 건축주가 특별히 선택한 소나무도 위치를 잘 잡게 되어, 모두 행복해 하는 건축이 되었습니다.

유 : 앞뒷집 건축주가 서로 아는 분들이시지요?

정 :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입니다. 지금 보면 이 가든 하우스는 내심정과 함께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을 요약하자면, 통합해서 가는 방법과 채 나눔을 통해 사이 공간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유 : 인테리어도 하셨나요?

정 : 건축수가 가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가구를 직접 건축주가 만들었습니다.

박 : 그리고 뷰 하우스도 이어서 말씀 해주시죠. 뷰 하우스는 건축사에게 보면 교하주택5-K씨 주택으로 게재되어 있군요. 이 건물은 가든 하우스와는 많이 다르네요.

정 : 네 완전히 다르지요. 처음에 이 건물은 대지가 동서방향으로 길고 남북방향으로 좁다는 것과 남측으로 전망이 열려있고, 신학산이란 좋은 경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실과 주방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남향으로 배치하기엔 대지가 허락치 않고 그렇게 하지 않거나 또 환경상 좋지 않을 수 있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절을 해서 3개의 마당이란 개념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대부분 택지지구 대지의 특징은 도로가 전면에 꼭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넓은 마당을 원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도로에서 내부의 생활이 모두 보이게 되고, 내부도 모두 커튼을 치고 생활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 넓은 마당이라 할 수도 없어요. 결국 마당을 분리하고, 거실 앞과 안방 전면에는 가벽을 설치해 가릴 땐 가리고, 열 땐 여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죠. 수방부분에 있는 마당, 주차장이지만, 거실 앞에 있는 마당, 그리고 안방 앞에 있는 마당의 세 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박 : 이어서 혁명재도 설명해 주세요.

정 : 설명하면 각각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택지지구 대지에는 주차불허공간이 있는데요, 건축주가 오셔서 미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서 계획안을 진행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저희는 일을 진행 하였고요, 대지에 대한 느낌은 "흘러가는 느낌을 가지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이트를 보시면 대지의 경사 치는 1M 정도 나게 되고, 옆 부분에는 다시 건축을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가운데 사랑채를 필로티로 띄워서 마당이 벽까지 연속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수영장을 필요로 하여 그 끝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스킵플로이 방식으로 만들어진 사랑채는 아래쪽의 마당을 수영장까지 연속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주택 본체와 일성부분 이격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킵플로이는 옥상까지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옥상엔 정원을 두었습니다.

거실에서 보면, 필로티를 통해 수영장 너머 벽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부입니다. 그리고 계단을 깎아서 지하까지 채광이 잘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에는 지하에 선콘 같은 공간이 두 곳이 있게 되어, 지하 같지 않은 지하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채 밑 정자에는 평상을 두고 여름철에 모든 행사를 할 수 있고 이는 또 수영장과 연계될 수 있으며, 비도 안 맞고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외부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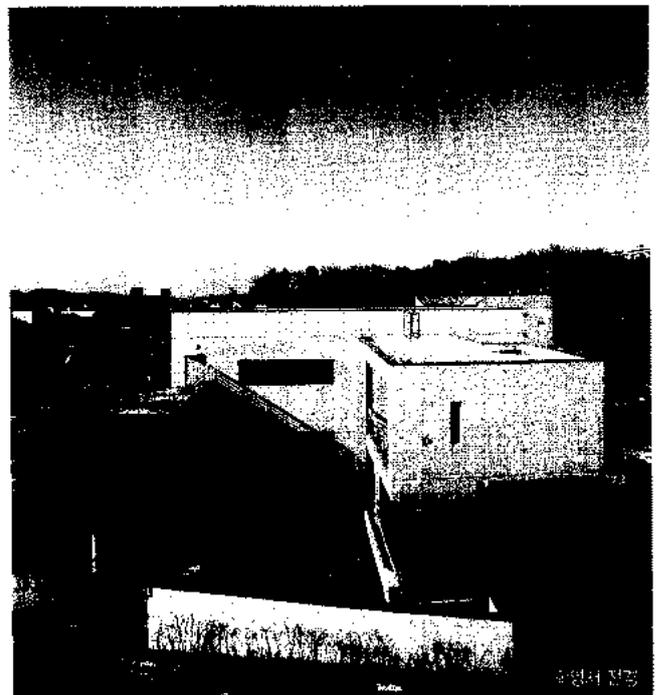
공사 시점에서 이 사랑채의 높이를 어느 정도 선에서 맞출 것이냐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앉았을 때를 기준으로 안락하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택지지구에서 주택은 옆집과의 관계, 앞집과의 관계 등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합니다. 저 생각에는 미리 수면에 어떤 주택이 오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방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 : 그런데 수영장은 옆집이 지어지면, 안이 좀 보일 수도 있겠네요.

정 : 그것은 향후 집이 지어 졌을 때, 가릴 수 있는 목재로 처리가 가능 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는 사실 주변에 여러 건축을 하다 보니, 재료가 너무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비슷한 색상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 경계하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건축주분과는 설계를 진행하다가 완전히 다시 시작한 경우도 있습니다. 막상 건축주는 노출콘크리트를 원했는데, 생각해보니 타운하우스처럼, 집합건축 느낌이 있었습니. 그래서 석재로 마음을 변경하였습니다.

박 : 혹시 사용하시는 재료에 대한 정 건축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정 : 전 개인적으로 안도(Ando)의 콘크리트를 좋아합니다. 일본에 가서 보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잘 보고 또 연구하여, 저희가 이 동네에 처음 노출콘크리트를 쓰고 모던한 건축물을 지어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노출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 요즘 반대로, 다른 재료인 정교벽돌, 고밀도 목재패널, 동판 등을 사용하고 있고, 매스를 좀 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출은 가격 등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료에 대해 제가 어떤 색깔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공간의 열리고 닫힘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긴 동선을 선호하는 편인데, 건축주를 설득하는 게 어렵습니다. 건축주들은 넓은 정원에 대한 생각이 모두 절대적 가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혁명재 전경

서 저는 '단한 마당도 사용에 따라서 넓게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건축주들은 단한었다면, 답답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뷰 하우스에서 건축주들이 마당 앞에 또 거실 앞에 가벽이 있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어지고 나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건물 구경을 오니 그 가벽이 큰 역할을 한다고 매우 좋아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프라이버시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설계단계에선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박: 단독주택 이외에 공공발주 현상설계라면, 혹은 다른 용도의 건축은 하지 않으시는 편이신가요?

정: 우선 저희 사무실에서 1년에 하나 정도의 현상설계는 해보도록 하자고 실행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단독주택만 계속하면 타성에 젖을 수 있고, 제한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런 틀을 깨는 데는 현상설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요즘 현상설계가 많진 않아요. 투자개념으로 합니다. 저희가 당선한 것은 화장 도서관인데, 현재 지어져서 잘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것들은 모두 2등을 한 안들입니다. 저는 관내에서 발주되는 현상설계에는 꼭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많이 참여하시는데, 관내의 건축사무소도 관내의 건축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 그런데 정 건축사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 소위 '관내' 혹은 '지역'의 개념이 매우 투철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정: 제가 처음 오픈 했을 때, 고양시에서 했는데, 고양시가 제게는 제2의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2년째 살고 있습니다. 애정이 많다는 뜻이죠.

박: 네. 정 건축사가 바로 지역적 특성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건축사 분들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지역을 이야기 할 때는 마켓의 범위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이 지역은 나의 시장이다. 시장을 수호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정 건축사는 보다 포괄적인 생각과 개념으로 지역을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 단독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도시가 좋아지려면 고층빌딩으로만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전 그런 건물에 관심도 없고요, 왜 관심이 없냐면, 건축의 본질적인 이야기에 앞서 경제성을 위주로 한 건축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택은 무한한 건축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건축주를 설득 못하는 것 뿐이지 훨씬 많은 건축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여기에 빠져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전 고양시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에 사람들이 왜 가냐고 했을 때, 전 건축을 보러 간다고 생각합니다. 뭐 도시에는 음식, 문화 등 이런 것이 있지만, 제가 다른 도시를 가는 이유가 건축을 보러 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도사에서 건축을 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고양시에 제기하는 주택들이 문화의 일부분처럼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힘들고 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박: 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정 건축사의 말씀을 듣다보면, 하시고 싶은 일은 사실 도시적 관점에서 마을이나 타운, 또 그 경관 등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각 필지별 건축으로 실현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생각을 건축레벨에서 좀 도시나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에 관심을 갖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일은 계속 하시고, 또 이런 지구단위계획 같은 곳에 참여해서, 필지를 나누거나, 마을의 구상을 하는 일을 해보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지구단위계획 같은 업무에 참여해서 구체적인 마을을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 택지의 구획을 할 때, 또 많은 가능성이 날아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정 건축사 같이 택지와 단독주택에 경험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업무를 진행한다면, 훨씬 좋은 지구단위계획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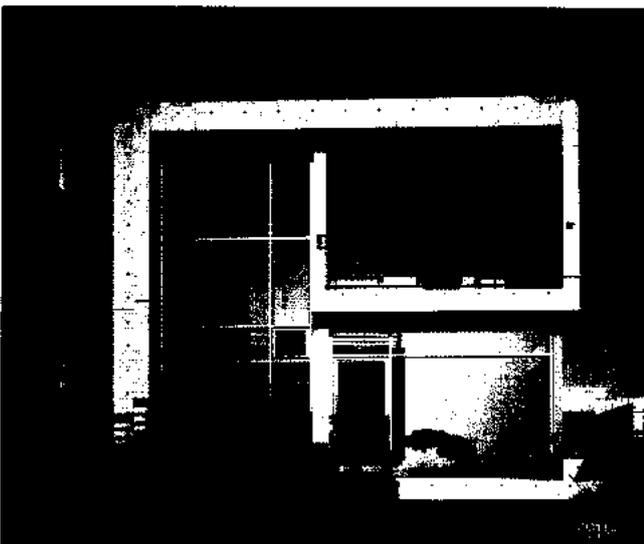
박: 사실 택지개발지구내에 필지 구성을 보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 많은 제한 사항이 있어, 도시의 자율성을 없애는가 하면, 그 반대로 많은 자율성을 주어 마을이 중구난방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도시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전부 건축에 넘겨버리는 느낌도 있거든요.

유: 예를 들면, 넓은 땅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시는 일을 직접 참여하실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진짜 마을을 만드는 것이죠.

정: 그렇지만, 저는 현재 택지를 중심으로 한 단독주택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일산 뉴타운의 MP를 해 보았는데, 지구단위계획이란 것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축의 이상과 도시는 좀 다르다는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그때 내용이 일산의 구도심부터 여러 지역을 재개발하는 것이었는데, 사실 건축, 도시의 내용보다는 '사업성'이란 것이 매우 크게 작용했어요. 하지만 제가 거기서 분명히 알게 된 것은 도시계획 상에 여러 문제가 있더라도 건축사가 도시계획상에 포함되어 업무를 한다면, 어디에나 '빌바오'의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공사에서 머리를 쓰고, 정성을 다해 도시를 만들어 놓아도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한 순간에 도시를 망쳐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문화적도가 낮으면, 결국 그 수준에 맞추어지게 된다고 결론을 얻었습니다.

박: 혹시 관련해서 기타 말씀하실 내용은 없으신가요?

정: 지금 감리비를 제대로 받고 업무를 하지라는 움직임이 있는데, 저는 어려워니까 뭐 할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에 대한 대가가 정확하지 않다면, 시장은 그 업무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리



비를 받으려 한다면, 그에 대한 성과와 이익에 대해 구체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 제가 설계한 건물에 입주하신 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재겐 행복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유: 뭘 큰 욕심 또는 무리수 없이, 작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대단히 겸손하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인터뷰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박: 네. 사실 오늘 인터뷰가 제가 진행하는 마지막 인터뷰가 될 텐데요, 지금까지 10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 모두 나름대로의 속고와 고민을 통해 진지한 하결을 하시고 계셨어요. 특히 오늘 정승이 건축사를 보느, 제가 더 분발해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미 있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감사하기도 합니다. 또 정 건축사의 '주체사상'이 매우 강하신 것 같고요, 스스로 혼자 해결하시려 노력하고 이루시는 것을 보니, 매우 건강하고 밝고 좋습니다. 물론 제가 평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은 동시대의 건축사들이 귀찮으로 상을 반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유: 사실 지금하시는 일을 보면, 은퇴 없이 계속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그야말로 연필을 놀랄 수만 있다면 계속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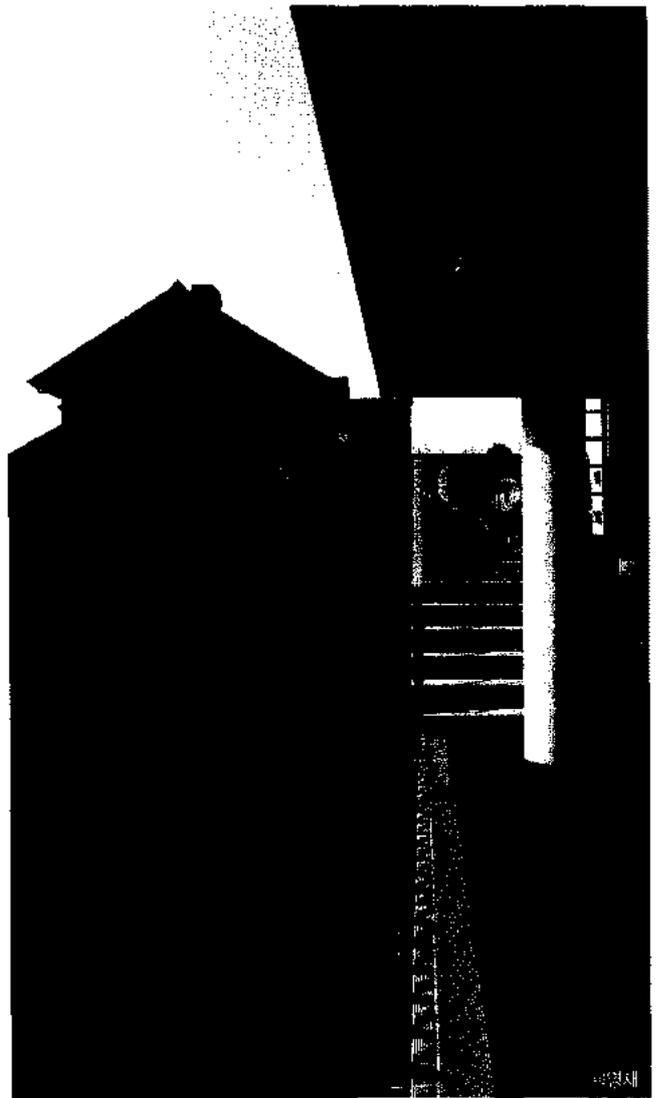
정: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직원들과 이야기 할 때, 우리는 20년간 먹고 살 것은 만들어 냈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 의미는 주택에 대한 선호가 더욱더 다양하게 증대 될 것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 중입니다.

박: 네. 혹시 저희가 인터뷰 내용 중에 간과한 것이 있거나, 보충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정: 저는 건축에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소명으로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용기를 갖고 계속 밀어나가는 에너지는 건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뉴사실 건축은 저희들만의 이야기가 되어선 곤란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믿는 건축주들은 건축에 대한 지식도 많고, 건축에 대한 꿈도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건축에 식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건축사를 좀 비하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습 아픈 일입니다. 사실 저 경우엔 전 단독주택에 대한 열망이 있고, 이것을 저 혼자 하는 것 보다, 저와 유사한 뜻을 갖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건축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자 열심히 하다보면, 저희에게도 좋은 날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지역 관내에 속해서 일하시는 건축사 분들도 모두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보다는 좀 더 잘하라는 노력과 열심을 낸다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도 제 지리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건축계에서 사기 이름의 노상을 찍을 때, 대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 그것은 너무 기본적인 바람은 아닐까요?

정: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모 지역은 30%만 자신의 업무에 직접 날 인하고 70%는 대여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젠 순 분제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건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건축을 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이 되고 있거든요. 협회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너무 움츠러지 말고, 다양한 분야로 계속 확장하면 펼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유: 다른 사람들과 학생들도 정 건축사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시고, U-HAUS도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

Surviving today as an architect



인 의 식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1955년 11월 5일 대전 생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졸업(1978년)

최동규 편찬위원장

공중에 떠있는 집시주택, 물속의 주택 등의 어차구니없는 상상을 어린 시절부터 하였다

중학교에 입학한 후에 우연히 백과사전에서 아이소네텍트로 된 주택평면과 투시도를 보게 되었고, 이 평면을 입체로 상상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나의 집'에 대한 꿈을 키워왔다. 지나고 보니 이것이 건축을 하게 된 첫 동기가 된 것 같다.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는 건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더군다나 큰형님이 건축과에 진학해 건축서적을 처음 접하게 되면서 다양한 주제로 '나의 집'에 대한 평면계획과 스케치를 하게 됐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독일문화원에서 독일 건축을 소개하는 순회전시회가 대전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자전거를 타고 먼 거리까지 가서 구경하였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 스킵플로어 주택을 혼자 생각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전시회를 통해 '우물 안 개구리' 입을 깨달았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진학을 위해 도서관에서 합숙하던 때도 교과서 대신 주택설계를 하다가 지도 선생님한테 여러 번 호된 질책을 받은 기억도 난다.

그 당시 전문지식이 없이 오직 순수한 상상만으로 계획하였던 주택들로 '공중에 떠있는 집시주택', '옥상에 사과나무와 굴뚝이 있는 분화구 모양의 지하주택', '물속의 주택', '술을 유리로 덮고 타잔처럼 살던 주택' 등 현실성은 없지만 재미있는 작품이었다.

인 의 식 건축사와 가깝게 지내게 된 것은 몇 년이 안 된다.

매사에 열심이고, 이번 원고청탁도 남에게 나타나는 것이 부끄럽다고 극구 사양하는 것을 겨우 인터뷰하였다. 지금은 건축경기가 극히 불투명하여 예전에 설계 좀 한다고 이름이 나있는 건축사들에게도 힘든 시간이다.

인 의 식 건축사의 경우 건축설계에 올인 하는 것은 물론 인테리어, 조경, 조명 등 전문영역으로 치부하여 남에게 외주 주어 버리는 것을 본인이 다하려고 죽을 힘을 다한다.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토탈 디자인 개념에서 그러는 것이다. 부수적으로 경제적인 이득도 있을 것이다.

중세시대의 거장들이 미술, 조각, 건축까지 망라하여 관여한 것을 생각하면 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장인정신이 오늘 그가 불경기도 오뎅이 같이 잘 버티나가는 중추다. 그리고 그의 대표작이 된 '덕평휴게소'에 가면 그의 노력이 잘 드러나 있다.

건축과 수업만으로 부족해 공간이라는 동아리에 가입하여 건축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다

대학교에 진학한 후 지겨운 수학, 영어 없이 건축만 할 수 있다는 해방감으로 즐거운 나날이 이어졌다. 토요일이면 아침에 청계천변 중고서점을 찾아가 저녁때까지 건축 관련서적을 찾아다녔고, 새로운 책을 찾으면 값진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이 행복하였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에 포만감을 느낄 수가 없어서 공간(SPACE)이라는 건축동아리에 가입하여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 동안 합숙훈련을 통해 함께 공부하고,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동료 혹은 선배들과 열띤 토론을 하며 지낸 경험은 나와 다른 동료의 생각과 전개방식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계기였다.

아버지가 공무원이셨고 형님과 누나가 대학에 다녀야하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 없이는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상황이고, 시간 나는 대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건축 써클 활동에 몰입하면서 보낸 대학시절은 남들과 같은 낭만과 추억은 없지만 나름대로 보람된 시간을 보낸 것 같다.

1학년말에 중등 붐으로 수많은 건설회사가 와서 홍보하며 미리 입사예약을 받던 시절이었고, 대부분 건축과 학생들은 건설회사에 입사하였다.

그 당시 설계와 시공의 급여는 2배정도 차이가 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설계에 대한 가치를 돈과 비교할 수는 없었다.

대학졸업 후 공간에 실습생으로 취직하고, 김수근 선생님 앞에서 난생처음 담배를 피우다

1978년 12월에 김남현 선생의 도움으로 공간에 실습생으로 취직하게 되었다. 모든 것들이 새롭고, 그동안 생각했던 건축과 다른 차원의 건축을 경험하는, 짧은 기간이지만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한 시절이었다. 처음 김수근 선생님과 면담할 때에 첫 질문이 “담배를 피울 줄 아는가?”였고, “건축을 제대로 하려면 모든 것을 경험해 봐야 돼. 이 자리에서 피와.” 였다.

건강에 해로우니 담배는 피지 말라는 아버지 말씀을 어기고 태어나서 처음 피운 담배가 되었다. 지금도 많이 즐거울 때나 우울할 때는 가끔 피게 된다.

짧은 공간생활을 뒤로하고 공병 기술장교로 군에 입대하다

짧은 기간이지만 성북동 주택을 계획할 기회가 주어졌고, 계약이 되는 모습을 보고 공간을 나와 공병 기술장교로 군에 입대했다.

훈련시절에 야간 보초를 설 때 달을 보면서 건축에 대한 하나의 주제로 몰입하면 달이 점점커지면서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뒤바뀌는 경험을 하였고, 그때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경험할 수 있어 다음번 보초까지 대신 선 기억도 있었다.

훈련을 마치고 김해의 육군공병학교에 교관으로 차출돼 선물건축과 제도를 가르치며 보낸 3년은 여유롭게 시간을 갖고 건축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금요일 저녁에 부산 시면 서점까지 들러 일주일동안 읽을 책을 사가지고 들어와 외박을 나가 텅 빈 BOQ에서 혼자 책을 읽던 기억도 난다. 그때 읽었던 책들이 제대 후 지금까지 읽었던 책보다 많았던 것 같다. 그 당시 건축개념과 관련된 책 이외에 건축과 연계된 도시계획, 인테리어, 조정, 구조, 소방, 전기, 설비 등 건물과 관련 있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어 요즈음까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군제대 후 결혼하고 선배가 운영하는 사무소에 입사하다

1982년 3월 제대 후 바로 결혼식을 올리고 선배가 운영하는 건축사 사무소인 건축공간에 입사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1984년에 건축사자격을 취득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이곳에서 한양대 유희준 교수님과 관련된 여러 개의 성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추후 인테리어 설계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1987년 사무소가 어려워지고 급여가 여러 달 밀리면서 회사를 돕는 차원에서 독립하였다

1987년 사무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급여가 여러 달 밀리면서 연봉이 제일 높은 내가 나가 독립하는 것이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하여, 1987년 말에 퇴사하고 사무소를 개업하였다. 충분한 준비 없이 독립한 관계로 실제 수주에 대한 계획도 없었고 사무실의 환경도 최악이었다. 처음 청담동에 있는 조그만 중국식당의 구석을 합판

으로 막아 2평 공간에 제도판 2개를 설치하고 시작한 사무실은 2명의 직원이 앉을 자리가 없어 고대로 작업을 하고 건축주를 만날 때는 주변의 커피숍에서 미팅을 하였다. 점심시간을 중국식당의 밀가루 반죽을 치는 소리에 합판이 흔들리고 날리는 밀가루가 합판사이로 들어와 작업을 할 수 없었다. 지금생각하면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한 당시 상황은 너무 무모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초기에 유희준 교수님이 주신 일들은 규모가 작지만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주었고, 주어진 프로젝트는 건축주가 감동을 느낄 만큼 최선을 다하였다.

1988년 연면적 3만평 규모의 대형프로젝트를 맡아 최선을 다하였고, 이후에 5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회사로 성장했다

1988년 여름 그 당시 3만평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소개받아 최선을 다하여 진행하였더니 건축주가 사무소 규모를 알면서도 “내 건물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은 나 다음에 자네라고 생각하네”라는 말과 함께 실제 계약을 해주었다. 그 후에 같은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세모가 분열하듯이 계속 수주되고 ‘현대증권 울산사옥’, ‘대교사옥’ 등 대규모 사옥의 설계경기에 당선되면서 어느새 직원이 50명이 넘는 중규모 사무소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규모가 커지면서 초기의 마음과 달리 프로젝트에 대한 관여도가 떨어졌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건축주와 협의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러 다닌 기억으로만 채워졌다.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던 건축에 대한 꿈은 먼 이야기가 되어갔다.

IMF가 닥치면서 많은 일들이 중단되고 그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는 빛이 남게 되었다

IMF가 닥치면서 그 많던 일들이 중단되었고, 그 당시 자금력이 있던 유명한 의류회사 사옥 설계도 ‘건축공사비모 같은 규모의 건물을 땅과 함께 살 수 있다’라는 말과 함께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

그 많던 인원과 그동안 사옥을 지으려고 모아놓았던 사금이 IMF 터널을 통과하면서 사라졌고 IMF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는 15명의 직원과 얼마의 빛을 시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남들과 같이 직원을 초기에 정리하고 변신하지 못한 대기가 처절하였다.

나에게 IMF는 그동안 잊어버렸던 어렸을 때의 꿈이 되살리는 기회가 되었고 그동안 디스크로 사무소에 관여 못하였던 장명희 건축사가 관여하면서 사무소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 장 건축사는 개념을 정립하고 나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풀이 완성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1년 ‘대전대 둔산 한방병원’과 ‘금강휴게소’를 시작으로 초기의 마음과 열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금강휴게소, 덕평휴게소로 한국건축문화대상과 건축가협회상을 받다

100회 이상의 미팅을 가지며 정성을 쏟은 금강휴게소는 2004년 건축문화대상 우수상과 한국건축가협회상을 받으며 사무소를 오픈한 이후 처음으로 건축 작품상을 받았으며, 그 후 이것이 씨앗이 되어 연결

된 제포빌딩은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상을 수상하였고, 덕평휴게소는 2007년 한국건축문화대상의 대상과 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하였다.

두 개의 휴게소의 완성으로 후속 일들이 수주되다

또한 이들과 연계된 프로젝트가 계속 수주되어 현재는 휴게소와 클럽하우스, 병원, 주택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사무소가 크나 작으나 다 문제점은 있다. 그러나 과거의 많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작품의 질보다 수금문제, 직원문제, 협력회사 코드문제 등 건축외적인 문제가 주계였으며, 작품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었고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섬세한 감성표현이 힘들었다.

현재 회사 규모는 10명 정도의 직원으로 재미있게 운영하고 있다

현재 회사의 규모는 10명 정도이며, 부담 없이 작품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적정인원이라 판단하고 앞으로도 인원을 충원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 사무소의 강점은 인테리어, 조경, 조명 디자인까지 다 관여하여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회사의 강점은 주로 건축 뿐 아니라 인테리어, 조경, 조명 디자인까지 관여하여 프로젝트의 가치를 높이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여러 악기 소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듯이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이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은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고 설계비를 아이템 별로 분리하여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다른 분야의 능력 있는 자라도 한 공간에서 다른 개념의 목소리를 내면 음악의 소음처럼 바뀌어버린다. 그러므로 소규모 사무소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대규모 사무소에서 느낄 수 없는 미세한 감성공간까지 표현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우리 사무소의 약점은 받은 설계비보다 더 많은 일을 해주어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건축주가 요구하는 이상으로 업무를 진행하여 손익계산이 잘 안 된다는 점이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것이 큰 단점이다.

공사는 손대었다가 적자보고 손을 떼었다

초기에 설계 외에 인테리어 공사도 추가해볼 생각도 해보았다.

실제로 공사를 해보니 적당히 마무리하여야할 부분을 설계자의 욕심으로 메우다보니 적자를 볼 수밖에 없었으며, 그 이후로 인테리어 공사는 하지 않았다.

현재 하고 있는 대로 꾸준히 설계를 할 수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처음부터 욕심이 크지 않아서 현재의 삶대로 꾸준히 좋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으면 가장 행복 할 것 같다. 작은 일이라도 건축주와 함께 최선을 다하여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초심을 잃지 말자고 다짐한다. 가끔 미술작가 작품을 보면 배고팠던 산인시절에는 순수한 혼을 쏟아 작품에 힘이 느껴지지만, 세월이 갈수록 세련미가 보이지만 자신보다 타인을 의식하여 화려하게 변신하는 모습을 본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지만 나는 순수한 혼으로 작품에 몰입할 수 있는 삶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편이고 장 건축사는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편인데, 상호보완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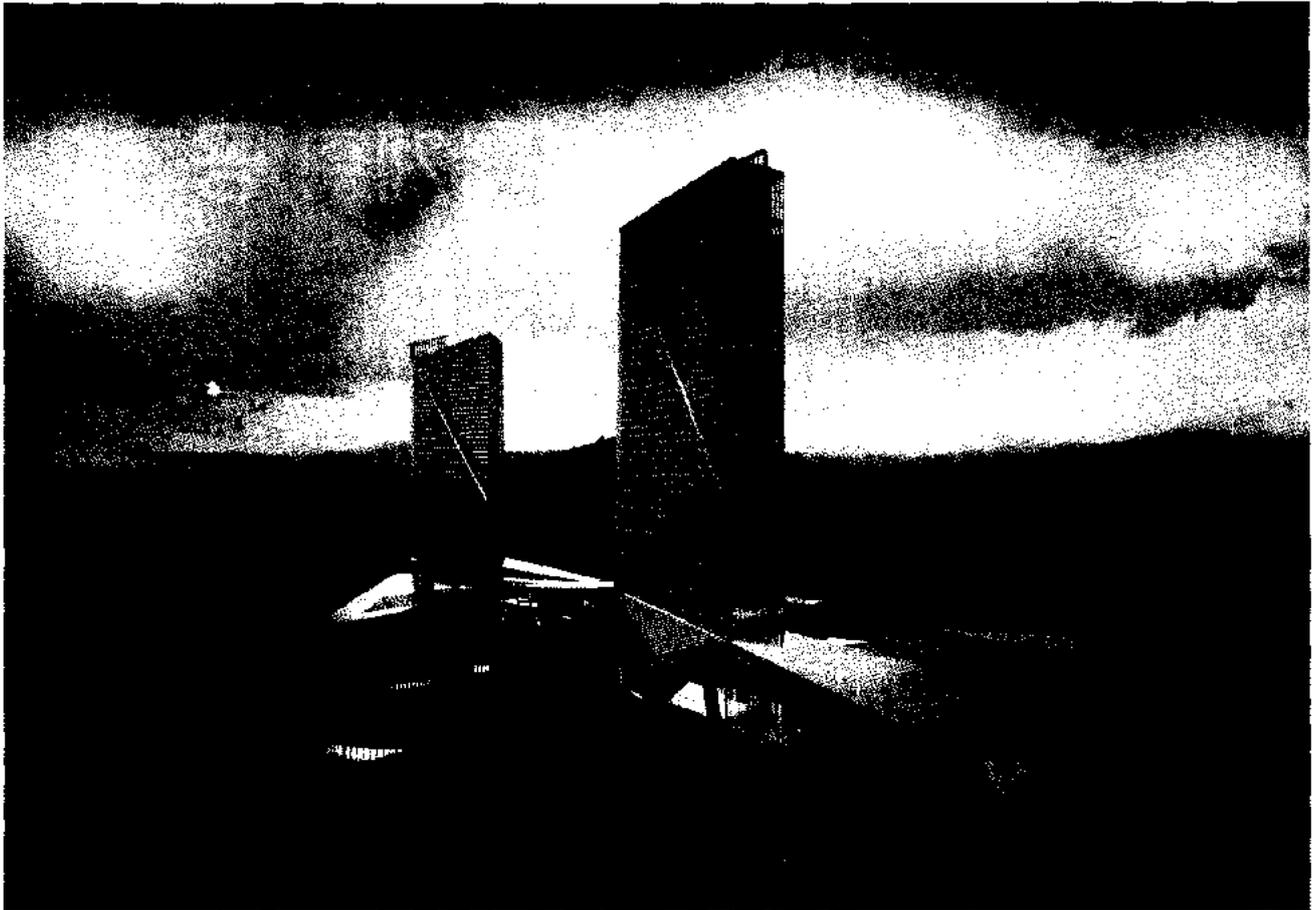
함께 프로젝트로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 대화를 나누다보면 남자와 여자가 생각하는 구조가 많이 다른 점을 느낀다. 부부가 같이 설계를 하다 보니 디스커션이 중요한데, 상호 보완되는 점이 많다. 좌뇌와 우뇌가 사용하는 부분이 다르니 내가 이성적으로 접근했다고 보면 장 건축사는 감성적으로 접근하여 보완해준다. 의견이 엇갈릴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좋은 것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는 편이다. 특히 작품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은 강하게 비판하지 못하지만, 장 건축사의 경우 과감하게 비평할 수 있으니 그 점이 도움이 된다.

대형사무소와 소형사무소는 향후에도 공존할 것으로 생각되며, 공생하며 상호보완의 관계가 되면 좋겠다

대형사무소와 소형사무소는 나름대로 공존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형사무소가 종종 영역을 침범하여 소형사무소를 건드리려고 하는 것이 분계라고 생각한다. 어느 시대에도 공동과 비취벌레는 공존했다고 생각한다. 공생하고 보완관계가 되면 좋겠다. 나는 차라리 소형사무소를 택할 것이다. 오히려 소형사무소의 미래는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병원도 종합병원과 소형병원이 있으며, 아주 특정한 의사로 명성이 나면, 이를테면 '심장 전문의는 누구' 이런 방법으로 소형병원이 오히려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다만 소형사무소는 일정규모 이상의 일을 수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문제이다.

기회는 온다. 그때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두라고 말해주고 싶다

후배 건축사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몇번도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또한 요즘과 같은 혁명적인 주변환경의 변화는 불변의 진리처럼 여겨졌던 개념들을 한순간에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융복합건축에 관심을 가지고 개척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에 의하여 건축을 선택하였다면 건축을 일로 생각하지 말고 즐기도록 권하고 싶다. ■



한국전력기술(주) 신사옥

KEPCO E&C Headquarters

당선작 _ 정영균 정희원·금두연(주)희림 종합건축사사무소
 + **한종률** 정희원(주)삼우 종합건축사사무소
 + **황현명** 정희원(주)투에이치엠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북 김천시 남면, 농소면 일원(경북김천혁신도시 내 지구단위계획상 '아전' 지역)
지역지구 준주거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21,934㎡
건축면적 16,847.09㎡
연면적 115,798.02㎡
건폐율 13.80%(70%이하)
용적률 64.09%(500%이하)
규모 지하 1층, 지상 28층
설계담당 희림건축 _ 김남주, 이민수, 류무열, 정용주, 김해진, 김경주, 이상현, 김영태, 안지은, 이주한, 김은영 / 조경 _ 유승중, 구항천 / 친환경 _ 이어영, 최선필, 이정선, 홍순복, 신주연
 삼우건축 _ 이진권, 권경남, 윤영선, 조광현, 이지원, 윤성호, 박해웅

프로젝트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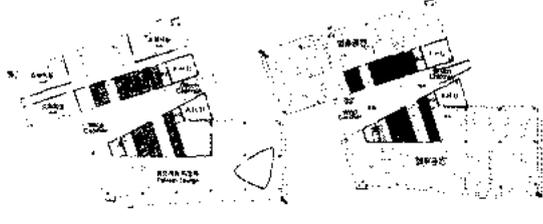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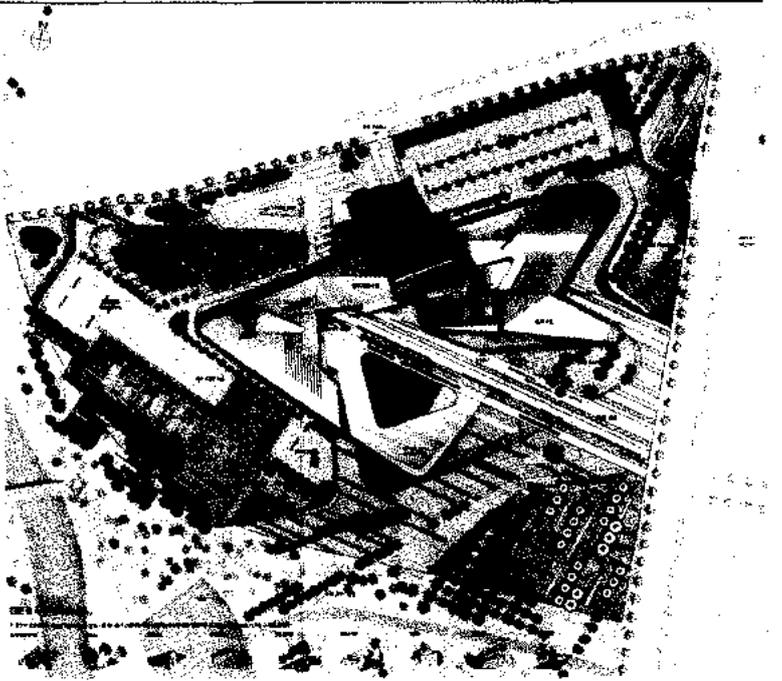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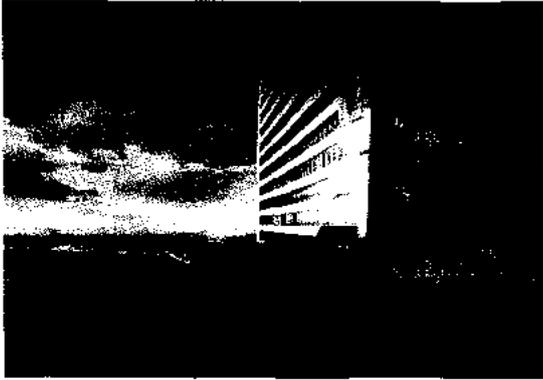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이전 대상지인 김천혁신도시내에 한국전력기술의 위상제고와 글로벌 에너지기업의 상징성이 고려된 에너지 저장/저탄소 녹색빌딩을 실현하고, 쾌적한 업무환경, 최첨단 지능형 빌딩을 조성하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첨단 신사옥을 건립하기 위하여 본 설계 공모를 진행하였다.

디자인 컨셉

우리가 계획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점은 에너지기업의 이미지를 어떻게 찾아 낼 것인가 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고민들을 통해 창조(Energy Creation), 변화(Energy Change), 보존(Energy Conservation)이라는 에너지의 속성으로 대지의 한점에서 시작된 힘이 진화와 평형의 단계를 거쳐 활성화되는 삼위일체의 장소가 되는 즉 "Trinity Point"를 만들어 내었다. 이번 계획안은 환경과 Context를 철저히 분석하여 나온 자연스러운 디자인 형태를 만들어 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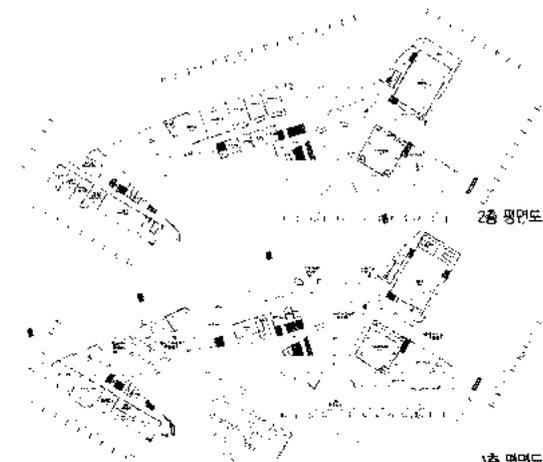
대지가 가지는 상징적 위치와 인지성을 고려하고, 김천의 기후환경을 고려 하였을 때 타워형 볼륨형태가 가장 적합한 매스의 형태로 판단하였으며, 한국전력기술의 각 부서를 최적화된 배치 가능한 28층의 건물 볼륨을 만들어 내었다. 또한 2면의 도로와 공원화 인접한 대지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면성을 부여하고, 친환경적 아이디어를 오피스 내에 담아내어 우수한 업무환경은 물론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완성시켰다.

계획안은 많은 친환경 아이디어를 담아내고 있다. Green Chimney를 통한 자연환기를 고려하였고, Wind Graze, Smartshiled라는 외피디자인을 통해 냉난방 부하 및 일사차단의 효과와 더불어 입면에 아이덴티티를 불어 넣었다. 나이가 분사인원의 증원을 대비하여 부지내에 향후 증축분에 대한 마스터 플랜계획이 이번 공모에 포함되어 있었다. 신축분과의 업무연계성을 고려한 적절한 배치를 통해 효율성을 높였으며 일관된 디자인패턴을 사용하여 하나화된 한국전력기술의 미래를 이미지화 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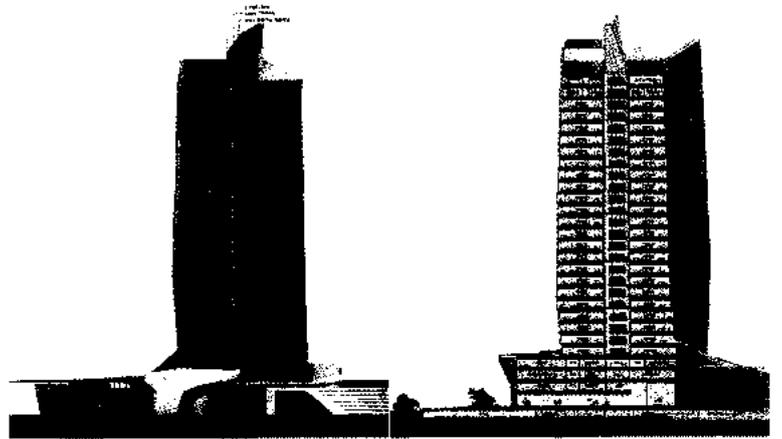


기존층 평면도 리프트레쉬 라운지 평면도(28층)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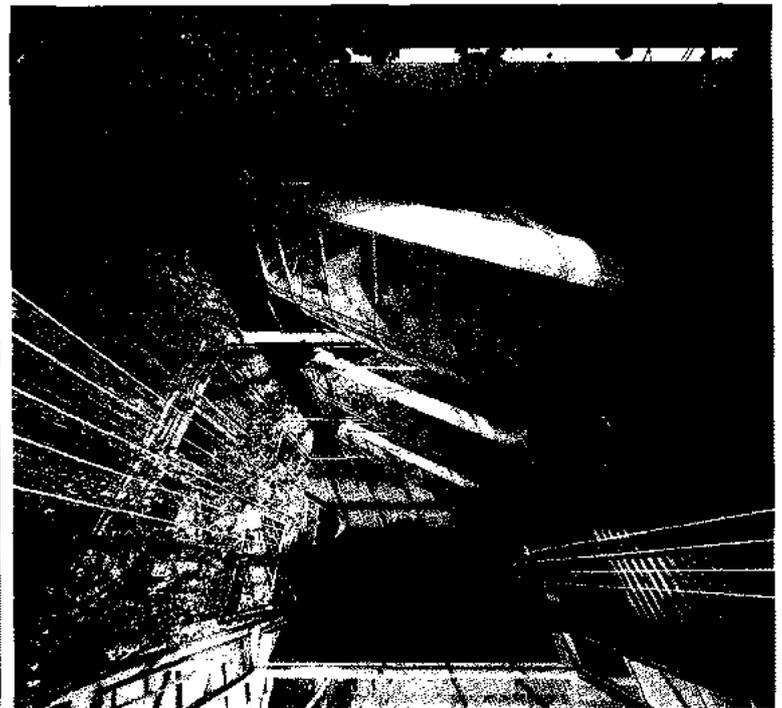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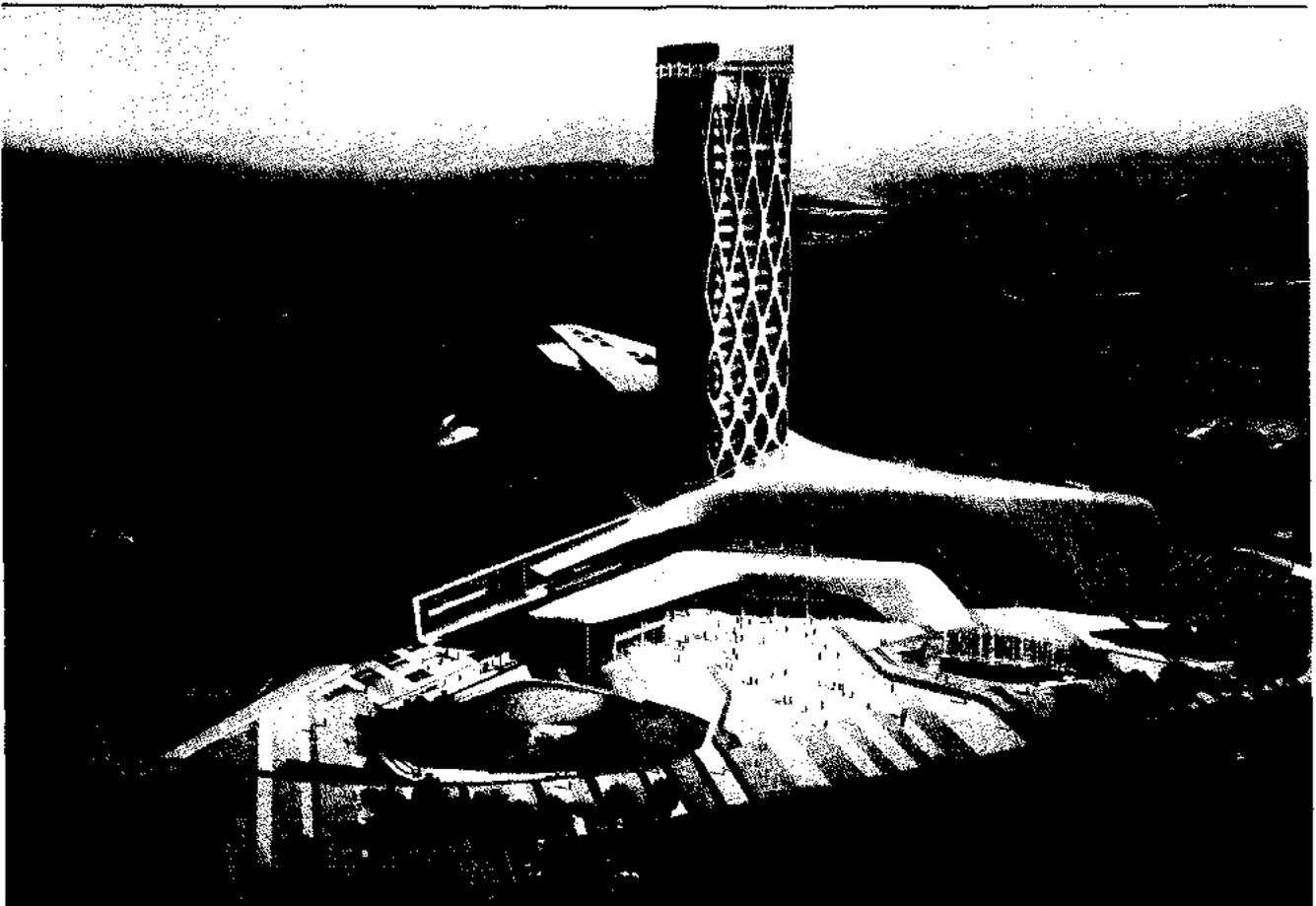


1층 평면도

동측면도

중단면도





한국전력기술(주) 신사옥

KEPCO E&C Headquarters

우수작 _ **함인선**^{정희원}

(주)산촌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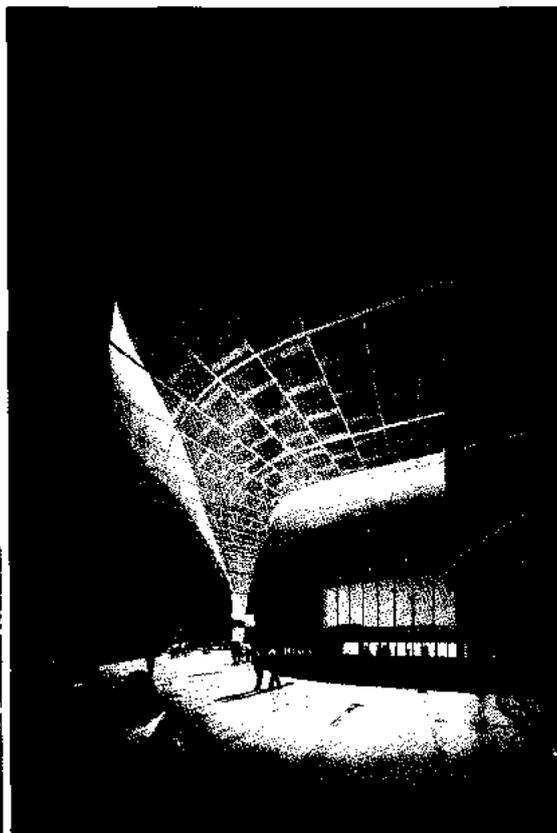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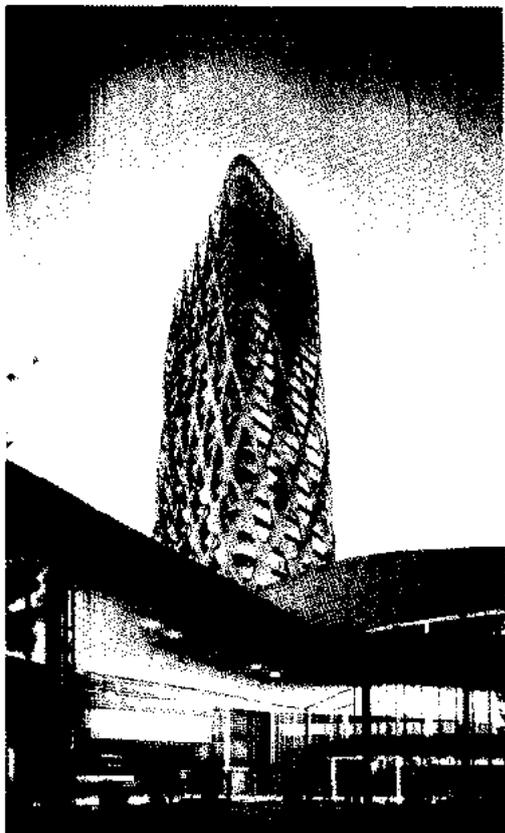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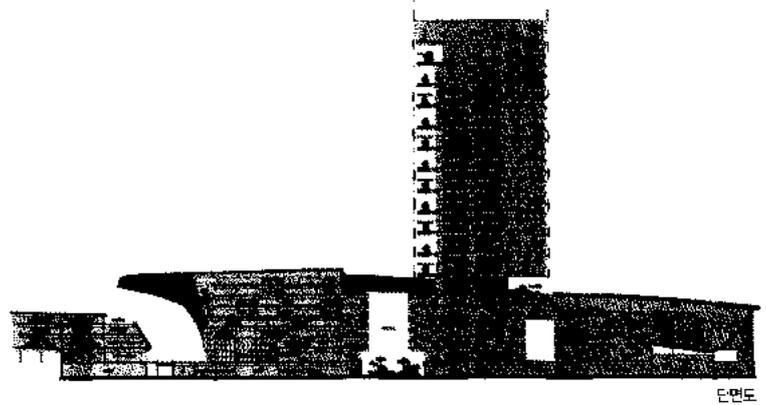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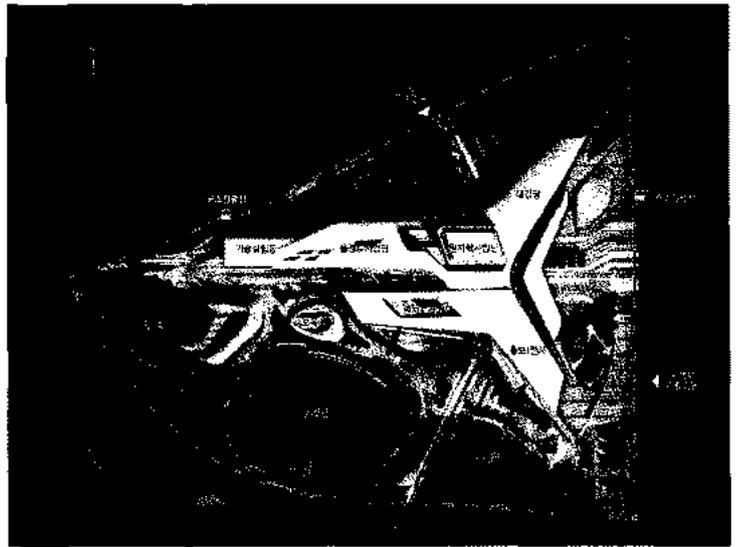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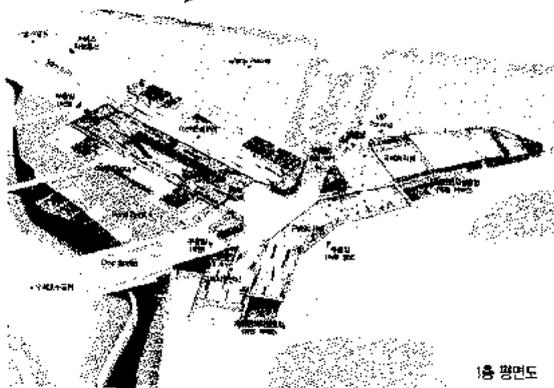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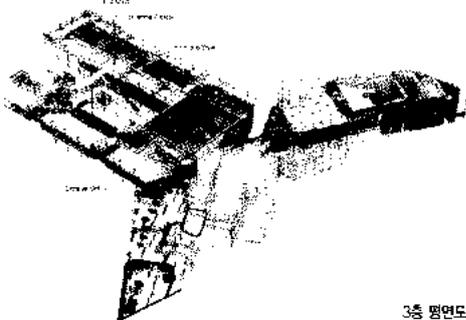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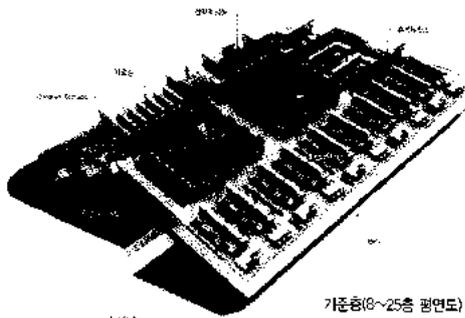
+ 이수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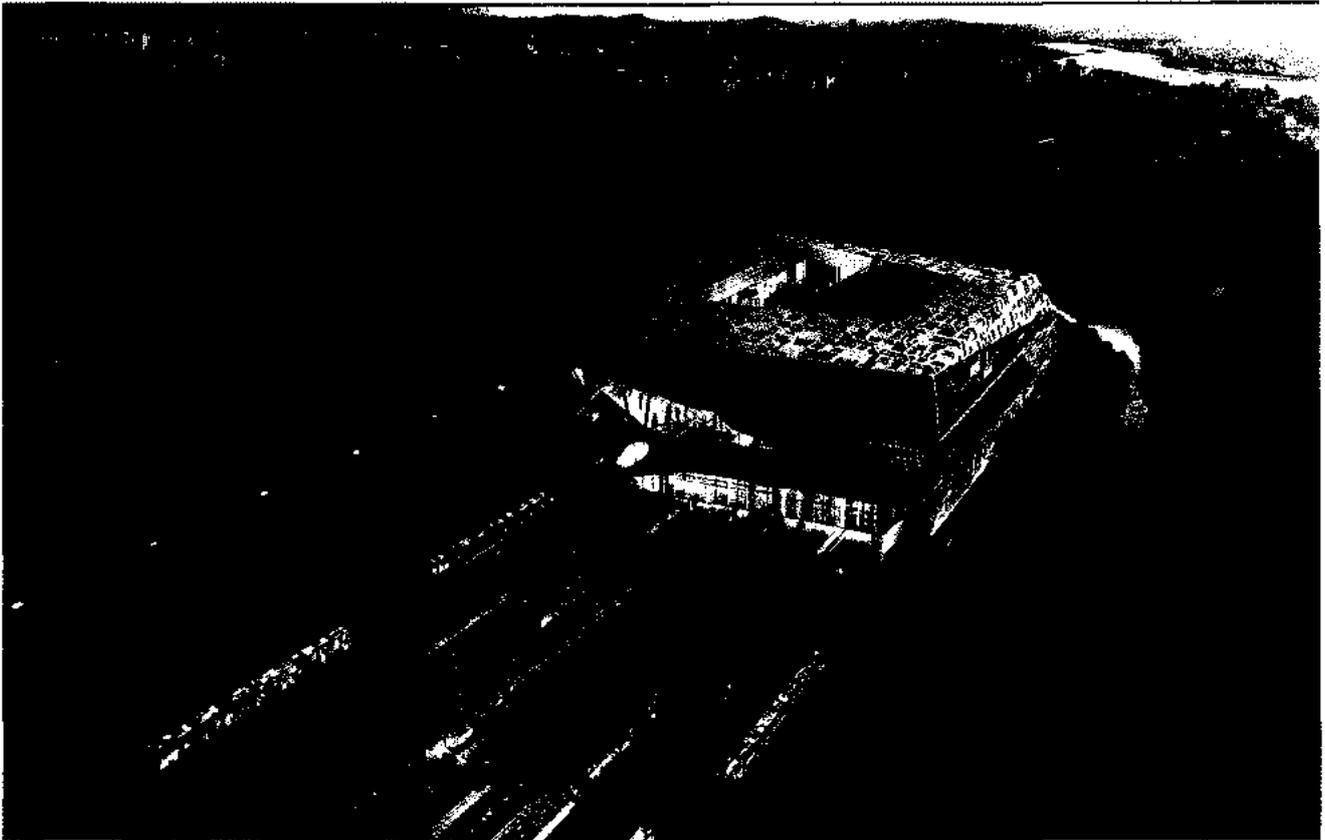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북 김천시 남면, 농소면 일원 (경북김천혁신도시내)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요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21,934㎡
건축면적	23,338.25㎡
연면적	118,572.63㎡
건폐율	19.14%
용적률	68.85%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규모	지하 1층, 지상 28층
설계담당	선진건축 _ 홍인표, 강민성, 안윤배, 고광현, 김현숙, 권숙희, 김영균, 황신기, 이재엽, 김민중 토문건축 _ 양주식, 고문영, 한규욱, 이준호 TYPS _ 박열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른 한국전력기술의 이전 부지는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위치한다. 대지는 남쪽으로 열린 삼각주 모양을 하고 있다. 건물 배치는 삼각주 모양의 대지의 형상에 순응하여 건물이 자리 잡아 각 도로변을 대웅한다. 현 세 개의 분리된 사옥들은 각 영역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건물군 배치와 소통의 극대화를 위한 오픈된 공용 공간을 그리고 인원증원 대비 가변성을 확보하여 최적의 통합사옥을 이룬다. 열효율을 이용한 아트리움의 냉난방, 저층 매스의 이중외피, 타워동 남측면의 BIPV 및 처량시스템등을 통하여 에너지효율 1등급과 친환경 최우수등급을 달성하여 저탄소 친환경 녹색빌딩을 구현하였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향해 정진하는 한국전력기술의 위상에 맞추어 최고의 글로벌 에너지기업의 상징성을 건물 내외부에 표현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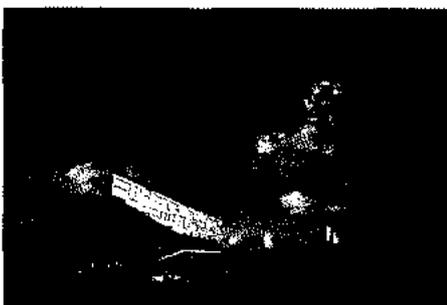
한글박물관

Hangeul Museum

당선작 _ 현대진 경희대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시인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일반이관리지구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295,550㎡(전체 사업부지 면적) 3,747.25㎡(공회 사업부지 면적)
건축면적	2,875.93㎡
연면적	11,522.57㎡
건폐율	76.75%
용적률	211.53%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발주처	문화체육관광부
설계담당	이창연, 음상호, 윤경현, 김수이아, 심현선, 장희진, 박창모, 이근택, 김세영, 박은미, 박종래, 양희진



배치계획

사업부지는 서울의 중심, 용산에 위치하며 경복궁, 승례문, 서울역을 잇는 문화·역사축 위에 있고, 주변으로 중앙 박물관과 문화공간이 있는 문화·역사적 상징공간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축과 서빙고로의 축을 받아들여 배치를 계획하고 대상지 주변에 위치한 거울못, 문화재, 소나무길, 돌다리 등의 요소들과의 연계를 고려하였다. 또한 서빙고로와 중앙박물관에서의 인지도 및 접근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려 하였다. 그리고 기존 일주회랑의 보존과 계류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배치하고 지형의 높낮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건물과 외부공간을 구분하여 산책로와 연계할 수 있는 순환동선을 계획하였다.

공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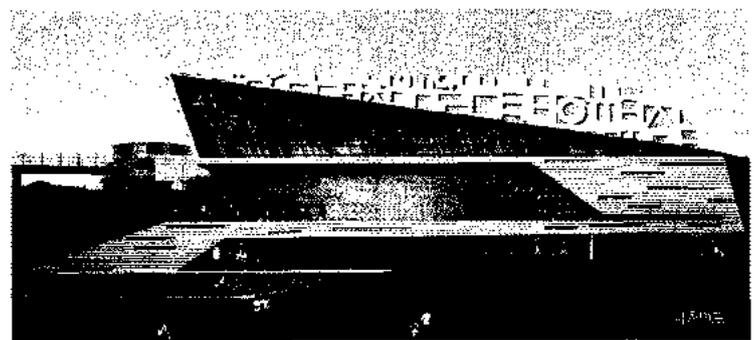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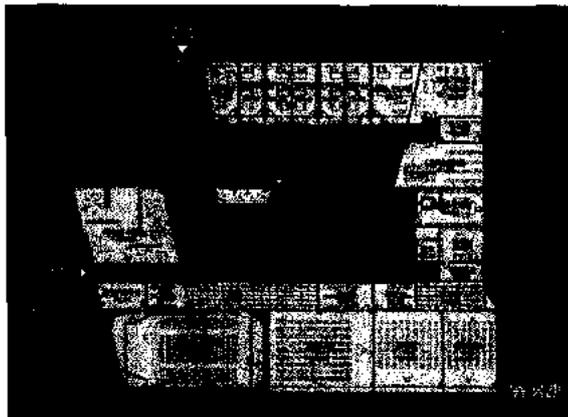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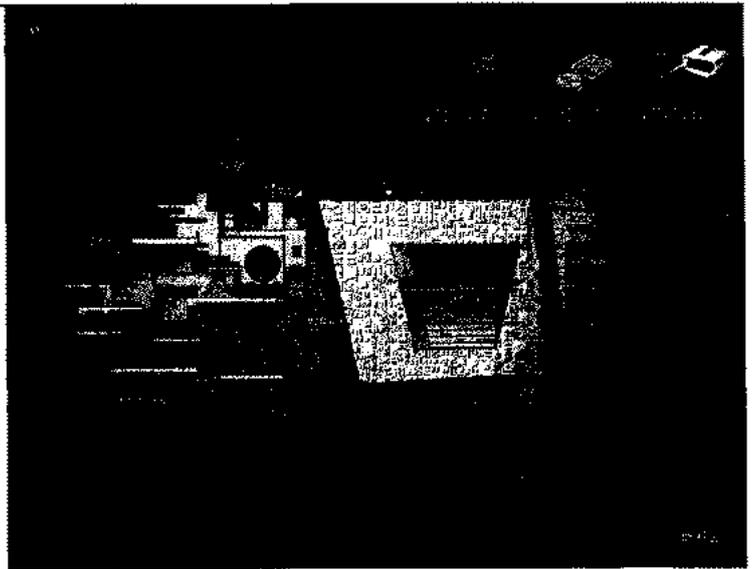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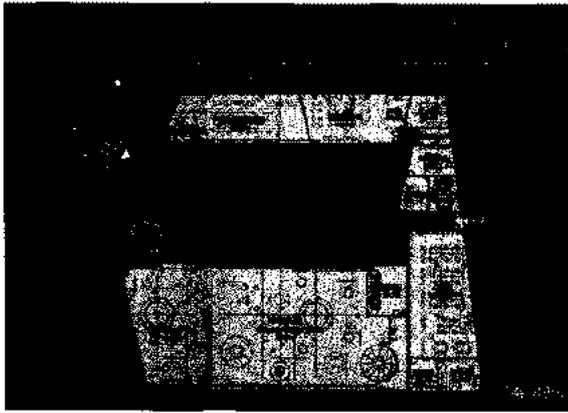
첫째, 제안된 프로그램 면적범위 안에서 설정된 매스에 중정을 삽입함으로써 하늘과 소통하며 외부접지면적을 확장시켰으며 들레, 문화·역사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진입축을 진입계단과 데크로 연결하여 땅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입체적 공간으로 발전시켰다. 마지막으로 진입부 지붕차마의 솟아오른 곡선 설정으로 정면성 강조와 도시와 자연, 사람을 향해 열린 소통의 공간을 계획하였다. 또한 내부프로그램 구성은 사람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중정과 코어를 중심으로 연계배치 하였고, 상층부터 전시체험시설, 고객지원시설, 교육교류시설과 연구개발시설을 순차적으로 구성하였고 운영관리시설은 성격별로 각층에 분리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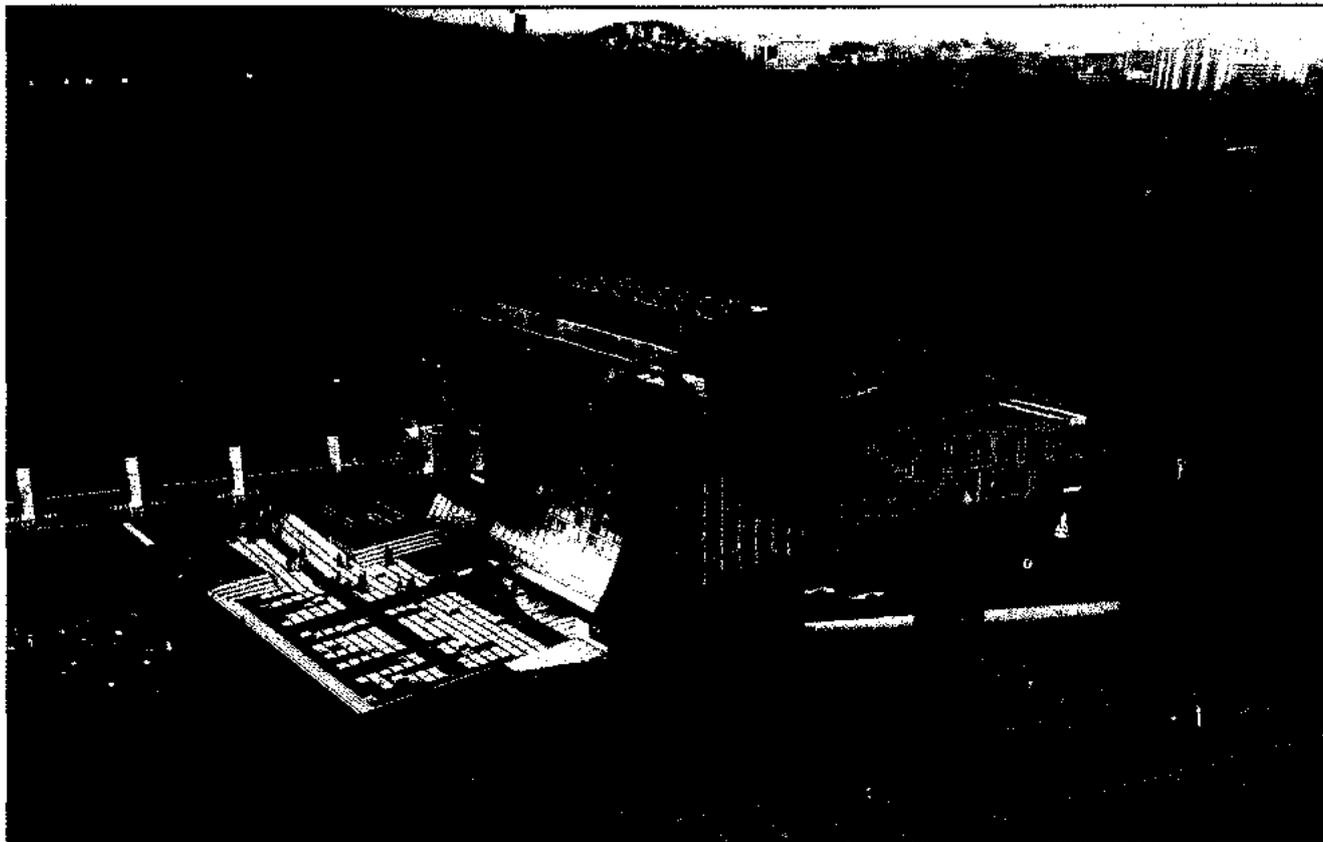
정면계획

교육과 연구를 위한 공간인 1층은 로비를 중심으로 교육부부와 연구부부를 구분하였다. 세미나실과 시청각실은 별도의 출입구를 두어 전시와 분리 운영이 가능한 멀티미디어 교육장으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연구실은 체크포인트를 두어 보안을 확보하고 자료기록실과 연계하여 배치하였다. 2층에는 기획전시관, 관람객편의시설, 사무시설을 계획하였다. 가변형 기획전시관은 접근이 용이하도록 로비와 인접배치하고 또한 사무공간은 독립적 영역의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였다. 전시체험시설이 있는 3층은 전시관 도입부에 상징전시홀이 위치하고 상설전시관은 자유로운 전시계획과 선택동선계획이 가능한 대공간의 오픈플랜으로 계획되었다.

외부공간계획

중앙박물관의 자연을 보존함과 동시에 공원과 연계를 고려한 외부공간계획은 한글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자연형 랜드마크를 목표로 2층 외부 전시데크와 옥상의 천지인 마루를 계획하였다.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가능한 제안시설, 천지인 마루는 3층에서 접근가능하며 관람자의 휴게와 남산의 조망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한글박물관의 전면부에 한글박석마당에는 LED와 한글조형물을 이용한 체험광장을 조성하고 기존계류를 활용한 수변생태체험공간을 제안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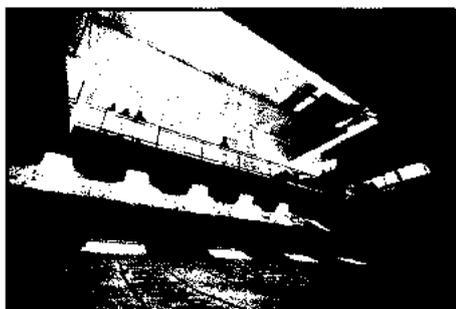


한글박물관

Hangeul Museum

우수작_ 송유석 최현민 (주)한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김종범 (주)주우 건축사사무소

대지 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5 (용산 6가 168-6)
지역 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반미관지구
주요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295,550.69㎡
건축면적	2,896.50㎡
연면적	11,515.14㎡
건폐율	17.68%
용적률	42.31%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발주처	조달청
설계담당	한기건축_이태주, 김현복, 박종훈, 허은정 주우건축_조한준, 이현중, 권태구



‘글을, 한글을 담다’는

우리가 보존해야 하고 발전시켜야 할 한글, 그 한글을 담고자 하였다. 이를 담고자 과거를 기억하는 수단인 한글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미래라는 그곳에 담아 한글의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박물관을 계획하였다. 한글박물관은 과거속의 한글의 의미를 오늘날 되새기고 동시에 한글의 의미와 역할을 세계에 알리는 장이 될 것이다.

배치개념

대지 내 강한 축을 형성하는 중앙박물관의 축과 계획대지 남쪽에 위치한 서빙고로의 도시 축을 수용해 진입 시 정면성과 상징성이 강조되도록 계획한다.

전면광장 : 한글 서체의 유려한 흐름을 은유하여 광장에서부터 하늘로 치솟아 한글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공간으로 구성

외부동선계획 : 보행자 접근은 전면광장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차량은 계류하부로 접근여 가능토록 해 자연훼손을 최소화

평면계획

지하 1층

- 주차장을 설치해 지상부의 토지이용효율을 최대화
- 하역장을 수창고와 근접 배치해 화물 반·출입 등의 유지관리가 편리

지상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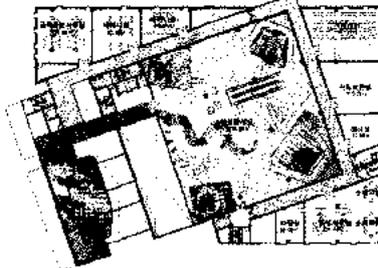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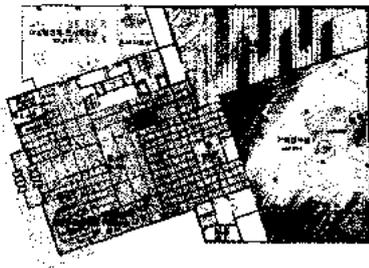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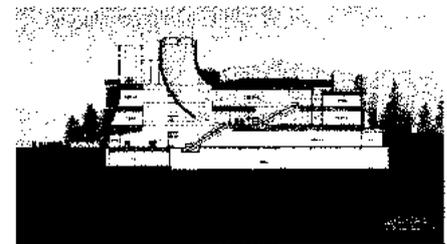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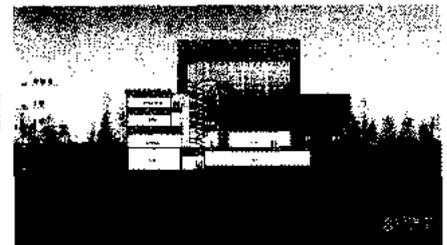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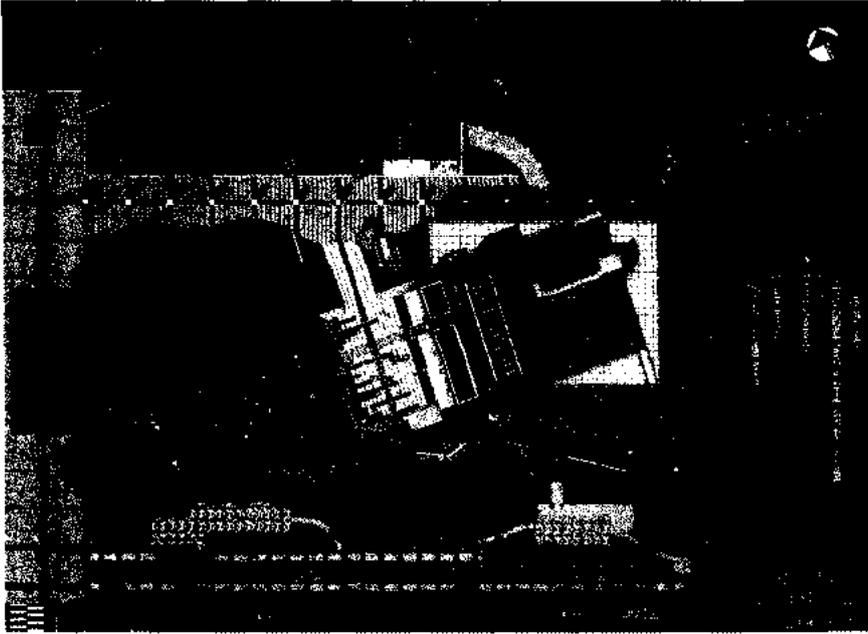
- 중앙 홀을 중심으로 기획전시실 및 체험실과 정보명람실을 배치해 이용객의 접근에 편의성을 고려
- 홀 중앙에 위치한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관람객에게 전시관 진입동선을 명확하게 제시
- 중앙 홀은 천창을 통해 외부의 빛을 끌어들이어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벽면에 극적인 전시효과를 연출
- 전면광장에 면한 카페테리아를 통해 외부공간과 연계된 휴게공간을 계획

지상 2층

- 중앙의 전시공간을 중심으로 좌측에 시청각실 등의 교육시설, 우측에 연구시설을 구분해 배치
- 전시공간 외부부의 복도를 통해 각 시설간의 연계성을 강화
- 1층과 연계된 중앙 홀은 빛을 이용해 감성의 전시공간으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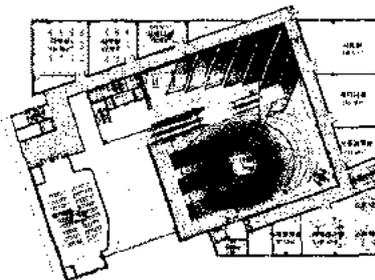
지상 3층

- 중앙 홀 상부에 의해 분리된 3층의 전시공간은 전시테마에 맞게 공간을 구성
- 중앙 홀 좌측으로 교육시설, 우측으로 운영사무실 등의 관리시설을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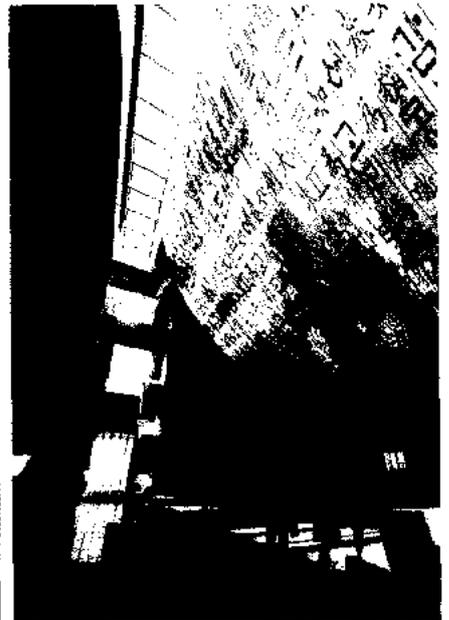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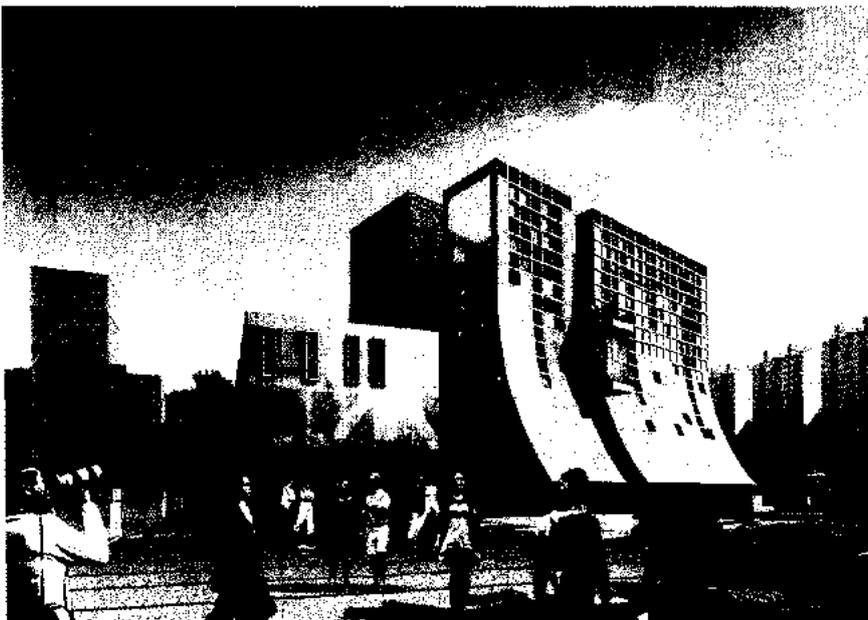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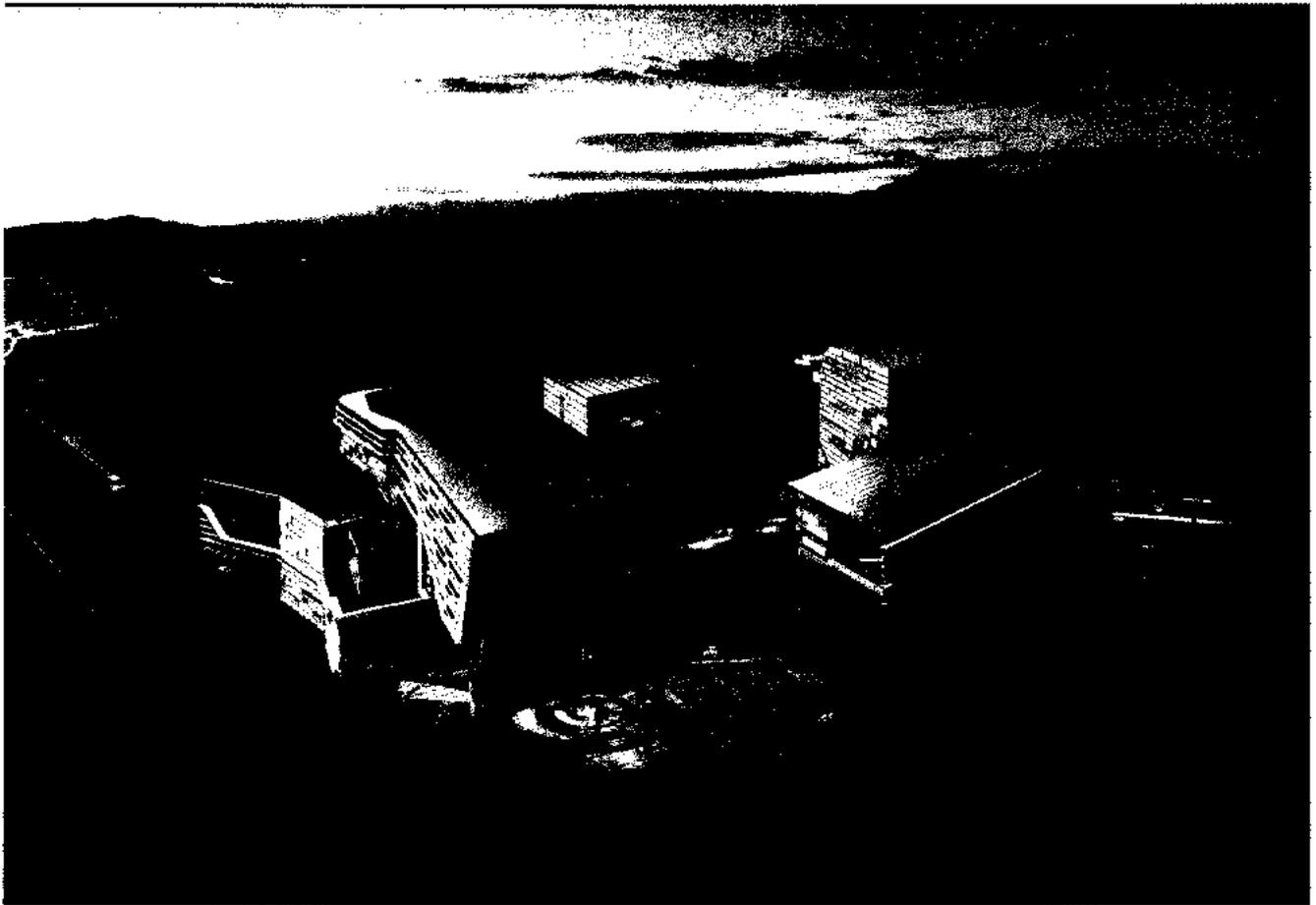
3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신울진 1, 2 호기 발전소 사무실

SinUjin # 1, 2 Power Plant Office

당선작 _ 박유중 경희대
(주)건축사사무소 지오디자인

대지위치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덕천리 신울진 1,2호기 발전소내
지역지구	일반공업지역
주요용도	발전시설 (발전시설내 업무시설)
대지면적	7,249.41㎡
건축면적	3,791.11㎡
연면적	10,661.05㎡
건폐율	52.30%
용적률	147.06%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발주처	한국수력원자력
설계담당	윤철훈(디자인), 박재영, 김천진

신울진 1, 2호기 발전소는 한국 표준형 원전의 후속형인 신형으로 건설된다. 대지는 1, 2호기 부지의 초입에 위치해 친환경, 친인간적인 이미지를 외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에너지 생산기업의 역동적이며 창의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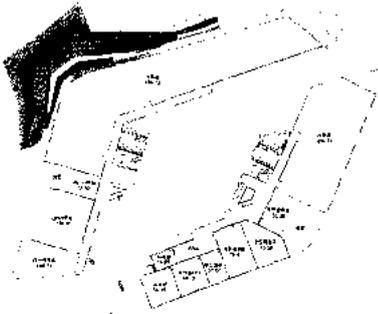
우선적으로 발전소 전체의 이미지를 고려한 디자인과 사무실 내부의 원활한 동선연결과 동시에 발전소와의 연결이 고려되었다. 넓은 대지를 활용하고 기능을 자상으로 배치해 골토량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와 외부 방문객 동선을 고려한 영역성을 확보했다. 환과 조망을 고려한 결과 외부와 실내 공간 사이에 버퍼 존(Green Buffer Zone)을 계획함으로써 곳곳에 정원공간을 마련하였다.

역동적인 입면구성으로 수평적인 패턴을 적용해 외관에 통일성을 부여했으며, 실들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 의미들면으로 구성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 했다. 또한 옥상 녹화와 더불어 건물 곳곳에 정원과 데크를 녹지로 계획하여 건물 전체에 그린 패치(Green Patch)가 연결 되게 하였다.

감성적인 외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대지 특성을 반영하는 외부 공간의 위치를 설정해 광장, 중정을 통과하는 오솔길을 계획했다. 사무실 사이 동선의 결절점에 옥외 정원을 계획해 직원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직원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도모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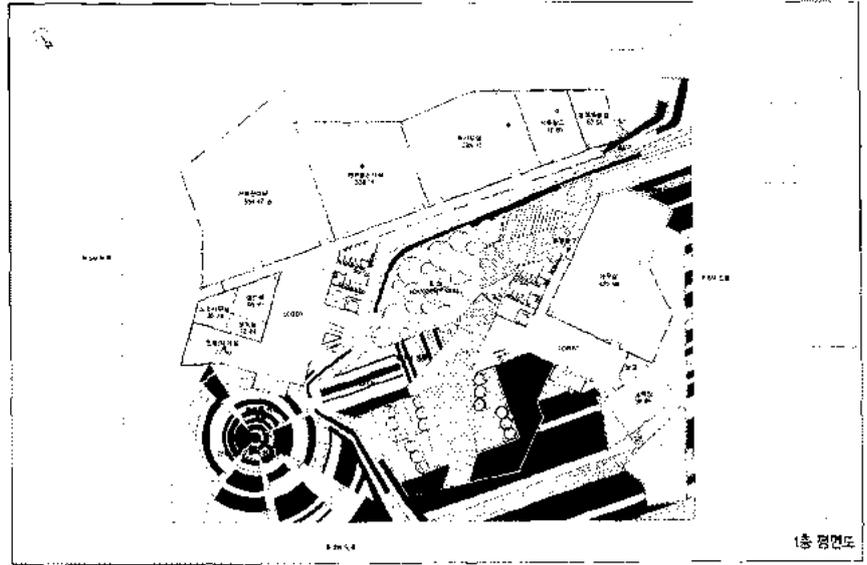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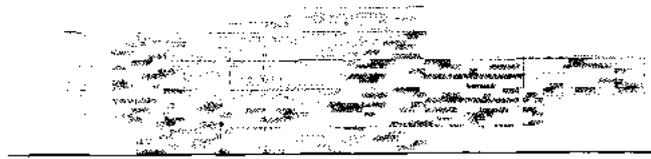
3층 평면도



7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동 남동측면도



B동 북동측면도



주단면도



프랑스 공공건축사업발주에 관한 법 (Loi MOP)과 발주절차 :

건축사 업무계약과정과 업무범위에 대해

French public construction ordering Law (Loi MOP) and ordering procedure :
architectural service, contract and work scope

필자 : 이기용, 현 KLN Architects 공동대표

by Lee, Keeyong [Principal Associate, KLN architects, Paris]



1998년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후, 2003년 프랑스 파리-마른-라-발레 건축학교에서 국가건축사학위를 받았다. 파리에서 eodm, x-tu를 비롯한 여러 건축사사무소에서 6년 동안 실무 후 2008년 네나드 바직과 함께 KLN Architects를 설립해서 활동 중이다. 현재 프랑스건축사협회 정회원이며, 2008년 델프트 건축학교 국제현상 입선, 파리 건축특수학교(ESA)로부터 (Prix Spécial(e) Hiver)

상을 수상하였다. 같은 해 키프로스 테리니아 시청 현상설계에서 특선, 서울 건축학교 워크숍과 전시회에 초청작가겸 튜터로 참가하였다. 2010년에는 프랑스건축사협회 추천 공공현상설계 심사위원리스트에 선정되었으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젊은 건축가상>을 수상했다.

목 차

1. 프랑스 공공건축사업발주에 관한 법 (Loi MOP)의 주요내용과 공공건축사업발주절차

Principal contents of the French public construction ordering Law (Loi MOP) and ordering procedure

2. 건축사업무에 관한 계약과정과 업무범위, 설계비 산정의 예들

Procedure of an architectural service contract, architect's work scope and calculation of architect's service fee in France

본 연재는 앞으로 2회에 걸쳐 프랑스에서 건축가의 공공분야에서의 설계와 감리역역의 법적근간을 이루는 프랑스 "공공건축사업법(Loi MOP)"의 중요한 항목들을 둘러보고, 제도적으로 정해진 프랑스의 건축사업업무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법적제도를 바탕으로 유럽의회와 프랑스의 "공공건설의 품질을 위한 정부부서 간 공동 미션(MIQCP : Mission Interministrielle pour la qualité des constructions publiques)"이 지정하는 공공사업의 발주절차와, 건축가 설

계역 계약과 업무범위, 그리고 설계비 산정근거를 다룰 예정이다. 프랑스의 공공건축정책은 국가차원에서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발주절차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제도를 바탕으로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며,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계속 진화에 나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적제도를 바탕으로 정해지는 공공분야에서의 건축사업무의 계약과정과 업무범위에 관한 연재는 국내의 현실과 비교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리라 기대한다.

1. 프랑스 공공건축사업발주에 관한 법(Loi MOP)의 주요내용과 공공건축사업발주절차

1. Principal contents of the French public construction ordering Law (Loi MOP) and ordering procedure

1. 프랑스 공공건설사업발주에 관한 법(Loi MOP)의 주요내용

로아 롬 (La Loi MOP)

1985년 7월 12일 프랑스 국회에서 승인되고 대통령에 의해 공포된 프랑스 공공건설 사업발주법 <Loi MOP>¹⁾은 도입된 이후로 몇 가지 변화들 거치며 공공사업 발주처²⁾ (건축주)와 민간 건축, 도복 디자인 서비스 업체³⁾ (건축가, 엔지니어, 전문컨설턴트)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1993년 12월 공포된 건축서비스 업무범위에 대한 법령과 더불어 프랑스에서 건축가업무의 법적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법을 둘러보면, 먼저 법에 의해 규정된 공공사업 발주처의 의무 범위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발주처의 사회적 책임과 업무반경이 크므로 건축사업을 시작하려면 상당한 사전검토와 준비과정이 필요하고, 사업의 진행이 더러지는 단점이 있으나 정치적인 의도나 단편적인 개발욕구로 인해 만들어지는 성급한 건축 사업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계약상의 건축가 기본업무가 법으로 규정되어 발주처와 건축가 사이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서로의 업무에 대한 무리한 요구나 간섭을 방지하고, 건축가가 자신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다음과 같이 <Loi MOP>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간단히 둘러보도록 한다.

이 법은 가장 먼저 “공공사업 발주처⁴⁾”로 “국가, 공공기관, 지역자치단체, 신도시사업 발주처(도시계획규범 321-1에 의해 정의됨), 민간부분 사회임대주택 사업체(도시계획규범 411-2에 정의), 공공-민간 공동투자기업 SEM⁵⁾ 등을 나열하여 공공적인 성격을 띠는 건축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제1조)

제2조에는 발주처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있다.

“발주처는 건축물의 주된 책임자이며, 그 역할에서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발주처는 해당사업의 현실가능성과 그것이 발생시키는 기획에 대해 확인한 후 사업의 위치, 프로그램의 정의, 전체예산의 확정, 그리고 자신이 선택하는 건축가와 시공자와 함께 발주대상 건축물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건설될 것인지 결정하고, 그들과 함께 프로젝트 계획 연구단계와 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서를 만들 의무가 있다.

발주처는 프로그램을 정의함으로써 건축사업의 목적과 그것이 충족시켜야 할 사회적, 도시적, 건축적, 기능적,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제약요소와 요구조건, 주변 환경과의 조화, 건축물의 사용과 관련한 문제 등 건축물의 품질에 대한 필요성을 확실히 한다.”

건축용역서비스(Maîtrise d'Oeuvre)에 관한 항목은 제7조에서 언급되는데, 건축가의 기본업무를 정의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공공건설물의 실현을 위한 건축가의 업무는 시공자의 그것과 구분되며, 발주처가 사법상의 인물이나 공동체에게 일임하는 건축서비스 업무는 제2조에서 정의한 프로그램에 대해 건축적, 기술적, 경제적 해결안을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발주처는 다음에 나열된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디자인과 보조(assistance)에 관한 업무를 맡길 수 있으나, 건축물(토목과 구분해서 건물을 짓는 경우)에 한해서 건축가의 기본업무는 통합된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1. Esquisse : 스케치단계 (계획설계)
2. Avant-Projets (APS, APD : Avant-Projet Sommaire & Avant-Projet Définitif) : 기본설계
3. Projet : 상세설계
4. 시공자 선정과 계약과정에서 발주처를 보조하는 업무
5. EXE, VISA : 실시설계, 시공사에서 제작한 실시도면과 자신의 설계안에 대한 일관성 검토 및 승인
6. 시공계약의 실행에 대한 감독(감리)
7. 준공 검사 시 발주처가 시공사로부터 건축물을 수령할 때 발주처를 보조하는 업무. 예외적으로 건물의 경우 기본적인 용역을
8. OPC⁶⁾ : 공사현장의 조율과 조정

¹⁾ Maîtrise d'Ouvrage Public의 약자로, '공공건설사업 발주'를 뜻함. 'Ouvrage'는 작은 주택에서부터 시작해 건축물은 물론 교량, 도로, 철도 등 토목공사용까지 포괄하는 단어이다. 'Maître d'Ouvrage Public(공공건설사업 발주자)'는 Maîtrise d'Ouvrage Public 을 수행하는 이를 말한다.

²⁾ Maître d'Ouvrage. 발주자(Client 또는 General Contractor). 약자로 'MO'

³⁾ Maître d'Oeuvre. 발주자에 의해 선택되어 건축물의 실현에 필요한 지식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축가, 엔지니어 등의 전문 컨설턴트 집단. (Architect 또는 Project Supervisor) 약자로 'MOE'

⁴⁾ 프랑스의 공공사업 발주처는 프랑스 민법상(personne morale/법인, 영문으로는 legal entity)의 성격을 띠는데, 민법상 복잡한 관계를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는 없으나, personne physique(개인) 또는 서로 다른 여러 법인(personne morale)이 모여 만들어진 공동체의 의미가 있다.

⁵⁾ Société d'Economie Mixte의 약자. '혼합경제회사' 프랑스에서 흔히 국영기업이나 신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 큰 규모의 공공건축물 사업의 발주에서 나타나는 공-공성격의 발주기업형태로, 공공자본(51%에서 85%사이)에 민간자본이 혼합된 형태

이 경우 <Loi MOP>에 의해 정해진 **단일계약**의 대상이 되는 건축가 기본업무는 1번부터 7번까지이고, 8번의 공사현장 조율과 조정은 대부분의 경우 옵션으로 계약하게 된다.

<Loi MOP>은 이 밖에 여러 법적 제도를 명시하고 있으나, 큰 범주에서 본 이 법의 의의는 발주처의 의무와 건축가 용역 계약 시 분리될 수 없는 업무의 범위가 정의되어 공공 발주에서 건축가 업무의 의무와 권리를 일정하게 보호한다는 것에 있다. 특히 하나의 건축가 집단이 설계와 감리 업무, VISA(시공사가 제작하는 실시도면이 자신의 설계의도와 맞는지 점검하고 시공을 허가하는 것)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공공건축물의 건축적 일관성이 보장되며, 완공작의 시공 퀄리티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공공발주에서 시공사는 건축주와 건축가에 의해 선정되어 그들의 조율과 허가, 승인을 받으며 공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한국의 공공발주 프로젝트에서의 발주처-시공사-건축가의 지위와 비교하면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1993년 12월 21일 법령

1985년 제정된 <Loi MOP>에 이어 1993년 12월 21일 제정된 법령(Arrêté du 21 décembre 1993)은 <Loi MOP>에 근거해 앞서 언급된 설계, 시공단계마다 관련 건축가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Esquisse : 스케치단계(계획설계)

- 건축가가 이끄는 설계업무의 첫 번째 단계
-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한 가지 또는 통합된 여러 개의 해결안을 제시
- 기술적인 해결방안, 시공기간, 경제성과 관련된 일반적인 해결책을 제안
- 프로그램과 사이트의 제약과 비교해 사업가능성을 재검토
-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지반, 자질조사, 환경 조사 등을 제안
- 요구되는 도면은 : 주요 평면도 1/500, 몇 가지 디테일 도면 1/200, 입면도 1/200
- 전체 볼륨에 대한 표현
- 새로 건축되는 주거시설의 경우, 평면도는 1/200의 스케일로 표현됨

2. Avant-Projets(APS, APD : Avant-Projet Sommaire & Avant-Projet Définitif) : 기본 설계

a. APS(Avant-Projet Sommaire) 초기 기본 설계

- 평면과 볼륨의 전체구성을 정의
- 법적 검토(특히 공공 위생과 안전 면에서)를 통해 프로젝트의 가능성 타진
- 내부공간과 외부경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와 면적에 대한

검토

- 부속되는 외부공간에 대한 정의
 - 공사비에 대한 예상절적과 공사기간에 대한 검토
 - 기술적인 해결방안
 - 건물의 성능과 관련한 목표(예를 들어 목표로 하는 친환경설계 / 에너지 효율 라벨)
 - 주요 도면은 1/200, 몇몇 디테일은 1/100의 스케일이 요구됨
- ##### b. APD(Avant-Projet Définitif) 최종 기본 설계
- 초기 계획 설계를 기본으로 법적 검토
 -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와 면적에 대한 정의(프로그램 면적이 확정되는 단계)
 - 평면, 단면, 입면과 건축물의 크기, 외형을 확정
 - 공법과 기초, 구조, 기술설비를 확정
 - 재료를 확정
 - 발주처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예상 공사비, 유지운영비와 관련 기술설비를 확정하도록 함
 - 공사항목별 공사비 예상절적의 확정
 - 건축용역서비스 계약서에 예정된 조건을 기본으로 설계비를 확정(프랑스에서는 공사비의 퍼센티지로 설계비가 책정되므로 예상 공사비가 확정되면 설계비가 확정된다)
 - 주요 도면은 1/100, 주요 디테일은 1/50의 스케일이 요구됨
 - 최종 계획 설계는 공사허가서(permis de construire)를 제작하고 허가를 받는 과정을 포함한다.
 - 새로 건축되는 주거시설의 경우, 계획 설계의 두 단계는 하나로 통합되어 수행되는 것이 가능하다.

3. Projet : 상세 설계

- 최종 계획 설계를 바탕으로, 평면, 단면, 입면, 건축물의 형태에 따라 사용된 재료의 특성과 시공방법을 명확하게 함
- 모든 구조와 기술 설비요소의 위치와 형태를 정의
- 공사현장의 조성과 관련해서 설비요소와 도시 인프라의 정확한 연결부와 배출부를 정의
- 건축물의 공간적 구성에 필요한 정보와 제약 요소를 조정
- 시공대상 요소를 글로 조사하고 프로젝트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중요부분을 마킹
- 공사항목별 예상절적의 확인
- 공사항목별 예상절적을 바탕으로 실제 공사비를 확정하고 관리 유지비를 예상
- 전체 공사기간을 확인
- 주요 도면은 1/50, 주요 디테일은 1/20의 스케일이 요구됨
- 상세설계 후 시공사 입찰과정을 거쳐 시공사 선정 시, 경제적 기술적 이유로 시공사가 대안을 제시할 경우, 프로젝트의 일관성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건축허가서류를 다시 작성한다.

4. 시공자 선정과 계약과정에서 발주처를 보조하는 업무

- 발주처와 함께 시공사 선정을 준비하고 입찰지원서를 분석
- 행정서류와 기술서류를 포함한 입찰서류(시공사 견적용 서류)를 준비
- 시공항목별 시공사 선정인지, 전체공사를 하나의 시공사가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각각의 경우에 맞도록 입찰서류를 준비한다.
- 입찰에 참가하는 시공사의 견적내용과 지원서를 분석하고 대안이 제시된 경우 그 기술적 해결안을 분석, 확하고 오류나 착오가 없는지 확인
- 시공사 계약을 위해 필요한 세세한 조정안을 준비

5. EXE, VISA : 실시설계, 시공사에서 제작한 실시도면과 자신의 설계안에 대한 일관성 검토 및 승인

- 모든 시공항목을 종합하는 실시도면의 제작
- 실시도면을 바탕으로 시공견적내용을 확인
- 모든 시공항목을 종합하여 공정에정표를 작성
- 실제로 실시도면의 제작은 대부분 건축가의 상세설계를 바탕으로 시공사에서 제작하고, 건축가는 그것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6. 시공계약의 실행에 대한 감독(감독)

- 설계한 의도에 맞도록 시공되는지와 시공품질에 대한 확인
- 시공사에서 제작하는 시공도면에 대한 확인과 승인
- 현장회의를 주도하고 시공여부에 대한 허가, 지시
- 시공진행상황, 공사견적과 공사비지출에 대한 정보를 발주처에 보고
- 시공사에서 제출하는 월간 견적 고지서와 최종 견적 고지서를 검토하고, 지불상황을 확인하고 발주처에 보고

7. 준공 검사 시 발주처가 시공사로부터 건축물을 수령할 때 발주처를 보조하는 업무

- 준공 검사의 준비
- 시공결과에 대해 지적이 있는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
- 발주처가 지적한 공사현장의 무질서한 부분을 조사
- 시공된 요소에 대한 도면과 서류, 사용설명서를 준비

8. OPC : 공사현장의 조율과 조정(읍션)

- 시공에 필요한 업무를 분석, 각 공정의 연계과정을 확인하여 공정표를 그려 최적화하여 작성
- 시공에 참여하는 서로 다른 시공사, 인부들의 코디네이션과 안전, 위생문제에 대한 감독
- 공사현장의 진행을 감독

9. 다음에 표시된 임무는 기본업무에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업무로 분류된다

- 발주처가 사용자 또는 일반인들에게 홍보 또는 정보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보조 업무
- 발주계약에 명시된 건축가 집단 외 다른 참여자가 수행하는 업무 또는 공사에 대한 조율이나 조정
- 설계기간 또는 공사기간동안 발주처와 서로 다른 참여자들과 협의하여 품질감독 다이어그램을 제작
- 현장에 상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일부 시공요소에 대한 특별한 모니터링
- 유지관리비의 확정, 관리 시스템의 제안과 더불어 공사비를 분석하여 제안한 건축적 기술적 해결안을 정당화 하는 것
- 내부 가구의 선택
- 환경 디자인(사인, 로고...)
- 건축물에 삽입되는 예술작품(공사비의 1%가 예술작품에 사용됨)과 관련한 발주처 보조업무
- 별도의 조경 프로젝트와 그 시공에 대한 발주처 보조 업무
- 제3자와 법적 갈등이 있는 경우 전문검사에 대한 발주처 보조 업무

이러한 건축가의 업무는 신축공사의 경우이며, 재건축 또는 인프라(토목)건축 시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기간은 비슷하다.

일단 법적인 부분은 매우 딱딱하고 접근이 쉽지 않지만 앞서 둘러본 일련의 프랑스 건축법 체계는 공공발주에서 각 단계마다 제출물의 내용과 도면의 스케일까지 명시하는 등 건축가의 업무범위를 법으로 상세히 정하여 발주처와 건축가 양쪽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

공공발주체계에서 건축가의 업무가 보호되는 것은 일종의 관행을 만들어 개인발주체계(건설사 또는 개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 마련인데, 프랑스에서는 특히 공공발주체계가 활성화 되어 있어 공공발주에 비해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프로젝트 수행조건이 열악해지기 쉬운 개인발주체계보다 건축가들이 참여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다음 연재에서는 프랑스의 공공건축사업의 발주절차와 설계 계약 시 설계비 산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1. La loi MOP, Le Moniteur, 2007-12
2. La loi MOP 12 juillet 1985, version consolidée, l'ordre des architectes (프랑스건축사협회)
3. Arrêté du 21 décembre 1993, Journal Officiel (프랑스 정부 간행물) du 13 janvier 1994
4. Les principes généraux de la dévolution de la commande publique (공공발주의 주요원칙들), l'ordre des architectes (프랑스건축사협회)
5. Guide de la commande publique d'architecture, CMP 2006 mise à jour mai 2010, l'ordre des architectes (프랑스건축사협회)
6. Médiation, MIQCP (Mission Interministérielle pour la qualité des constructions publiques) "공공건설의 품질을 위한 정부부서 간 공동 미션", 2006-09 numéro 14-1
7. Publicité et mise en concurrence (공공발주 공고와 입찰과정), l'ordre des architectes (프랑스건축사협회)
8. Le paiement des marchés publics (공공발주 영역의 지불), l'ordre des architectes (프랑스건축사협회)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지상강좌

Sustainable Architecture Academy paper lecture

필자 : 김광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원장
Kim, Kwang-hyun, HKIRA



1975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1977년 같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공부했으며, 1983년 동경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건축설계와 건축이론이 전공이다.

건축단체통합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건축단체통합을 주도하였다. 건축기본법과 시행령을 작성하였고,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총괄 참여하였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한국건축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건설교통기술

평가원 이사,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지식경제부 R&D전략기획단 지문,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원장,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해동일본기술정보센터 센터장, 대한건축사협회 영예이사로 있다. 1997년 한국건축가협회상(건축문화사옥), 2002년 대학건축학회상, 2005년 가톨릭 미술상 본상(성비오로필수교회 사도모후의 집), 2008년 한국건축가협회상(천호부활성당)을 수상하였다.

목차

- | | | |
|--|------------|-----------------------|
| 1. 지속가능한 건축과 도시 | 김광현 | 서울대학교 |
| 2. 친환경건축의 개념과 이해
친환경건축정책 및 친환경인증제 | 이윤하
김민철 | 생태건축연구소
국토해양부 |
| 3. 지속가능한 도시설계 및 단지계획
친환경적 토지이용 및 외부공간계획 | 이승일
이아영 | 서울시립대학교
(주)영중건축사무소 |
| 4. 패시브건축설계 및 에너지 시뮬레이션
액티브시스템 건축계획과 설비시스템 | 조 한
이웅직 | 홍익대학교
세명대학교 |
| 5. 고성능 파사드 및 외벽설계
친환경재료 및 자재적용 | 박기우
이선영 | 비정형연구소
서울시립대학교 |
| 6. 건축의 재활용 및 생애주기비용을
고려한 유지관리 | 이해욱 | 우송대학교 |

지구라는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인류에게 지구의 온난화와 에너지원의 고갈 등은 인류의 미래를 보장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몇 번의 오일쇼크와 오존층의 파괴 등 지구환경의 변화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니다. 세계적인 관심사가 이제야 친환경으로 모아지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건축계에서도 친환경 및 지속가능한 건축이란 명제가 화두가 된지도 몇 해가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구체적인 실천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로는 막연한 개념과 건축에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의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점도 적지 않다고 본다.

이에 「건축사」지에서는 우리협회의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건축강좌”의 내용의 일부를 선정하여 요약, 연재함으로써 친환경건축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 친환경 건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 지속가능한 건축과 도시

1. Sustainable Architecture and Urbanism

건축기본법이 시행령과 함께 발효되었으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이제 본격적인 건축정책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건축기본법은 건축을 통한 국민의 생활공간을 풍부하게 하고,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므로, 건축정책도 21세기를 여는 생활환경, 공간환경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건축과 도시의 현재는 어떠한가? 우리는 그 동안 하천을 복개하고, 녹지를 줄이며, 땅을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고, 거대한 건축물을 건설하고, 그 안에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며, 열기를 배출해 왔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현재의 우리 도시는 1) 경제 발전을 우선으로 여기는 도시정책, 2) 토지 소유권과 이용의 과도한 사유화, 3) 개개의 건축과 개발의 이익을 우선에 따른 빈약한 공공공간, 4) 도시환경의 유지 및 보전과 무관한 개개 건축물을 양산, 5) 도시계획, 건축, 토목, 조경 등의 지나친 전문화, 6) 건축 스톡과 자연자산의 방치, 7) 공공공간과 녹지의 네트워크가 결여되어 있다는 특징이 난 특징을 지녀 왔다.

흔히 건축은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여기지만, 오늘날의 지속가능한 사회에서는 건축은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고, 각종의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주요 요소라는 지적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을 감히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쉽게 대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최근 들어 '친환경건축'이라는 영역은 사실 건축가의 영역에서 익숙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환경을 전공하는 공학자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던 것이 점차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자, 건축설계를 하는 건축가들에게도 낮은 말이 되었고, 그 중요성을 점차 크게 인식하게 되었다.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에서 사회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20세기는 자원이 하드웨어였다면, 21세기에서는 그것에 대응하는 적절한 소프트웨어와 노하우로 사회의 건전한 운영과 운용을 살리는 프로세스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란 생산을 순환시키고, 소비를 줄이며, 시선의 수명을 늘이고, 지역 간의 배분을 적절하게 하는 사회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건물은 건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건물은 도시와 지역과 함께 그 전체가 지구환경의 일부인 것이다. 아름다운 도시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는 도시가 아니다. 아름다운 도시는 건강하고, 안전하며, 편리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를 말한다. 지속가능한 건축이란 Lester Brown의 말처럼 "이 환경은 조상에 계서 받은 유산이 아니라, 미래에 살게 될 아이들에게서 빌린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곧 환경의 문제를 미래에 이어질 '시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간의 관점에서 서서, 산업의 구조에 따르는 도시의 재생, 안정 성장 시대를 위해 만들어졌던 도시 인



[그림1. 청계천]

프라와 건축물의 스톡을 재생하며, 역사적 도시 및 건축환경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보전 등을 느린 속도로 다시 생각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건축이다.

OECD 국가의 에너지 총량의 약 30%가 건축 부문 등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은 건축이 환경 문제에 얼마나 중요한 관전을 쥐고 있는가를 말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건축물이 계속 지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건축물이 점차 감소하고, 그 대신에 이미 지어진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사실을 빨리 받아들임으로써, 신축보다는 장수명화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재활용, 재생, 전용 등에 관한 계획을 전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건축의 시간은 순환적이다. 생명체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는 것처럼, 건축도 기획, 설계, 건설, 이용 및 유지, 재생, 폐기라는 순환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이것은 단지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라이프 사이클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과 지역 커뮤니티와 직접 관련되는 건축물의 운용, 개수, 증축, 전용의 계획, 시공하는 시스템의 순환을 말한다.

흔히 건축은 대부분 30~40년에 다시 지어지고 있어 건축물의 수명이 매우 짧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이 된다. 그렇게 때문에 100년을 사용할 장수명의 구조와 재료, 완성된 후에도 계속하여 적절하게 유지 관리되는 건축설계, 건설산업과 기술, 법제도 등이 통합적으로 논의되고 실천되어야 가능하다. 특히 도시와 건축의 지속재생과 환경공생형 건축의 통합 디자인 및 성능 위주의 건축법 개정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이며, 무엇에 근거한 사회인가? 200년이나 300년 전후 하여 시장화나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생산이나 소비구조의 기본이 된 개념은 '물질'에서 '에너지'로 그리고 다시 '정보'를 지나 '시간'이라는 형태로 변천했다고 본다. 산업화 이전의 시장경제에서는 다양한 물질이나 물품이 활발하였다. 그러던 것이 19세기를 중심으로 산업화 또는 공업화를 통하여 석유나 전기 등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본격화하였으며, 20세기 후반부터는 '정보의 소비'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경제의 움직임은 글로벌한 방향으로 확대, 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경제 시스템이 진화하면서 사람들은 수요가 포화되어 감을 인식하게 되었고, 커뮤니티나 자연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지향하는 '시간의 소비'를 중시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앞의 단계가 그 다음 단계의 수단이 되었으나, 이제는 현재에서 충족하는 방향을 취하게 되었다. 그 결과, 글로벌한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로 로컬한 방향으로 그 틀이 바뀌고 있다. 건축에서 시간을 생각하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미래의 건축이라고 하면 젊은 세대가 잘 이해하는 기술로 전개되는 건축을 머리에 떠올린다. 그런데 미래 사회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한다.

우리는 지금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다, 각종 IT와 인터넷만이 아니라 디자인과 브랜드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으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정보화 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 또는 '정상형 사회(正常型 社會)'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지속가능한 사회가 지향하는 '시간'은 먼 미래를 말하는 것도 아니며, 근대건축의 공간적 특성을 설명하는 미학적인 시간도 아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생활이 전개되는 환경의 하나다. 공동체를 되찾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여가를 위한 시간, 느리게 사는 생활의 시간으로 대변된다. 따라서 이 '시간'이라는 가치는 나, 우리가 잃어버린 새로운 커뮤니티 감각을 되찾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사회는 테크놀로지적인 사회가 아니라, 고풍화 사회, 소자 사회에 해당하는 말이다.

친환경건축설계에 앞서 친환경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환경이란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건축은 단지 물리적인 환경을 적절하게 만드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흔히 환경이라고 하면 건축물보다 훨씬 넓고 규모가 큰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환경은 본래 '몸의 주변'을 뜻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람은 신체를 가지고 있고 이 신체를 통해서 물리적인 환경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 물리적인 환경은 다름이 아니라 건축이며 도시다. 따라서 건축과 도시는 단순한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라, 언제나 인간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인 환경이다. 그것은 사람의 신체를 둘러싸는 작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도시는 이러한 작은 친환경이 집적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얻을 수 있다.

친환경건축설계란 결국 기술에 대한 설계의 관계이며 해석이고 통합을 말하는 것이다. 그림에는 우리는 기술을 예전처럼 이해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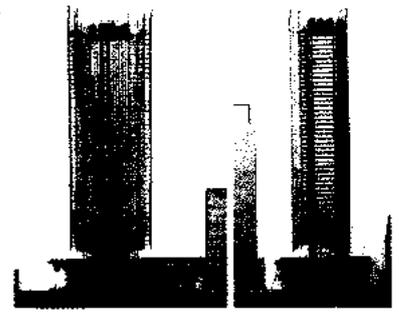
다. 그러나 건축에서 기술에 대한 생각을 독특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친환경설계를 올바로 해나갈 수 없을 것이다. 다른 기술과는 달리 건축에서는 건축을 만드는 기술 자체가 성숙하지 못했다고 그 건축물의 가치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그 도시를 매우는 모든 건물이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특정한 몇몇 건물은 최첨단의 기술로 지어졌다고 해도, 그렇지 않은 수많은 건물은 보통 기술, 예전에 이미 구사된 기술, 또는 성숙한 기술로 지어지고 또 그렇게 요구한다. 이 여러 가지의 기술을 건축은 필요로 하고 있다. 이렇게 건축은 다른 기술과는 달리 기술이 계속 발전하지 않아도 그다지 큰 위기를 느끼지 않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건축은 '문화'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는 기술처럼 성숙하여 멈추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기술은 성숙하면 문화로 남게 된다. 친환경건축의 기술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한옥의 대청마루는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사실 지내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한옥을 두고 기술상 떨어져 있다고 여기지 않으며, 계속 사용되고 또 계승된다. 이것은 바로 그 느슨한 구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고도의 문화자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건축은 다른 기술처럼 첨단의 고도 기술을 사용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건축은 본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원초적인 인간의 활동이다. 따라서 재가기 지역의 현장에 적합한 건축은 언제나 구체적인 대지와 그 주변 환경에 대응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 건축물을 계획하는 조건이나 그것을 만드는 기술을 어떻게 통합하는가에 따라 만들어진다.

첨단의 기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이 무언인가에 주목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작업이다. '하이테크'라고 하면 기본은 저 미래를 달리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정작 미래 사회는 기술만이 주도하는 사회가 아니라, 성숙한 사회, 정상적인 사회, 지속가능한 사회인 것이다. 그렇게 보면 첨단의 하이테크 기술이 디자인과 어떻게 결합되는가는 이차적인 물음이다. 성숙한 사회에서는 그에 맞는 건축과 도시를 만드는 기술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회의 기술은 성장기 사회의 기술처럼 바꾸고 갈아치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변하지 않도록 해 주고 인간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앞으로 주목해야 할 건축기술은 이제까지 축적된 것 위에서 다시 쌓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건축이 지나는 경로를 존중하고 그것이 지내는 문화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고유의 장소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기술이 성숙기 사회의 건축 기술이다.

렌조 피아노는 'New York Times Building'(2000) 계획안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이 바는 파사드의 약 절반을 덮지만, 창 부분은 제외하였다. 이른 아침은 푸르고, 바람이 심하게 불 때는 조금 추운



[그림2] 렌조 피아노의 'New York Times Building'(2000) 계획

듯한 색깔로, 그리고 해가 질 때는 따뜻한 색깔로. 나에게 이 건물의 매력적인 바는 건물이 생분처럼 말하는 것. 예를 들면, 조남 전과 같이 하늘을 비추는 것이었든지, 어떤 때는 부들부들 떠는 듯이 보이든지, 뒤흔 휘파람 소리를 내고 있는 듯이 하는 것이다.” 그에게 기술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 아니라, 건물을 생물로 만들어, 환경에 가까워지고 환경에 친숙하도록 만드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건축에서 첨단 기술은 이처럼 사람이 사는 환경에 응답하는 ‘느슨한 임계성’을 위해 공헌하는 것이다. 건축이 말하는 친환경설계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이런 것에 있다 할 것이다.

또한 21세기의 기술이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역의 커뮤니티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다. 친환경건축설계와 지속가능한 건축설계의 주제는 ‘로컬(지역)’이다. 이제 기술은 대도시 중심의 확대 성장이 아니라, 지속하는 지역과 사회를 향해게 될 것이다. 거주, 복지, 보건, 의료 등에 관한 지역시설을 네트워크화하고, 교육, 문화, 정보 시설을 각 지역에 균등하게 설치하며, 어린이를 포함하여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서로 다른 사람과 만나고 경험을 나누며 서로 다른 사람을 신뢰하도록 배우는 장소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커뮤니티가 창출되는 사회통합적인 디자인이 실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도시 안에 산재하고 분단되어 있는 건축시설, 공공공간, 녹지, 가로, 하천을 보전하고 네트워크화하여 도시를 재생하여, 기존건물과 잉여공간을 지역 커뮤니티의 공유자산으로서 정비하는 것이 앞으로의 건축적 과제가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건축정책은 자연의 유효한 활용, 에너지 절약과 CO₂ 가스의 감소, 오염의 최소화, 지역개발과 같은 사회적 기능의 향상 및 도시와 건축을 통한 도시 및 건축의 시스템을 개편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성의 문제의 성격상, 개별 요소 기술과 개별 대책이 아니라, 건축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한 정책 전체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디자인은 설계만이 아니라, 정책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지속가능한 사회에서는 이러한 개념의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중후장대(重厚長大)한 사회에서 경박단소(輕薄短小)의 인간적인 스케일에 근거한 사회로 바뀌고 있다. 그 결과 육중하고 거대한 가치 기준이 가볍지만 친숙한 인간적인 가치로 바뀌고 있다.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고갈형 에너지를 소비하던 사회에서 태양, 지열, 수소, 알코올 등의 자연·순환형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다. 신축·계속하든가 대량으로 폐기하던 소비형 건설사회로부터 한번 쓴 물건을 버리지 않고 다음에 또 이용하느니 순환 재용하고 보전하는 개수형 사회로 바뀌고 있다. 폐기지를 교체하는 하이테크 사회부터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여 수리하고 보수하는 로우 테크 사회로 바뀌고 있다. 효율을 중시하고 고속 대량 운송하는 제트기라는 스피드 사회로부터 슬로우 라이프 사회로 바뀌고 있다. 수직 사회로부터 수평사회 사회로 바뀌고 있다. 또한 전체주의로부터 자기주의(自己主義)와 지구환경주의로 바뀌고 있다.

올바른 국토환경을 조성해 가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시작하여 건축을 향하는 방식에 더하여 건축이 모여 도시를 만든다는 또 다른 방향,

곧 시민의 행위와 지역적 생활을 건축을 통해 구현하는 도시건축을 추구함으로써, 도로, 공원, 건축물이 분단되고 개별적으로 신축되어 온 도시와 건축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또한 농촌의 공간환경이 낙후된 오늘의 주거환경을 넘어서, 21세기 우리나라 순환형 사회의 근간이 되도록 하는 건축정책이 참으로 요구되는 때이다.

도시와 건축과 풍경 안에는 시간이 잠재해 있어야 한다. 그 중에 어떤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을 예상하고 지어지지 않은 건물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변화만을 거듭할 것 같은 현대의 도시 안에도 하천이나 철도, 도로와 같은 토목구조물, 공공시설이나 교통시설 등이 지속되는 공간환경이 요구된다. 그러려면 건축을 중심으로 역사적 건축물, 산업유산, 토목구조물 인프라, 나아가 지역풍경까지도 지역공간자산으로 소중히 여김으로써 도시의 스토크를 지속하는 것이다.

사회가 건축에 요구하는 바가 넓어지고 있다. 건축에서 도시로, 건축에서 기술로, 그리고 건축에서 환경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건축은 이제 하나의 단일한 건물이라는 관점을 벗어나 균을 이루고, 건축과 환경이 하나의 일체된 관계에 놓여 있음을 인식하라는 뜻이다.

친환경건축은 공학의 문제이고 기술의 영역으로 범위를 좁혀 이해할 일이 아니다. 친환경건축은 이제 문화로 확산될 것이며, 설계의 한 가운데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역에 연결되면서 인문학의 과제로 확대될 것이다. 그것을 위한 소중한 자료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인간적인 사실, 공동체가 지녀야 할 사실, 계속 지속해야 할 환경의 가치, 역사적이며 기억 속에 잠재하는 사회의 가치, 땅이 가져야 할 변할 수 없는 가치, 사람이라면 응당 갖게 될 수밖에 없는 무언가의 가치, 중력이나 토질, 바람, 물의 흐름과 관계하는 불변의 원칙, 각 사회의 계층이 공간을 통해서 언제나 바라는 바를 기술로 바꾸는 것이다.

21세기는 과거의 시장경제, 산업화 시대를 넘고, 정보화 시대를 거쳐, 시간은 중시하는 지속성의 사회로 바뀌고 있다. 이 지속성의 사회라 무엇인가? 그것은 환경을 쉽게 바꾸지 않는 사회, 성장을 위해 쉽게 불변의 가치를 내놓고자 하지 않으려는 사회, 기술을 날개로 보지 않고 서로 묶인 것으로 보고자 하는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가치를 향해 모든 것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회를 말함이 아닌가? 건축이 도시와 잘 구별되지 않고, 조경과 건축이 구별되지 않으며, 기술과 건축이 통합하여 나타나고, 인간의 생활을 그대로 표현해 내고, 지역사회에 충실한 건축이 요구되는 현상이 이미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 ■



[그림 3. Temporary Bicycle Storage Amsterdam, Netherlands, 2001/VMX - Architects]

ARCHITECTURE TRAVEL



조흥래 동아대학교 건축학부
by Jo, Heung-rae

2010 도쿄모도 코리아 디자인 공모 '입선'
2010 태양열학회 친환경 건축 공모전 '가작'
2010 건축학회 주관 학생공모전 '우수상'
2010 경기도 건축대전 '동상'
2010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대상'

2010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건축물부문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건축탐방에서 참가자를 대표하여 필자가 건축기행문을 게재했다.

과거와 현재의 접점에서 미래를 보다

중국 서안 기행문

Seeing Ahead Future at Interface Between Past and Present
- Travelogue of China, Xian

2010년 한국건축문화대상의 중국 대륙으로의 초대는 한 학기동안 좁은 학교 설계실에서 보낸 우리들에게 더 없는 건문의 기회이자 새로운 모티브의 충전의 장이었다.

27일 새벽1시 부산발 인천공항행 버스에 몸을 싣고 5시간을 달려서야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8시에 모여야 했기에 남은 시간 공항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잠시, 어느덧 약속시간이 되어갔다. 그리고 약속장소인 13번 출구에 건축문화대상이라는 뜻말과 함께 하나둘씩 모이

기 시작했다. 팀원의 사정으로 이번 답사를 혼자 참여하게 되어 여행 중 어떻게 보내야 될까 긴장했지만, 프레젠테이션 당시 날카롭게 질문하시던 권연하, 고운영 심사위원님들이 오히려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고, 협회 이규식 팀장님의 인솔로 화기에애하게 출발 할 수 있었다.



[그림 1. 서안 역사 박물관]

이륙 후 당시 혼란스러웠던 서해를 건너 황토빛 끝없는 평야를 지나 함양 국제공항에 도착 했다. 공항은 예상 외로 전속한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다. 공항청사도 현대식으로 건축하였고 아직도 일부 건설 중에 있었다. 대국답게 지은 공항이었다. 공항에서의 놀라움도 잠시 가이드를 만나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중국의 오염된 대가 환경과 한국에서의 쌀쌀했던 날씨와 다르게 포근한 날씨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기내식을 먹긴 했지만 아침을 먹지 못해 배가 고팠던 우리를 위해 바로 중국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실내에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들려오는 중국인들 대화와 회전식 테이블 그리고 향이 강한 중국음식을 먹으며 비로소 중국에 도착한 것을 느꼈다. 식사 후 차, 사람, 자전거의 구분이 없는 중국의 엄청난 교통난에 행여 사고라도 나지 않을 까라는 불안한 마음에 가슴을 풀이며 붉은 간판과 한자로 장식된 지리를 이동하면서 섬서성 역사박물관에 도착 할 수 있었다. [그림 1]

서안지역에서 현대화된 1급 박물관이라는 섬서박물관은 생각보다 잘 정리되어 있었으며, 국립경주박물관과 건물모습이나 느낌이 아주 비슷하게 다가왔다. 간혹 마주치는 한국 관광객들과 중국 현지 관광객들이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자 붐비고 있었다. 짧은 시간동안에 전시되고 진열된 것만 보는 것으로는 무리가 있었지만 진지하게 보고 듣는 시간을 즐겼다.

이후 대안탐으로 이동했다.[그림 2]

서안시의 상징이기도 한 이 곳은 중국에서 유명한 불탑 중 하나로 삼장법사 현상이 조정에 건의하여 세운 탑으로 인도에서 불도를 닦고 돌아와 밍어로 된 불경을 중국어로 번역 했는데, 그 보존 장소가 나뎠지 않아 전립을 전의하여 지어진 탑이다. 7층의 누각식 전탑으로 총 64m, 기반부 둘레는 25m로 화궤 등으로 인해 몇 차례나 다시 지어 졌다. 특히하게도 벽돌로 지어져 있었다. 한국의 조형적미가 익숙한 우리에게는 약간은 투박하고 어색 할 수 밖에 없었지만 그 규모나 잘 구획된 서안 시에서의 주변과의 조화는 무척 인상 깊었다. 도시를 훑는데 볼 수 있다는 말에 탑을 오르고 싶었지만 다음 답사일 정상 사신으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다.

정신없이 인천을 떠나 중국 서안에서의 두 답사지를 둘러 해가 지고 저녁을 먹고 나서야 숙소로 도착 할 수 있었다. 첫날은 주변의 불안한 치안사정과 피로로 호텔에 머무르며, 내일 답사할 진시황릉과 병마용에 대한 기대로 고단했던 중국에서의 첫날은 저물었다.

첫 날의 피로가 가지지 않았지만 어찌보다 많은 거리를 이동하는 일정에 아침부터 서둘러야 했다. 호텔에서의朝食 후 또 다시 차에 올랐다. 이틀날 첫 방문지는 양귀비가 목욕을 했다던 화청지[그림 3]로서 온천으로 유명하다. 역사기록에 의하면, 이곳의 온천은 대략 3000년 전의 서주시대에 발견되었다. 한나라 시기에는 이곳에 황제와 귀족들의 행궁을 건설했다. 당나라 때에는 웅장하고 호화로운 '화청궁'을 지었다. 역대로 계속된 전쟁을 거쳐 원래의 건축은 모두 허물어졌다. 지금의 건축물은 모두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 1959년에 다시 지은 것이라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원래의 장소 위쪽에 가리는 물건이 없어 목욕 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다고 하여 그 이름을 얻었다. 성전탕 뒤로는 예전 온천의 수원이 있다. 귀비자를 나와서 앞으로 가면 망호로

들어가며, 먼저 화회지를 보고 난 후 비하각을 거치는데, 전설에 비하각은 양귀비가 목욕 후 경지를 즐기며 머리를 맡겼던 곳 이라고 한다.[그림 4]

중국 사람들도 지금은 양귀비가 못생겼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통통한 여자가 미인이었다는 가이드의 설명에 웃음을 뒤로하고 다음 답사지인 진시황 지하궁전으로 향했다.

사실 이곳은 실제의 지하궁전이 아니라 실제 지하궁전이 얼마나 크고 화려한 규모로 만들어졌는지 보여주는 모형전시관이었다. 지하궁전이라 어두운 실내에는 지하궁전의 모형이 있었는데 실로 엄청난 규모의 모형으로나마 중국 최초의 황제인 진시황의 권력을 느낄 수 있었다. 지하라 습하고 답답했던 전시관을 나오니 벌써 점심시간 때가 되었다. 점심은 중국이 서툰인 만두를 먹으러 갔는데, 최초라는 기대와는 달리 중국 특유의 향에 여행 내내 항상 힘든 식사시간을 보내며 고추장에 입맛을 달랬다.

힘든 식사시간을 보낸 뒤 다음 답사지인 진시황릉 앞[그림 6] 광장에 도착하였다. 내리면 바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역시나 대륙은 대륙 관광로를 따라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버스를 타고 한참을 더 들어가야 했다. 거기서 다시 도보로 황릉정원을 걸어 들어가서야 황릉 앞에 도착할 수 있었다. 처음 본 진시황릉은 높이가 73m에 이르러 규모가 엄청나서 여산 기술에 자리한 또 다른 산처럼 느껴졌다.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후대의 관광 자원을 위하여 아각 발굴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황릉 주변의 광활한 파수원과 논밭을 보면서 다음 목석지인 병마용으로 발길을 돌렸다. 황릉으로 부터 병마용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였다. 커피한잔을 하며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걸어 짐서 후 거대한 몇 동의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림 7]~[그림 10]

"진(秦)나라의 병사는 죽지 않았다. 다만 진나라만 망했을 뿐이다"라는 말을 책에서 본적이 있다. 토용으로 아직도 살아있는 듯 한 병마용 책에서만, TV에서만 봤던 것이 이제 눈앞에 온 것이다. 우선 출토 규모가 가장 큰 제1호 진시황무덤이 둘러 왔다. 엄청난 규모에 압도당하고 이후 그 섬세함에 또 한번 놀랐다. 병마용 하나하나가 실제 사람 크기와 하나하나 다른 얼굴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어떤 민족인지까지 알 수 있다고 한다.

정말 실어서 위협할 것만 같은 위용이었다. 지금은 시간에 의해 색이 바랜



[그림 2. 대안탐]



[그림 3. 화청지]



[그림 4. 화청지 비하각-양귀비가 머리를 맡겼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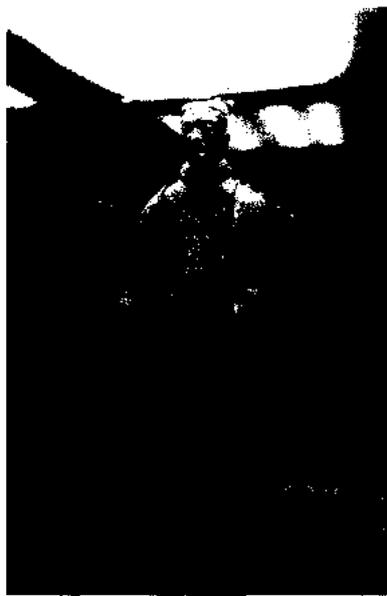
[그림 5. 진시황릉 지하 궁전]



[그림 6. 진시황릉, 무덤이러기 보다 산에 가깝게 느껴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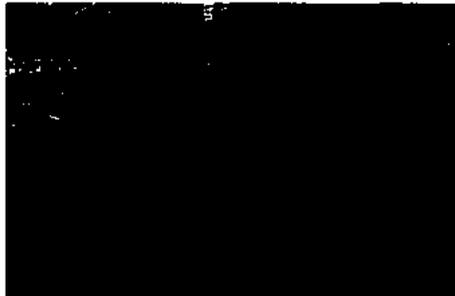
[그림 7. 병마용 전시관 입구 광장]



[그림 9]



[그림 10. 아직 발굴 중인 병마용]



[그림 8. 병마용의 위용]



[그림 11. 필로군 서안 번사소 기념관]

지만 만들 당시에는 채색까지 되어 있어 당시의 장인들의 노력과 섬세함을 느낄 수 있었다. 2000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병마용의 발굴이 시작되면서 햇빛 노출과 산화, 발굴 기술의 부족으로, 많은 훼손의 이유로 중국은 20여 년간 발굴을 중단했다가 작년부터 재개하였다고 한다. 제2전시관의 어두컴컴한 전시관속에는 많은 종류의 도용과 도마들이 있었으며, 현재 발굴하고 있는 것들도 있었다. 제3전시관은 규모가 좀 적었으나 병사와 말들이 있었다. 그곳은 군진의 지휘부라 했다.

이렇게 한참을 감탄사만 연발한 후 문화재의 가치에 대해서 새삼 깨닫게 되었다.

병마용갱 박물관을 나서는 순간 도로변 가에 박물관과 출입도로를 따라 차단하는 담벼락에는 중국인 삼상인 몇 명이 매달려서 박물관 정문을 나서는 우리들을 저만치 떨어뜨려서 물건을 사줄 것을 애원하고 있었다. 부르는 물건 가격이 몇천원에서 반원 이하였다. 우리가 그들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그 물건을 안 사주고는 박물관정문을 나올 수 없는 지경이었다. 한국에서 기다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몇 개의 기념품 가격을 흥정을 통해 구입할 수 있었는데, 상인이 부르는 첫 가격에 깎고 또 깎아서 1/5가격에 살 수 있었다. 바가지 쓴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싸게 구매 한 것 같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많은 도보 이동과 부담스러운 현직식으로 허기가 졌다. 오늘 저녁은 삼겹살, 그렇게 삼겹살과 김치가 반가울 수 없었다.

오랜만에 허기진 배를 달래고 속으로 이동했다. 이제는 조금 중국이 익숙해졌는지 모두 바깥구경을 나갔다. 한참 개밥 중이라 여기저기 공사 중인 중국거리의 익숙한 한국자동차들을 보며 우리는 호텔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마트로 향했고 오늘 저녁을 위해 다과를 준비했다.

이후 다시 속으로 이동 후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식사위원님들과 여행을 간 다른 학교 학생들과 못 다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같이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들로써 건축이라는 공감대로 우리를 더욱 묶어 주었다. 이렇게 바빴지만 혼곤했던 둘째 날은 지나갔다.

셋째날 조식 후 항일운동의 정신이 담긴, 필로군 서안번사소기념관을 [사진 11] 찾았다. 해방이후에 건설된 전쟁기념관으로 항일전쟁 당시의 혁명군

거저이다. 이곳에는 공산당 설립이전부터 항일전쟁 전후까지의 현대사가 겹쳐진 역사적인 곳이다. 서안역변의 혁명공원 옆에 있으며, 걸으려는 독일 치과의사의 병원인척 하면서 실제로는 연안에 들어오려는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발행해 주는 곳이었다. 주은래, 주덕, 등소평 등 공산당 간부들이 묵었던 곳이기도 하며,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작품의 저자인 미국의 저널리스트 '에드가 스노'도 이곳에서 묵었다. 1935년 10월, 모택동이 이만오천리장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연안에 입성하면서 연안은 중국혁명의 총사령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강제적으로 서안을 섬서성과 감수성 침공의 주요기지로써 사용하게 된다. 항일전쟁이 발발하기 전, 공산당의 항일민족통일전쟁 정책의 영향아래 전국 항일운동이 고조되면서 국민당의 동북군과 서북군이 발병하는 '서안사변'이 일어나고 이어 모택동과 장개석의 제 2차 국공합작이 진행되면서 농공민들의 홍군이 집합한 '홍군연락처'가 집결된다. 이 기관은 이후 1년 뒤에 이름을 '필로군서안만사처'로 바꿨는데, 이곳은 공산당의 항일운동의 거점이 되었다. 외부에서는 하나인 듯 보이는 건물이었지만 내부에서 각 채로 나뉘어져서 것이 재미있었고, 중국의 근대역사의 장소를 보며 우리의 아팠던 과거 역사가 떠올랐다.

속연한 마음을 뒤로하고 다음 답사지는 명대 성벽이었다. 급변하는 중국에서 현재와 과거의 공존이란 말이 실감이 가는 답사지였다. 주변의 도심부와 과거의 성벽이 어우러지면서 멋진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명대성벽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14세기 명나라에 의해 조성된 고성인 성벽은 현존하는 중국의 성벽 중 가장 보존상태가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동서남북의 4개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주변에는 넓고 깊은 호성화가 흐르고 정문에서 시작되는 경로를 가로지르는 조교가 놓여있다. 1982년 7월에는 섬서성정부의 주창아래 서안시민 몇 십만 명이 힘을 합쳐 특정한 풍격의 환성공원을 조성했는데, 성 정상부분에는 조그마한 화원을 여러 개 만들어 놓았다. 한국의 성벽과는 다르게 석벽 위는 상당히 넓었다. 폭 15m로 자전거나 전기차를 빌려 둘러 볼 수 있게 했다. 우리는 자전거를 빌려 성벽 위에서의 색다른 하이킹을 즐겼다. 안성벽은 단지 역사적인 건축물의 의미를 넘어서 공원과 성, 길, 물이 어우러진 공원이 조성됨으로서 더 큰 의미를 가져는 듯 했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며 홀렸던 밤을 식히며 비림[사진 13]으로 향했다. 1087년 북송 철종 2년에 세워졌다. 현재 한(漢)대부터 청(淸)대에 이르기까지 각 조대의 비석과 1천여 개의 묘비가 전서되어 있는데, 비석들이 모여 마치 숲을 이룬 것 같다 하여 '비림(碑林)'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개성 석경은 114개의 석권에 유교경전 13경(655,025자)을 조각한 것으로, 명사들의 진적비 등이 집중되어 있다. 비림은 중국 고대 서예 예술의 보고이자 고대 문헌서적과 비석의 조각 도안 등이 집대성되어 있는 곳으로, 대외 문화 교류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유적지이다.

비림을 보고 나와 담을 끼고 호젓한 길을 따라 조금 걸다보면 전형적인 중국풍의 거리가 나오는데 이 거리가 바로 중국 4대 유명한 서체, 서책 및 문방사우를 파는 서안의 명물거리인 문서거리였다.

예전엔 이 문서거리가 흥했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방문한 때는 이상하리만큼 한산했고, 서책이나 문방사우를 파는 상점은 드물었다. 대신 잡화상이 거리 가운데로 죽 늘어선 있어 문서거리란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가이드의 특별한 설명 없이 짧지만 자유 시간을 주어 나름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며, 늘어선 서책이나 문방사우 관련 상점은 건성건성 거웃거리다 이내 잡화상 쪽으로 눈을 돌려 신나게 구경하고 간단한 물건도 한참동안 재미나게 흥정한 후 사가지고 온 문서거리답지 않은 문서거리였다.[사진 14]

그리고 우리의 인사동과 비슷한 풍경의 이슬란거리로 향했다. 이곳은 먹거리 위주의 거리로 동서양 실크로드 시작점의 시안 위치상 동서양 문물이 뽐뿌뽐뿌 다채로운 분위기를 자랑하는 거리였다. 이 소규모 회족거리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양고기 요리가 주류 이으며, 각종 꼬치 전병 중국식음 식음을 만날 수 있었다.

이후 거리 내어 있는 고씨정원으로 향했다. 이곳은 벽돌과 나무로 지은 전통적인 사찰원으로 서주면적은 2,310㎡에 달한다. 고씨정원은[사진 15] 명, 청시대 건축과 예술 조각, 전통민가의 모습과 각종 생활 풍습을 볼 수 있었고, 티베트불교의 탕카 제작과 섬시성의 민간 공예인 종이공예, 피영극(가죽

으로 만든 인형 그림자극)을 볼 수 있었고 우리 한옥에서 볼 수 없는 또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해가 저물어 서안 시내로 향했다. 서안시내는 3,000만 명이 있는 시답게 상당히 붐볐다. 시내에서 이제는 조금은 적응된 중국 현지 식을 먹은 후 시내구경에 나섰다. 백화점과 패스트푸드점처럼 눈에 익은 간판들이 눈에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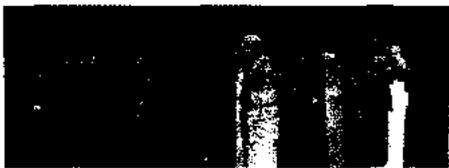
조금 걸어서 한지피숍에서 우리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와 지금까지 본 것들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다. 이후 피로누적으로 숙소 도착 후 중국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숙면으로 보내야 했다.

마지막 날 아침, 우리는 건축관련 동영상 시청 후 짐을 챙겨 차에 올랐다. 마지막 답사지인 실크로드 시작점보기 위해서다. 고대 유럽으로 통하는 무역로인 실크로드가 시작된 지점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곳으로 개척자 장군의 조각상 등을 볼 수 있는 썰빙하가 그지없었던 실크로드 시작 점[사진 16]이었다. 하지만 시작점이라는 의미와 여행의 종착점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을 더했다. 3박4일간, 이제는 점점 익숙해지는 중국식안을 뒤로하며 항항으로 향하였다. 3박4일 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지만, 건축이라는 공간대로 서로에 대하여 알아가고 함께 할 수 있어 뜻 깊은 답사가 되었다.

중국 답사를 통해서 우리와 다른 문화와 사람들을 만났고, 결국 우리 건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답사가 되었던 것 같다.

큰 도시를 3박4일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느끼기에는 짧을 수 있었지만 아무 사고 없이 답사를 마치게 되어 다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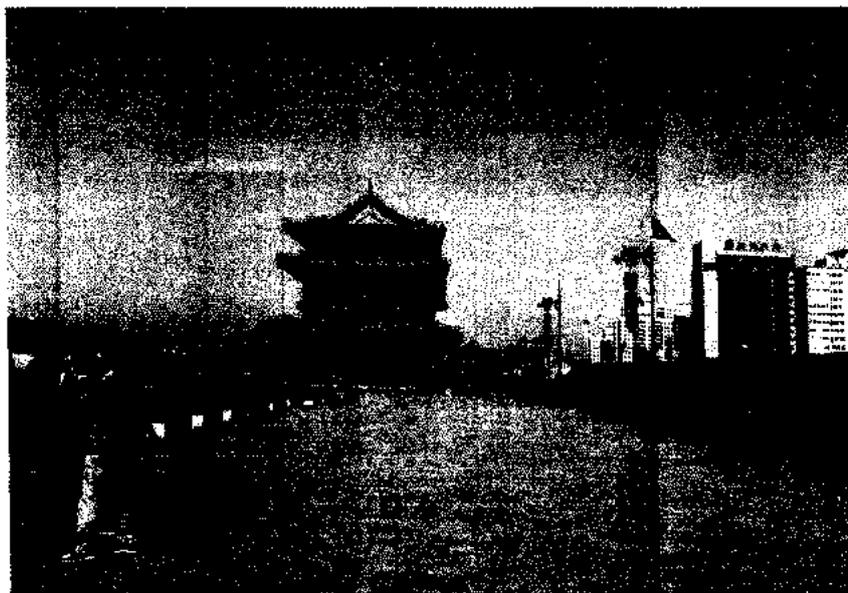
소중한 답사를 계획해주신 대한건축사협회, 답사 기간 중 많은 것을 알려주신 권언하, 고은영 심사위원님들과 인솔해주신 이규식 팀장님, 그리고 앞으로 건축계를 이끌어갈 건축 동기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



[그림 13. 비림]



[그림 14. 문서거리]



[그림 12. 명대성벽]



[그림 15. 고씨정원]



[그림 16. 실크로드 시작점]

소식

NEWS

협회소식

제12회 이사회

2010년도 제12회 이사회가 구랍 15일 오전 10시 30분 우리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부의안건으로 제45회 정기총회 일자 결정의 건, 예산 목간전용 승인의 건, 2010년 세출예산 이월의 건, 2011년도 1~2월 임시예산안 승인의 건, 특별회원 입회 승인의 건, 건축사 설계 대가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승인의 건, 건축자재추천 업무규정 개정의 건, 2017 UIA총회 유치관련 FKA 추가분담금의 건, 인사규정 개정의 건,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개정의 건, 직원 승진 임용의 건, 친환경건축연구원 운영규정 개정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제45회 정기총회 일자 결정의 건
- 제45회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함.
· 일 시 : 2011년 2월 25일(금) 10시
- 제2호의안 : 예산 목간전용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화물관리비(시설관리비→제세공과금) : 5,000,000원)
- 제3호의안 : 2010년 세출예산 이월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법제도개선사업비 이월금액 : 21,000,000원)
- 제4호의안 : 2011년도 1~2월 임시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특별회원 입회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특별회원 입회대상자(2인))
- 제6호의안 : 건축사 설계 대가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 승인의 건
- 의결주문의 내용 중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연구기관 : 대한건축학회 → 대한건축학회 또는 국토해양부가 추천한 기관
· 용역비 : 2010예산(15,000,000원) → 2010집행(15,000,000원)
· 용역비 : 2011예산(35,000,000원) → 2011이월집행(35,000,000원)

- 제7호의안 : 건축자재추천업무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8호의안 : 2017 UIA총회 유치관련 FKA 추가분담금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명칭문제는 별도로 논의하기로 함.
- 제9호의안 : 인사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10호의안 :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개정의 건
- 문화홍보실 정원은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 제11호의안 : 직원 승진 임용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12호의안 : 친환경건축연구원 운영규정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하되, 별표 II(조직표)는 참고자료로만 명시하기로 함.

위원회 개최 현황

■ 제2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2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구랍 1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약 40억원 수준의 실행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하고 우선, 법제위원회 등 3개위원회 위원장(또는 담당이사)을 차기위원회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기로 함.

■ 제3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3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구랍 2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국제위원회와 문화홍보위원회 2011년도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실명과 의견을 듣고, 해당 사업 예산편성방안에 대하여 협의함.

- 국제사업비와 건축영화제 사업지원은 협회 재정상황과 2011년도 실행세출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급년도 수준을 유지기로 삼정 협의
- 건축문화신문 발행사업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부산 "건축사신문"과의 통합문제 등에 대해 차기 회의사 논의하기로 함.

■ 제4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4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구랍 29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2011년도 일반회계와 건축연구원특별회계 사업계획 예산안을 1차 축소·심의하여 예산액을 중감 조정하고 차기회의에서 계속 심의하기로 함.
- 건축사지 및 건축문화신문 원고료를 회원에게 미지급 하는 것으로 하여 원고료 감액
- 발송방법 변경(회원: 개인별 발송 → 지역건축사회로 발송 배부) 하고 발송비 감액

■ 제10회 제3법제도개선위원회

제10회 제3법제도개선위원회 회의가 구랍 2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1 및 별표7 개정(안)의 건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7의 감리사 등급에 건축사예비시험을 합격한 자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호 : 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자금운용계획안 작성자침 및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개정(안)의 건
 - 각종 심의비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바 세부적인 내용을 이동우 위원이 검토하기로 함.
- 제3호 :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 세부기준의 건
 - 현상설계의 규모에 따라 보상기준, 제출도서의 양, 심사위원구성 및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필요한바, 이동우 위원 및 김상길 위원장이 위원회(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8회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운영위원회

제8회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운영위원회 회의가 구랍 2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학사관리세칙 개정의 건
 - 교육생의 지각 및 결석에 대한 학사관리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교무회에서 재논의 후 차기 운영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함.

■ 제5회 정관개정검토위원회

제5회 정관개정검토위원회 회의가 구랍 2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정관개정(안)의 건
 - 협회발전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함.

■ 제1회 회관관리위원회

제1회 회관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회관 하자보수공사 소송 주인의 건
 - 하자보수공사 소송 진행은 1차적으로 자문변호사(김주덕)에게 시공사(넬름건설)를 상대로 하자보수비용 청구관련 문서발송을 의뢰하기로 하고, 추후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변호인선임 및 보수 등을 별도 협의하기로 함.
 - 감정인 신현기 건축사가 제출한 감정보고서를 검토하고 남흥건설에 발송될 하자보수비용 청구문서에 첨부토록 함.
- 제2호 : 예식사업자 선정의 건
 - 현 예식업체(결혼도움방)와 재계약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억2천만원 선납, 시설이용료로 연간 1억4천만원을 분기별 후납,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제시하여 협의 결정토록 함.
- 제3호 : 건축사공제조합 사무실 임대차 약정의 건
 - 건축사공제조합과의 임대차 약정은 조합 창립출범일(2010.12. 6)을 기준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됨.
 - 건축사공제조합의 임대료 등의 신정 기산일은 공제사업이 협회의 숙원사업이고 그동안은 준비단계이므로 공식 출범일을 기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공감함.
- 제4호 : 2011년도 회관관리예산 심의 건
 - 2011년도 회관관리예산의 시설관리비 예산 내용을 일부 조정하고, 다만, 일반회계 전출금 3억5천만원은 차입금상환이 우선임에 따라 2억5천만원으로 조정하는 의견을 예산편성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 제1회 선거관리위원회

제1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임원 선거사무 추진일정의 건
 - 본협회 제29대 회장선거 및 2011년 감사선거의 추진일정 중 일부 문구와 일정을 조정하여 확정함.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명단과 선거 추진일정 예고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토록 함.
- 제2호 : 임원 선거사무 세부사항의 건
 - 임원 선거사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협의 결정함.
 - 선거공고는 2011. 1.18(화) 본 협회 및 시도건축사회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함.
 - 후보자 등록은 2011. 1.18 ~ 1.24 기간동안 등록받기로 하고, 선거인의 중복추천은 허용하지 않음.
 - 선거공보 인쇄물 사양과 관련하여 A4규격 양면 1매로 제한하고, 기타 용지사양, 사진규격, 원색인쇄 등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함.
 - 선거기탁금은 후보자별 100만원씩으로 하고, 선거종료후 비용을 정산하여 반환키로 함.
 - 선거홍보에 있어 관례와 같이 개별 선거홍보, 정기간행물 광고는 허용하지 않되, 인터넷 및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홍보는 허용함.
- 제3호 : 회원 질의사항 검토의 건
 - 회원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자문번호사의 자문내용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며, 선거운동에 대해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고, 다만, 선거운동에 대하여 좀 더 강화된 규제 등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연합의 가장 의미있는 일은 UIA(국제건축사연맹) 2017년 세계대회를 서울에 유치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와 MOU를 체결한 일이며,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일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우리는 건축의 사회적 인식과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의 전략을 바르게 세워 글로벌 스탠더드로 새롭게 무장하고 건축의 현실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건축의 협의적 해석과 분화가 아니라 광의적 영역의 진출을 위한 연합과 통합과 융합의 개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취임사에서 이상림 회장은 "2011년에는 다음 3가지에 중점을 뒀다. 첫째 전 세계에 한국건축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하며, 둘째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소통, 셋째 건축계의 통합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회장은 "내년에 아시아의 역할과 한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제가 UIA회장에 출마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 UIA본부를 서울로 이전시키고, 130만 전세계 건축인들의 희망을 결집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UIA 총회 서울유치와 상반될 경우 주저 없이 회장 출마를 거들 것이다."고 덧붙였다.

공식적인 이·취임식이 끝난 후 건축인들은 리셉션을 갖고 한 해를 마감하며, 덕담을 나누는 등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취임식에 앞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을 초청, '신동북아시아의 한반도 통일-건축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건축정책포럼을 개최했으며, 그동안 대한건축학회에서 주최하던 건축정책포럼은 앞으로 FKA의 주최로 개최할 예정이다.

협회소식

FIKA 대표회장 이·취임식 개최 대표회장에 한국건축가협회 이상림 회장 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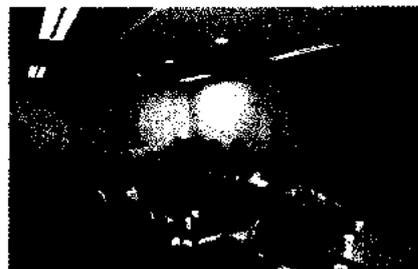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대표회장 이·취임식이 구랍 20일 우리협회 1층 대강당에서 300여명의 건축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이·취임식은 1년간 대표회장으로

단체를 이끈 우리협회 최영집 회장이 이임했으며, 한국건축가협회 이상림 회장이 새 대표회장에 취임했다.

최영집 회장은 FIKA 대표회장 잔여임기를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FIKA 운영규약을 개정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가 공평하게 대표회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운영규약에 의하면, FIKA 대표회장은 1월 1일부터 임무를 개시하며, 임기는 1년이다. 최영집 회장은 이임사에서 "올해 한국건축단체연합은 국내 각종 건축문화행사를 총정리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축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도에서 건축단체들이 합심하여 건축문화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는 것을 보았다."고 밝히며, "올해 한국건축단체

대전건축사회, 5개구 간담회 및 신입회원 교육



대전광역시건축사회(회장 손근익)는 지난해 11월 17일 대전광역시 및 5개구 건축담당과의 간담회를 갖고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한 상호 토의와 5개구의

건축행정 처리 시 일원화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관관계자들과 지역건축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구랍 9일에는 2010년도 대전건축사회에 입회한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직 사업자의 일반적인 직무교육과 함께 협회의 조직, 운영, 동호회 등에 대한 설명을 가졌다.

충남건축사회, 신입회원 간담회 개최



충청남도건축사회(회장 신우식)는 지난 구랍 13일 충남건축사회 회의실에서 14명의 신입회원과 신입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신

우식 회장은 “지금까지 충남건축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던 계기와 앞으로 우리 건축사가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 전문가로서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리가 사회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우리의 능력을 키워야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건의 및 애로사항을 토론하며 건축사회의 위상제고와 꿈과 희망을 얻어가는 충남건축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충남건축사회, 베트남 호찌민시건축사협회와 국제교류



충청남도건축사회는 구랍 20일 베트남 호찌민시 건축사협회에서 콩 반 무이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국제교류를 갖고 앞으로 양 단체의 상호 방문 장려화, 건축문

화재 참석, 양 단체의 회원 작품전시, 건축사·교수·학생의 상호교류, 학술·기술교류를 위한 세미나, 출판서적의 자료 및 정보제공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할 것이라 합의했다.

이에 충남건축사회는 호찌민시건축사협회와의 국제교류를 통해 건축문화발전에 도움이 되는 국제적인 여건을 만들어 가사고 다짐했다.

21일에는 베트남 호찌민시에 있는 부회장(뎀) TTT 설계사무소를 방문하였고, 22일은 부회장(형) 아브이 설계사무소를 방문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향후 양 단체 간의 상호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번 협약으로 건축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며 양 단체간의 능력과 가치의 육성으로 건축문화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충남건축사회는 2009년 호찌민시건축사협회와 국제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작품집 『KOREAN ARCHITECTURE 2009』 판매



대한건축사협회는 2009년 건축문화대상 및 작품들을 집대성한 『Korean Architecture 2009』를 발간하고, 판매한다.

일반인은 5만원이며, 사전신청자 및 회원에 한해 3만 5천원에 판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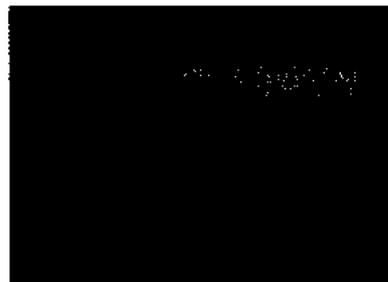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02-3415-6862~4

**KOREAN ARCHITECTURE 2010,
『건축사지 통권 500호 기념 별책』
사전 신청 안내**

대한건축사협회는 2010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해외진출 건축작품 사례 등을 수록한 『KOREAN ARCHITECTURE 2010』과 건축사지 통권 500호 발행을 맞이하여 반세기 한국건축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동안 게재된 칼럼, 논문, 시론 등을 발췌해 수록한 『건축사지 통권 500호 기념 별책』을 한정 발행한다. 사전신청을 통해 제작실버로 널리 보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란다.

- 도서명 : 『KOREAN ARCHITECTURE 2010』 『건축사지 500호 기념 별책』
- 발행시기 : 2011년 1월말
- 사전신청 가격
 - 『KOREAN ARCHITECTURE 2010』 / 4만원
 - 『건축사지 500호 기념 별책』 / 2만원
 - 2권 세트로 신청시 / 5만 원(발송비포함)
- 접수방법 : 신청서 송부 및 은행계좌 입금(본 협회 홈페이지 참조)
- 입금계좌 : 제일은행 436-20-178073(예금주 : 대한건축사협회)
- ※ 입금시 반드시 성명 및 지역 기재 (예 : 홍길동 부산)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02-3415-6862~4

2010 건축 법령집 판매



우리협회는 건축업무를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을 3단 대조식으로 편집하고, 건축관련법령 및 기준을 담아 『2010 건축법령집』을

발간·보급한다.

발송료를 포함하여 1만 5천원에 판매하며, 구매희망자는 입금 후 입금증과 구매신청서(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를 팩스(02-3415-6899)로 보내면 된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제도팀, 02-3415-6834

건축계소식

서울반세기종합전 II '강남 40년:영동에서 강남으로' 특별전

서울역사박물관(관장 강홍빈)이 '서울 반세기 종합전' 일환으로 오는 2월 27일까지 '강남 40년 : 영동에서 강남으로' 특별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강남이 형성된 과정과 현재의 강남을 다양한 이미지와 스토리로 비교하고 정리한다. 개발 이전 한적한 시골이던 '영동'의 모습과 넘쳐나는 강북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남서울계획', '새서울백지계

우식 회장은 “지금까지 충남건축사회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던 계기와 앞으로 우리 건축사가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 전문가로서 인정받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리가 사회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우리의 능력을 키워야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건의 및 애로사항을 토론하며 건축사회의 위상제고와 꿈과 희망을 얻어가는 충남건축사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충남건축사회, 베트남 호찌민시건축사협회와 국제교류



충청남도건축사회는 구랍 20일 베트남 호찌민시 건축사협회에서 콩 반 무이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국제교류를 갖고 앞으로 양 단체의 상호 방문 정례화, 건축문

화재 참석, 양 단체의 회원 작품전시, 건축사·교수·학생의 상호교류, 학술·기술교류를 위한 세미나, 출판서적의 자료 및 정보제공 등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으며,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할 것이라 합의했다.

이에 충남건축사회는 호찌민시건축사협회와의 국제교류를 통해 건축문화발전에 도움이 되는 국제적인 여건을 만들어 가사고 다짐했다.

21일에는 베트남 호찌민시에 있는 부회장(뎀) TTT 설계사무소를 방문하였고, 22일은 부회장(형) 아브이 설계사무소를 방문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향후 양 단체 간의 상호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번 협약으로 건축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며 양 단체간의 능력과 가치의 육성으로 건축문화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충남건축사회는 2009년 호찌민시건축사협회와 국제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작품집 『KOREAN ARCHITECTURE 2009』 판매



대한건축사협회는 2009년 건축문화대상 및 작품들을 집대성한 『Korean Architecture 2009』를 발간하고, 판매한다.

일반인은 5만원이며, 사전신청자 및 회원에 한해 3만 5천원에 판매한다.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02-3415-6862~4

KOREAN ARCHITECTURE 2010,

『건축사지 통권 500호 기념 별책』

사전 신청 안내

대한건축사협회는 2010한국건축문화대상 출품작, 해외진출 건축작품 사례 등을 수록한 『KOREAN ARCHITECTURE 2010』과 건축사지 통권 500호 발행을 맞이하여 반세기 한국건축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그동안 게재된 칼럼, 논문, 시론 등을 발췌해 수록한 『건축사지 통권 500호 기념 별책』을 한정 발행한다. 사전신청을 통해 제작실버로 널리 보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란다.

• 도서명 : 『KOREAN ARCHITECTURE 2010』 『건축사지 500호 기념 별책』

• 발행시기 : 2011년 1월말

• 사전신청 가격

— 『KOREAN ARCHITECTURE 2010』 / 4만원

— 『건축사지 500호 기념 별책』 / 2만원

— 2권 세트로 신청시 / 5만 1천원(발송비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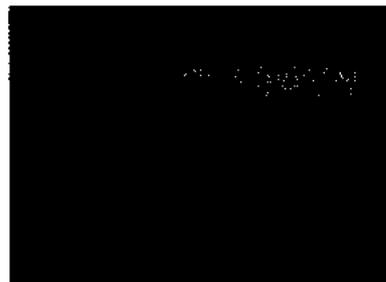
• 접수방법 : 신청서 송부 및 은행계좌 입금(본 협회 홈페이지 참조)

• 입금계좌 : 제일은행 436-20-178073(예금주 : 대한건축사협회)

※ 입금시 반드시 성명 및 지역 기재 (예 : 홍길동 부산)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문화홍보실 02-3415-6862~4

2010 건축 법령집 판매



우리협회는 건축업무를 능률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을 3단 대조식으로 편집하고, 건축관련법령 및 기준을 담아 『2010 건축법령집』을

발간·보급한다.

발송료를 포함하여 1만 5천원에 판매하며, 구매희망자는 입금 후 입금증과 구매신청서(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를 팩스(02-3415-6899)로 보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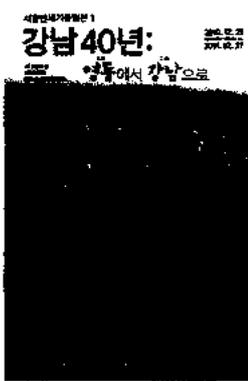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제도팀, 02-3415-6834

건축계소식

서울반세기종합전 II '강남 40년:영동에서 강남으로' 특별전

서울역사박물관(관장 강홍빈)이 '서울 반세기 종합전' 일환으로 오는 2월 27일까지 '강남 40년:영동에서 강남으로' 특별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강남이 형성된 과정과 현재의 강남을 다양한 이미지와 스토리로 비교하고 정리한다. 개발 이전 한적한 시골이던 '영동'의 모습과 넘쳐나는 강북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남서울계획', '새서울백지계



획' 등 강남 개발에 대한 구상, 강남 개발을 촉발시킨 제3한강교와 경부고속도로 개통, 강남 개발이 본격화된 영동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공무원아파트 건설, 공공기관 및 학교 이전, 고속버스터미널 건설, 지하철 2호선 건설 등 개발과 건설 과정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선보인다.

아울러 이 같은 변화를 하늘과 땅에서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순서도 마련한다. 지도와 항공사진을 통해 강남의 도로와

건물, 주거지, 공원 등의 형성 과정, 건물 층수와 노후도 건축물의 용도, 필지의 크기, 주택가와 상업지구 등이 어떻게 구성되고 형성됐는지 그래픽과 영상으로 설명한다.

'땅에서 본 강남' 코너에는 현재 강남의 다양한 이미지를 모았다. 강남의 긍정적·부정적 이미지를 가감 없이 담는다는 뜻에서 강남의 낮과 밤 풍경, 테헤란로·강남대로 등 대표적인 대로(大路), 고속버스터미널·강남역·코엑스 등의 지하도시, 대치동 학원가, 신사동 성형외과, 청담동 명품거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말죽거리, 양재천, 구룡마을 등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

• 문의 : 서울역사박물관, 02-724-0274

훈데르트바서 한국전시



국내에는 아직 소개된 적이 없는 훈데르트바서의 작품들이 오는 3월 15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1, 2 전시실에서 전시된다.

이번 전시회는 화가, 건축가이자 환경운동가였던 훈데르트바서의 작품 및 철학세계

를 집대성했다. 60점이 넘는 오리지널 페인팅, 건축모형 작품 8점, 오리지널 그래픽 30여점, 태피스트리 5점 등이 전시된다.

또 대한건축사협회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배우 지진희가 훈데르트바서 전시회에서 목소리 나눔 선행에 참여하며, 성인 티켓 판매금액의 3%는 월드비전 기아체험에 기부돼 잠비아 드림스쿨 설립에 사용된다.

• 문의 : (주)문화엠엔씨, 02-545-3944

KCC, '건축환경연구센터' 오픈



KCC는 구람 1일, 차세대 친환경 미래주택 연구개발을 위해 '건축환경 연구센터'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KCC 중앙연구소에 위치한 이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6층의 연면적 2,600여㎡(790여 평) 규모로 주거용 건물 실험관과 상업용 건물 실험관 등 2개 동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완공된 KCC 건축환경연구센터에는 총 50여 가지의 친환경 기술을 통해 화석에너지 사용과 이산화탄소 배출 등의 제로화 요소기술들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일반적인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을 100으로 잡을 경우, KCC 건축환경연구센터는 삼중복층 유리 창호와 진공단열 시스템, 지열 냉난방 시스템 등 친환경 기술 적용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여 약 83%의 에너지를 절감했다. 또한 이 센터 운영에 필요한 17%의 에너지는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자체적으로 생산한다.

KCC 관계자는 "건축환경연구센터를 통해 미래주택을 위한 친환경 기술을 개발, 공유·보급해 나감으로써 미래주택 기술의 실현을 선도해

국제건축사연맹(UIA) 학생 아이디어 공모

국제건축사연맹(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 ~ UIA)은 2011년도 동경 총회 조직위원회에서 전 세계 건축전문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동경시 환경 80km 내에 위치한 4개의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각각 다른 주제로 2050년도의 향후 미래 개발 모습을 예측해 계획해야 한다.

주제는 (20세기 과학도시인 토크부시(Tokuba)시 가쓰라기(Katsuragi)구 북부에 대학 부설 국제의료센터 재건)과 (부키우라(Bukuru) 지역을 교통, 주거, 경제의 허브 도시로 재발전시키고, 수상 스포츠 및 여가를 위한 센터 계획), (21세기 이나시키 정원 도시(Inasiki Garden City)의 생태적 작 산도시 계획), (가쓰미가우라(Gasumigaura) 남부 해안 지역에 스마트(Smart) 지구 설계)로 4가지이며, 이 중 1가지를 선택하여 30~40면 중을 한 달 1600까지 제출하면 된다.

심사위원은 Kengo Kuma(일본), Yung Ho Cheng(중국), Peter Holsinger(미국), Kato Schwennsen(미국), Nobuaki Furuya(일본), 기흥구청 - Hirotaka Sazanami(일본)이며, 상금은 각 추첨할 세 개의 상이 주어지는데 각각 ¥300,000(약 4,200,000원), ¥200,000(약 2,800,000원), ¥100,000(약 1,400,000원)이다. 추가시상은 UIA 회원단체에서 제공하며, 상금은 각각 ¥200,000(약 2,800,000원), ¥100,000(약 1,400,000원), ¥50,000(약 700,000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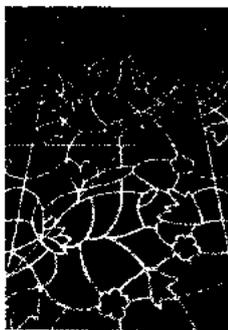
참가신청 온라인(<http://www.uis2011tokyo.com/en/callfor/>)으로 해야 하며, 자세한 지침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청작은 2011년 9월 27일 프리젠테이션이 예정돼 있고, 시상식은 2011년 9월 29일에 개최한다.

• 문의 : comp_uis@oarcg.co.jp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건축환경 기술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건축환경 시장을 선도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CC, 미끄럽지 않은 도로용 도로 '스포로드' 출시



KCC가 미끄럽지 않은 도로용 도로 'KCC 스포로드'를 구입 초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KCC 스포로드'는 고강도 MMA(Methyl Methacrylate) 타입의 도로 포장재로 미끄럼 저항성 및 내구성이 우수하며 소지와외 부착력이 뛰어난 제품이다. 또한 외부 기온과는 무관하게 1시간 내에 경화된다는 점이 돋보인다. 도로 작업 시 중요한 것은 시공성이다. 도로의 도로 도장 시에는 도로 통제를 필요로 하므로, 상온에서 빠른 속도로

경화되어 단시간 내에 시공이 가능한 'KCC 스포로드'는 도로 통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기존 도로 시설에도 보수도장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KCC 스포로드'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 급커브나 내리막 등 도로 위험구간, 자전거 전용 도로 등에 추천할 만한 제품이다. 스포로드의 가장 큰 장점인 미끄럼 방지 기능은 아침이슬, 우천 등 습윤 상태에서도 안전한 주행, 보행이 가능하다.

도막의 내구성도 탁월하다. 소지와외의 부착성, 내충격성, 내마모성 등이 우수하여 내구성이 뛰어나며, 상도 투명을 도장 시에는 내 오염성능도 가지게 되어서 유지관리가 용이하다. 시공성이 우수하다는 것은 특히 작업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단순하고 어두운 컬러의 도로는 이제 그만! 색다른 빛깔과 모양으로 아름다운 도로를 만들고 싶다면 'KCC 스포로드_스탠실 문양 바닥재'를 주목할 만하다. 'KCC 스포로드_스탠실 문양 바닥재'로 도장한다면, 다양한 스탠실 도안을 적용하여 고급스럽고 다채로운 컬러와 문양의 외관을 표현할 수 있다. 보행로 및 산책로 등에 화사하고 산뜻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으며 가로수, 건물 등 주변경관과 아름답게 어우러진다. KCC 관계자는 "KCC 스포로드는 도로의 물성과 시공성이 좋아, 작업자들도 환영할 만한 바닥용 도로"라며, "특히 KCC 스포로드_스탠실 문양 바닥재는 다양한 컬러와 패턴 적용이 가능하며, 스쿨존이나 자전거 전용 도로 등 디자인이 필요한 공간에 다양하게 적용되어 단조롭고 획일적인 도로를 아름다운 공간으로 거듭나게 해줄 것이다."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KCC 스포로드_스탠실 문양은 5가지 색상을 상비하고 있으며, 생비색상 외 컬러도 조색 가능하다.

• 문의 : KCC 고객상담실 080-022-8200,

<http://www.kccworld.co.kr>

신간안내

상자의 재구성_기적의 상자를 건축적으로 작문하다

정진국 저 | 182쪽 | 픽셀하우스

시간 <상자의 재구성>은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인 저자가 르 코르뷔지에의 '기적의 상자'를 우리 고건축에서 발견하고 해석한 책이다.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가 사부아 저택을 설계할 당시 '상자'의 성립을 선언하는 '입방체식 구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부석사, 소쇄원, 종묘경전을 설명한다. 또한 자신이 건축한 건축물 곧지암 주택, 토포하우스, 경주 주말주택 등 또 다른 상자인 다섯 개의 건축물을 통해 '기적의 상자'를 현대 건축의 언어로 재구성하였다.

• 문의 : 픽셀하우스, 02-825-3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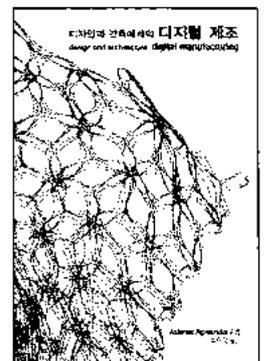
디자인과 건축에서의 디지털 제조

Asterios Agkathidis 저, 조순익 역 | 136쪽 | 시공문화사

이 책은 새로운 컴퓨터 보조 설계 및 디지털 제조 기법들의 도입으로 디자인과 건축에서 떠오르고 있는 가능성들을 살펴본다. 스튜디오들은 디지털적으로 개념화된 구조들을 1:1 실

을 프로토타입들로 변환하고 실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며 단순한 기하학을 넘어서길 시도한다. 설계 및 생산 단계 동안에는 제조 기법과 생산 비용에 대한 기능과 재료 특성과 같은 파라미터들을 고려해야 한다. 생성적인 CAD 툴들, 알고리즘, 그리고 스크립팅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디자인 요소들로서만이 아니라, 주로 복잡한 기하형상들의 생산 과정을 합리화하고 체계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장치들로서 사용됐다.

• 문의 : 시공문화사, 02-3147-1212



맞춤과 이음_한국 전통 목조건축의 결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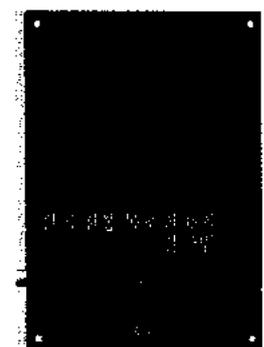
정연성 저 | 352쪽 | 도서출판 고려

이 책은 안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가 오랜 현장경험과 노력을 통해 완성한 결과물이다.

이 책에는 50여 채가 넘는 대표적인 우리 전통건축물들의 다양한 사례와 맞춤과 이음에 관한 풍부한 도면, 사진들로 목조건축의 결구법에 대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내용이 담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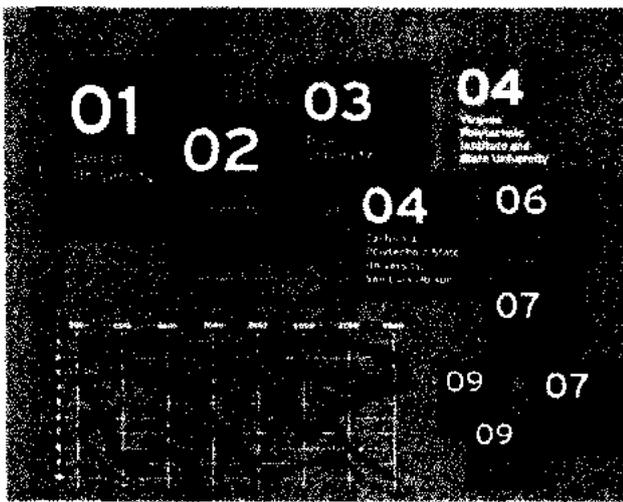
이 책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국 전통 건축물들이 어떠한 부재로 어떻게 구성되고 연결되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이야기 한다.

• 문의 : 도서출판 고려, 02-2277-1424



김은미 | Kim, Eunmee | Studio M.Ap

2011년 미국 최고 건축학교들의 순위



'DesignIntelligence'지 12호에서, 제임스 크라이머와 그린웨이 그룹은 2011년 미국 최고 건축&디자인 스쿨 랭킹을 발표했다.

코넬대학이 다시 한번 최고의 건축학사 프로그램을 가진 대학으로 선정됐다. 올해의 가장 큰 변화는, 미시간대학 건축 석사과정 이 지난 6년간 최고의 자리를 유지했던 하버드대학 석사과정을 2위로 밀어내고 최고의 건축 석사과정을 가진 대학으로 차목된 것이다.

제임스 크라이머는, 왜 학교 순위를 매기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학에서 학생들의 경험들은 그들 미래의 성공에 대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전공에 대한 흥미를 감소시키거나 강화할 수 있다. 이 순위는 대학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건축계 전체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동시에 학생 개인의 경력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굉장한 기회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 한다." 라고 대답했다.

크라이머는 이어서, "또 다른 대답은 졸업자들을 채용하는 건축 회사의 입장에서부터 찾아질 수 있겠다. 만약 건축전문학위 과정의 목표가 학생들을 건축 실무를 위해 준비시키는 것이라면, 학위를 주는 기관이 얼마나 그 일을 잘해야 하겠는가? 디자인퓨처 위원회와 그린웨이 그룹의 현재 진행되는 리서치는 건축회사와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들이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있고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근래의 경제 상황을 제쳐두고라도) 이 건축 관련 직업군은 '빌딩인포메이션 모델링' 같은 기술에 의한 근본적인 변화로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현 교육기관들은 거세기 실무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리서치는 이렇게 질문한다. "지난 5년간 너의 회사의 직원 채용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어느 학교출신들이 건축가로서의 성공을 위해 가장 잘 준비 되어 있는가?"

밀의 랭킹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완성된 건축대학교 순위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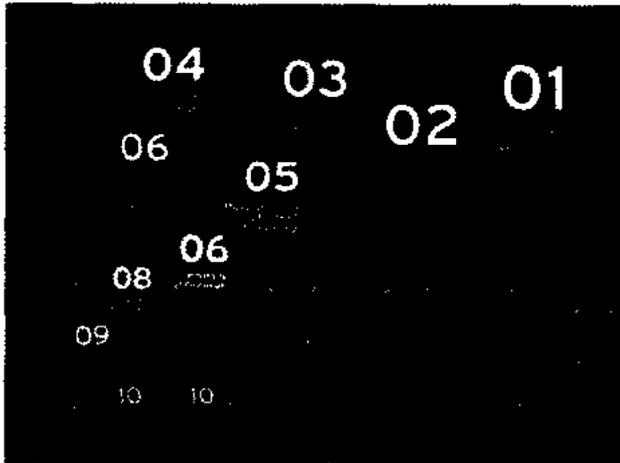
· 분석/플랜닝,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능력, 사공기술/재료, 디자인, 리서치/이론, 지속가능한 디자인 실무/원리

건축학사 과정 최고 상위 10개 대학

1. Cornell University, Ithaca, New York
2. Syracuse University, Syracuse, New York
3. Rice University, Houston, Texas
4. California Polytechnic State University, San Luis Obispo, California
5.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Blacksburg, Virginia
6. Southern California Institute of Architecture, Los Angeles, California
7. Carnegie Mellon, Pittsburgh, Pennsylvania
8.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Austin, Texas
9. Pratt Institute, Brooklyn, New York
10.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California

건축석사 과정 최고 상위 10개 대학

1.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chigan
2.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ssachusetts



3. Yale University, New Haven, Connecticut
4.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City, New York
5.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Cambridge, Massachusetts
6. Cornell University, Ithaca, New York
6. University of Cincinnati, Cincinnati, Ohio
8.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iladelphia, Pennsylvania
9.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t. Louis, Missouri
10.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Berkeley, California
10.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Austin, Texas

건축 기술 평가 상위 5개 대학

분석과 플랜닝_Analysis and Planning

1. University of Michigan
2. Harvard University
3. Cornell University
4.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5.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5. Yale University

커뮤니케이션_Communication

1. Harvard University
2. University of Michigan
3. Yale University
4. Cornell University
5.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컴퓨터 능력_Computer applications

1.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2. Southern California Institute of Architecture

3. University of Michigan
4. Columbia University
5.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시공기술과 재료_Construction methods and materials

1. California Polytechnic State University, San Luis Obispo
2.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3. University of Michigan
4. Lawrence Technological University
4. University of Kansas

디자인_Design

1. Harvard University
2. Southern California Institute of Architecture
3. University of Michigan
4. Cornell University
5. Yale University

리서치와 이론_Research and theory

1. Harvard University
2. University of Michigan
3. Columbia University
3. Yale University
5.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5. Cornell University

지속가능한 디자인 실무와 원리_Sustainable design practices and principles

1. University of Oregon
2. University of Michigan
3.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4.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5. Auburn University

건축학장 설문조사 상위 5개 대학

최고의 학사과정_Most admired B. Arch. programs

1. Auburn University
2. Cornell University
3.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4.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5. Syracuse University

최고의 석사과정_Most admired M. Arch. programs

1. Harvard University
2. Yale University
3.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4. Columbia University
5. University of Michigan

건축학교 순위 차트의 의미와 그 활용가치

수년간 많은 단체들과 개개인들로부터 건축학교들의 순위가 매겨져 왔다. 미국에서 산업 전반으로 부터의 건축학사과정과 건축환경과정을 포함한 대학교들의 순위에 갖는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프린스턴리뷰와 워싱턴 먼슬리 그리고 상하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세계대학랭킹(ARWU)은 학교의 질과 그 가치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최고의 학/석사과정과 프로그램을 순위 매기고 있다.

그리고 위의 단체들 보다는 덜 공식적이긴 하나, 여러 다른 대학교 순위들을 스튜던트리뷰나 렉스 레커멘데이션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 워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건축학교와 프로그램들은 「DesignIntelligence」지에 의해 매년 순위가 매겨진다. 이에 더해 몇몇 직업관련 단체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학교와 건축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순위들을 보고하고 있다. 미국건축사협회와 같은 단체들은 종종 훌륭한 교수법에 대해 상을 주고, 그들이 준 상을 학교 순위를 매기는 자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대학순위들은 자신들만의 특별한 순위책정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 논란이 많은 고우만 리포트의 경우, 그 저자는 그의 방법론에 대해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대학순위'들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첫 번째로, 이러한 대학순위 보고서들은 결론을 이 끌어내기 위한 세부 데이터들을 동반하곤 하는데, 이 보고서들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가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편집자는 보통 그러한 통계들이 다른 자료들과 비교가 가능하게 하는 데 노력을 기하고 있다.

두 번째로, 대학순위들로부터 나온 통계수치들은 또한 더 세부적인 연구를 위한 주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한 학교가 많은 인턴십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정규직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목록에는 그 학교가 많이 등장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에 대해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모든 대학교 순위들은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학교나 기관들의 목록들이란 것이다. 그 목록들을 훑어보면 지금껏 딱히 중요하게 생각해 보았거나 심지어 들어 본적이 없

는 건축학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출처가 다른 순위들을 서로 비교해 본다면, 더 세분적인 면에서 학교 목록들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의 순위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된다. 건축학교 순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순위 이외에 고려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 별로 눈에 띄지는 않으나 개인에 필요나 취향에 맞는 학교가 있을 수 있다. 만약 학교를 다니는 동안 집에 머무를 기를 원한다면 덜 알려진 지역 학교가 적당 할 수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학교들은 지역 산업과 고용주들과 강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을 잘 축적한다면, 자신만의 건축학교 순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몇 년 전부터 우리의 건축대학들은 5년제 교육 인증제 획득을 위해 전 단과대학의 힘을 모아 노력 중이다. 그 이유는 자유 무역 협정으로 상벽 없이 진출하는 시장에서 인증을 딴 대학 졸업생들은 외국에서 건축사 응시 자격까지 자동으로 얻게 될 전망이므로 외국시장 진출에 유리할 것이며, 또한 길게 보아 국내 건축사와 연계 하여 사업 해야만 하는 법적 제한 없이 독립적으로 설계 시장에 물러들 실력과 경험이 앞선 해외 건축사와의 경쟁에 대비하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의미의 인증 제도가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많은 건축대학들이 흥역을 치르지만 이러한 통과 과정이 혹여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기술이나 요령의 답습이 되지 않으며, 외국의 경우처럼 대학 전체의 네임 밸류와는 또 다른 건축대학 독립의 명성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는 바람이다. 사실 국내에도 대학의 순위를 매김하는 차트가 있기는 하지만 특히 건축대학의 평가는 세분화 되어 있지 않고 순위평가를 거부하면 그나마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의 건축대학은 대부분 크게 건축공학과 건축설계 과로 나뉘어 저있다. 하지만 위의 차트의 많은 학교들은 우리와는 달리 건축대학 내에 조경, CM, Historic Preservation, Urban Design, City Planning 등의 전공까지 개설 되어있어 학점이수가 편리하여 다양한 건축 세계를 학창 시절 탐험해 볼 수 있으며 학교에 따라 복수 학위 취득도 가능하다. 이러한 시스템이 훌륭한 학생들을 길러내며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인증 체계가 이러한 건축대학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지만 시장 개방의 속도는 너무나 빠르게 코앞에 와있는 시점에 이러한 학교 체계를 만드는 것에 가속을 붙여 나가서 우리도 위의 차트처럼 세분화 된 차트를 만들 수 있고 그것을 대학 지원자들이 참고 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

※ 위의 글의 일부는 archidaily 의 글을 발췌, 번역 한 것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10년 11월 말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합계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지역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336	5,336	102	204	8	24	5,416	5,564	1,663	1,663	240	480	61	183	27	108	25	163	2,016	2,597	7,467	8,161
서울	901	901	27	54	2	6	930	961	897	897	141	282	40	120	12	48	15	88	1,105	1,435	2,035	2,346
부산	473	473	16	32	2	6	491	511	97	97	18	36	3	9	0	0	3	22	121	164	612	675
대구	422	422	20	40	3	9	455	471	67	67	17	34	3	9	3	12	2	10	92	132	537	603
인천	269	269	3	6	0	0	272	275	62	62	7	14	0	0	1	4	0	0	70	80	342	355
광주	201	201	1	2	0	0	202	203	40	40	7	14	3	9	2	8	0	0	52	71	254	274
대전	241	241	4	8	1	3	246	252	35	35	9	18	2	6	2	8	1	16	49	83	295	335
울산	177	177	5	10	0	0	182	187	17	17	2	4	1	3	0	0	0	0	20	24	202	211
경기	728	728	2	4	0	0	730	732	232	232	17	34	3	9	2	8	1	5	255	288	985	1,020
강원	172	172	2	4	0	0	174	176	25	25	2	4	0	0	1	4	0	0	28	33	202	209
충북	208	208	4	8	0	0	212	216	30	30	5	10	1	3	1	4	2	15	39	62	251	278
충남	240	240	1	2	0	0	241	242	45	45	5	10	2	6	2	8	0	0	54	69	295	311
전북	240	240	4	8	0	0	244	248	22	22	2	4	2	6	0	0	0	0	26	32	270	280
전남	193	193	1	2	0	0	194	195	19	19	1	2	0	0	0	0	1	7	21	28	215	223
경북	353	353	5	10	0	0	358	363	36	36	4	8	0	0	1	4	0	0	41	45	399	411
경남	403	403	7	14	0	0	410	417	29	29	3	6	0	0	0	0	0	0	32	35	442	452
제주	15	15	0	0	0	0	15	15	10	10	0	0	1	3	0	0	0	0	11	13	126	128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회원				비율	주회원
	건축사회	건축사	2급	계		
합계		8,161	10	8,171	100%	23
서울		2,396	3	2,399	33.9%	10
부산		675	1	676	7.9%	9
대구		603	0	603	7.7%	0
인천		355	0	355	3.8%	0
광주		274	0	274	3.7%	0
대전		335	1	336	3.7%	0
울산		211	0	211	2.6%	0
경기		1,020	2	1,022	12.2%	2
강원		209	0	209	2.6%	0
충북		279	0	279	3.0%	0
충남		311	3	314	3.1%	0
전북		280	0	280	3.0%	0
전남		223	0	223	1.9%	0
경북		411	0	411	4.6%	1
경남		452	0	452	5.0%	1
제주		128	0	128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업비차리	합계	비율
회원수	5,564	2,597	-	8,161	+13%
비율	68.18%	31.82%	-	100%	+1.72%
사무소수	5,446	2,016	-	7,462	+8%
비율	72.98%	27.02%	-	100%	+2.5%

※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건축허가 현황 통계는 「국토해양 통계누리(<http://stat.mitm.go.kr>)」에서 자세히 열람할 수 있습니다.